



남계서원



돈암서원



도동서원



소수서원



무성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병산서원



필암서원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학술회의 2014. 10. 24 (금) 9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국의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주최 문화재청

주관 (사)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 한국서원학회

후원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 개 회 사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추진단장 이 배 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추진단장 이배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에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이 ‘국의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나선화 문화재청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회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어약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Thomas Coomans 벨기에 루벤대 교수님, Tsujimoto 교토대 명예교수님, Sarao 인도 델리대 교수님, Andreas Müller-Lee 독일 베를린 자유대 교수님, Pham Khanh Ngan 베트남 문화유산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광익 교수님, 이상해 교수님, 이희수 교수님, 판카즈 모한 교수님, 김덕현 교수님, 이해준 교수님, 정순우 교수님, 이왕기 교수님, 이수환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과 학술회의를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재청 및 14개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9개 서원 운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귀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식교육과 함께 더 중요하게 여긴 인성교육의

실천을 강조한 교육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과 문화재청은 서원의 교육문화유산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지방자치 단체와 각 서원의 유림들의 적극적 협력과 연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한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 4월에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발족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은 2015년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의 서원이 원활하게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통 교육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육문화유산을 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ening Speech

---

Director,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List

**Lee, Bae-Yong**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Lee, Bae-Yong, Director of the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During this beautiful month of October, reaching the peak of the autumn season, I am very pleased that the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is holding such a meaningful international event titled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here in Korea.

My special thanks goes to Rha Sun-Hwa,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for giving her full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this event. I express our thanks to Korea *Seowon* Association President, UH, YAK for their presence here today even amidst his busy schedule. I'd like to als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Prof. Thomas Coomans of Leuven University of Belgium, Prof. Emeritus Tsujimoto Masashi of National Taipei University, Prof. K.T.S. Sarao, Delhi University of India, Prof. Andreas Mueller-Lee of Freie Universitat of Berlin, and Deputy Head Pham Khanh Ngan representing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Vietnam for joining this symposium, despite busy schedules with your deep interest in Korea's *Seowon*. I'd like to thank all the speakers and panelists, including Prof. Kim Kwang-Ok, Prof. Lee Sang-Hae, Prof. Lee Hee-Soo, Prof. Pankaj Mohan, Prof. Kim Duk-Hyun, Prof. Lee Hae Jun, Prof. Chung Soon Woo, Prof. Lee Wang Kee, Prof. Lee Soo-hwan as well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officials from 14 local governments, and the administrators of nine *Seowon* for your full support for this symposium.

Korea's *Seowon* are worthy representatives of Korea's cultural heritage that reflects precious spiritual values like 'balance between nature and humankind,' 'communication and harmony,' and 'sharing and consideration' and educational ideologies.

To enhance national status of Korea through the promotion of cultural and educational values of *Seowon*, the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ave been working for the inscription of Korea's *Seowon* on UNESCO World Heritage List together with related partie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Currently, Korea's *Seowon* designated as historic site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re on the tentative list of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and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in April, 2014, the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has been actively working to include Korea's *Seowon* o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Our association firmly believes that Korea's *Seowon* will b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when the registration of nomination is submitted to UNESCO in January, 2015 backed by all the support we have received from you.

As a part of the efforts, today's symposium has been organized to explore the value of Korea's *Seowon* as World Heritag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nd to discuss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its future use in presence with prominent experts and scholars from home and abroad.

It gives us particular pride to share Korea's educational and cultural heritage with the world thanks to the dedication and hard work of all participating experts and organizations.

I hope that meaningful discussions we make today will be an important breakthrough for the inscription of Korea's *Seow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and I sincerely ask that all of the participants will share your precious and insightful ideas. Once again, I'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symposium.

Thank you.

# 축사

---



(사)한국서원연합회이사장

## 어약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를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국제학술회의를 맞아 전국 서원을 대표해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2012년 4월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서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사업추진단을 발족해 한국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추진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년 1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제출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배용 추진단장님과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14개 지자체 단체장님과 관계 공무원, 한국서원연합회와 9개 서원 운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국제학술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교육유산에 대한 격조 높은 학술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국내외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서원의 정취는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서원은 나라의 원기를 지탱하는 근간이었고, 그 정신문화유산은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져 국가 성장의 바탕이 되는 교육열과 근면성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한국 서원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이 같은 한국 서원의 시대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대상이 된 9개 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서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서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결성된 우리 (사)한국서원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가 주제 그대로 국외 교육유산과 한국 서원을 비교해 '한국 서원의 교육유산 가치 확인'과 '한국의 서원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보람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진지한 학술행사가 되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국제학술회의를 바탕으로 '한국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며 축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gratulatory Speech

---

President, Korea Seowon Association

**UH, YAK**

On behalf of *Seowon* in Korea, I'd lik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titled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It seems just yesterday that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the Korea *Seowon* Association established the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together, and started carrying out plans for the inscription of Korea's *Seow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ime has flid so fast and now we are in the run up to the submission of registration of nominations in January of 2015.

I'd like to thank Chairman Lee Bae-Yong of the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Administrator Rha Sun-Hwa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eads of 14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fficials, the Korea *Seowon* Association and administrators of nine *Seowon* in Korea for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In particular,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speakers and panelists from home and abroad for insightful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at will be shared during today's symposium.

Korea's *Seowon* are part of the precious spiritual and cultural heritages of Korea that have persevered throughout its 5,000 year-long history. *Seowon* in the Joseon Dynasty was the foundation to sustain the vitality of the nation, and its spirit and culture has been inherited and become the foundation of educational enthusiasm and diligence, which are the basis for national growth.

Korea's *Seowon* embody the spirit of the times, such as 'peace and life,' 'communication and harmony,' and 'sharing and consideration.' I believe that the inscription of Korea's *Seow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promote its integral values to the world and to hand it down to our future generations.

The efforts we are making is an important not only for the nine nominated *Seowon* but also for all the *Seowon* in Korea and The Korea *Seowon* Association will do its best uniting strong wills of *Seowon* across the nation.

I sincerely hope th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be a rewarding time to achieve its intended goals by 'confirming educational values of *Seowon*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and by 'further promoting Korean *Seowon* to the world'.

Once again, I'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participating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for taking on the important roles as speakers and panelists in this symposium and I hope that this dedicated academic event will be a great help in achieving our goal together.

I wish that the inscription of Korea's *Seow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ill be successfully completed based on today's fruitful discussion.

Thank you.

## 프로그램

<b>오전 학술대회</b>			사회 :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09:00~09:30(30')	등록	참가자등록	
09:30~10:00(30')	개회식	<b>개회사</b> 이배용 한국서원세계유산추진단 추진단장 <b>축사</b> 어약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	
10:00~10:30(30')	기조강연	<b>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로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b> 김광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0:30~10:50(20')	휴식		
10:50~11:20(30')	주제발표1	<b>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 Monastic Schools에서 대학교Universities까지</b> Thomas Coomans 벨기에 루벤대학교 교수	
11:20~11:50(30')	주제발표2	<b>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Madrasah의 탄생과 역할</b>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	
11:50~12:40(50')	오찬		
<b>오후 학술대회</b>			사회 : 조준호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12:40~13:10(30')	주제발표3	<b>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b> Tsujimoto Masashi 국립 대만대학교 교수	
13:10~13:40(30')	주제발표4	<b>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b> Pham Khanh Ngan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13:40~14:10(30')	주제발표5	<b>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b> K. T. S. Sarao 인도 델리대학교 교수	
14:10~14:40(30')	주제발표6	<b>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b>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4:40~15:00(20')	휴식		
15:00~17:00(120')	종합토론	<b>좌장</b>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b>토론자</b> Andreas Müller-Lee 연구원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Pankaj Mohan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 Conference Program

---

**Moderator :** Park, Dong Jun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

**Opening Speech** Lee, Bae-Yong Director, Association for Inscribing Korea's Seowon on World Heritage List

---

**Keynote Speech**

**The Value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s a Cultural Heritage:  
On Collegium and Confucian Academy**

---

**Theme 1**

**From Monastic Schools to Universities : Educational Heritage in Medieval Europe**

---

**Theme 2**

**The Creation and Role of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Madrasah**

---

**Theme 3**

**Early Modern Education in Japan and Cultural Heritage**

---

**Theme 4**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ONFUCIANISM IN VIETNAM**

---

**Theme 5**

**Educational Heritage of Indian with Special Reference to Buddhism**

---

**Theme 6**

**The Value of Korean Seowon as World Heritage**

---

**Moderator**

Lee Hae Jun Professor, Gongju University

**Discussants**

Andreas Müller-Lee Researcher

Kim Duk hyun Professor, Gyeongsang Natl. University

Chung Soon Woo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Lee Soo Hwan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Pankaj Mohan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Lee Wang Kee Professor, Mokwon University

---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목 차

## Contents

기 조 강 연 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로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b>015</b>	Keynote Speech The Value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s a Cultural Heritage: On Collegium and Confucian Academy
주제발표 1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에서 대학교Universities까지	<b>049</b>	Theme 1 From Monastic Schools to Universities :
주제발표 2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Madrasah의 탄생과 역할	<b>075</b>	Theme 2 The Creation and Role of the Traditional
주제발표 3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b>097</b>	Theme 3
주제발표 4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b>125</b>	Theme 4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주제발표 5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b>147</b>	Theme 5 Educational Heritage of Indian with
주제발표 6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b>167</b>	Theme 6



# 기 조 강 연

## Keynote Speech

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로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김광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The Value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s a Cultural Heritage :  
On Collegium and Confucian Academy

Kim, Kwang Ok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전통 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레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김 광 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오늘 우리가 전통 교육기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에도 추구할 가치가 깊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 유산은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전통 교육기관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적 가치'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다. 즉 현대와 구별하여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교육기관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지식의 성스러움 그리고 지식탐구의 행위와 과정의 경건함이 하나로 엮여져 있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하였고 사람다움의 도를 터득하였다.

서구의 칼리지(college)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기숙을 하면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데 이는 교회를 뜻하는 콜레기움(collegium)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또한 칼리지는 기숙사, 교회, 도서관, 식당의 네 요소가 구성이며, 여기에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장이 덧붙여진다. 콜레기움 혹은 칼리지가 기숙과 식당을 교회와 함께 중시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교수와 학생이 한 단위의 구성원을 이루며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질서와 인간적 윤대를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제도적 과정이다. 이러한 기숙학교에서는 지식 뿐 만 아니라 개인이 인간다움을 얼마나 완성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말투, 행동, 예절, 성품, 취미, 교양, 몸가짐 등이 모두 중요한 훈육의 항목이다.

서구의 수도원(칼리지의 원형으로서), 아랍, 인도, 유대교, 티벳 등 모두 신을 받드는 종교적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교육기관은 교회(사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서원은 유교문화의 공간이다. 유교는 신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이성 혹은 본성으로부터 도덕을 찾는 이른바 자기수양을 통한 도통의 학문체계이자 방법론이다. 즉 지식은 신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신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됨을 위한 철학의 장소인 것이다. 우리가 고대 혹은 중세의 소위 전통적인 교육제도를 지금에 와서 다시 중시하는 까닭은 그것이 전인교육과 인간됨의 도를 추구하는 행위와 지식의 생산과 전수 과정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장소이자 과정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 The Value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s a Cultural Heritage : On Collegium and Confucian Academy

Kim, Kwang Ok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reason we contemplate our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is that it is not merely a thing of the past. It encompasses the great period of cultural heritage in human civilization that deserves to be studied and acclaimed today as a subject of significance. This cultural heritage includes not only material advances, but also significant intellectual and metaphysical developments. The most crucial “value as cultural heritage” that can be depicted from deep contemplation about our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could be described in the term “old future”.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which we differentiate from that of the present, could be characterized as an amalgamation of human fellowship, the holiness of knowledge and the act of searching for knowledge. People grew as they learned the ways of humanity within the walls of this institution.

In reference to the educational community, which is composed of teachers and disciples living together on campus, the word college, used in the western world, derives from the Latin term collegium which in fact means church. Also, college is composed mainly of four elements: dormitory, church, library and dining hall. Many colleges also add a gymnasium for physical training and wellness purposes. There is a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collegium, or college, which places particular importance on the dormitory and dining infrastructures. This particular infrastructure signifies the cohesion teachers and students share as one unit. This embodies the systematic process in which students are trained to develop personal maturity, ethics, morals and social skills necessary for human bonding in the wider world. In a school with such living arrangements, great care is often invested in ensuring that the students not only absorb knowledge, but also develop their own humanity. They learn how to communicate and behave properly, as well as how to exhibit courtesy, good character, manners and etiquette. These are all very important subjects.

At monasteries in the West (the original collegiate institution), Arabs, Indians, Jews, and Tibetans all worked to construct religious education institutes meant to serve and attend God.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derives from church, or temple. In comparison, Korea's Confucian academy is an institution for Confucian culture. Confucianism is a system of education where the participants learn the Way, not through God's revelation, but through seeking morality from within their own rationality or essential nature.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knowledge is not to interpret God's Words or to offer their services, but to learn and develop the philosophy of being a human dedicated toward humans and guided by humans. Today, we are placing special importance again on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ancient or medieval times, because it provided a venue and process where the act of pursuing the Way of humanity was combined to form one system with the process of creating and perpetuating knowled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Paper





# 전통 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레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김 광 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 1. '인간 됨'을 위한 문화적 기제로서의 전통 교육의 장치

전통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일종의 지적 성지순례(intellectual pilgrimage)를 위한 것이다. 이 순례는 오늘날 소위 현대의 교육기관이 무엇인가를 상실한 데서 오는 실망과 아쉬움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현실에 대한 실망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때 곧잘 과거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낭만화의 성향을 갖게 되고 따라서 과거에 대한 노스탈지어에 빠져든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통 교육기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에도 추구할 가치가 깊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 유산은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안다는 것(앎)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와 의미 그리고 정서적인 자산을 총칭하는 것이며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한 앎의 훈련은 곧 인간이 되는 것(being human) 또는 인간다움(human being)의 도를 터득하는 과정이다. 현대교육은 점차 앎의 성스러움과 인간성의 고양을 추구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통 교육기관이라 할 때 전통이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지구상의 지역마다 그 '전통'의 역사적 시간은 다르다. 그리스의 전통을 이야기 할 때 흔히 '고대 그리스'라고 부르는 시대의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한국에서 전통은 지난 조선조 500년의 기간을 대표하는 특징을 막연하게 지칭한다. 대개는 근대 이전의 과거를 총칭하여 전통시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맥락에 따라 달라서 모호하고 정확하지 못하다. 다만 20세기 이래의 현대 대중교육 제도와 구별하여 그 이전 시대의 비교적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제도적 장치를 말하기로 한다.

사실 이 세상 어디에든 지식을 생산하고 전하는 문화적 기제는 있다. 이야기는 문자와 종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지식과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침을 주는 강의의 원형이었다. 독일의 민네생거(minnesaenger), 이슬람 사회의 호자(hoja), 중앙아시아의 아칸(akon)이라 부르는 음유시인, 혹은 구술문학자인 메네스(menes) 등은 모두 그러한 이야기꾼 현자이다. 종지와 문자의 발명은 보다 더 원거리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식을 전파하게 해주었다. 이제 화자(speaker)가 직접 청자(listener)를 마주하고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었다. 문명사적으로 고선지가 이끌었던 당나라 군대가 중앙아시아의 탈라스 전투

(751)에서 지지 않았다면 이슬람의 전파는 아주 느렸을 것이다. 당나라 포로들로부터 종이 만드는 기술이 사라센에 전해졌고 이는 이슬람이 급격하고도 광범하게 전파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더 중요한 역사적 발전은 점차 교육의 제도적인 장치가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을 체계화하고 더 깊고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일정한 자리에 모여서 비교적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후속 세대를 양성함으로써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하는 사업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교육기제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통 교육기관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적 가치’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다. 즉 현대와 구별하여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교육기관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지식의 성스러움 그리고 지식탐구의 행위와 과정의 경건함이 하나로 엮여져 있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하였고 사람다움의 도를 터득하였다. 그러므로 지식의 습득과 생산 자체가 아니라 인간 됨의 과정이자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였다고 볼 것이다.

## 2. 서구의 콜레기움 또는 칼리지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1088)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1096), 파리대학(1200),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1209)처럼 유럽의 많은 고등교육 기관들이 이미 중세시기부터 있어왔다. 칼리지(college)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기숙을 하면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데 이는 교회를 뜻하는 콜레기움(collegium)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주: 콜레기움은 모임 혹은 공동체를 뜻하기도 한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생활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신을 봉사하는 사제들의 공동체로 출발하였으며 신의 진리를 탐구하고 익히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히는 제도적인 장소이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숙식을 하는 기숙생활을 통하여 수도 혹은 수양을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이다. 즉 칼리지(college)는 교회 혹은 수도원(monastery)에서 기원하였지만 거기에 기숙을 하는 학문연마의 단위로서 학료(學寮)라고 번역한다.

오늘날에도 중세의 콜레기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칼리지들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칼리지의 원천 혹은 바탕인 것이다. [주: 19세기 초 훔볼트의 대중교육기관으로 대학을 개혁하는 운동을 받아들여서 유럽이 대학개혁을 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의 특명에 의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남았던 것이다.] 칼리지는 기숙사 교회 도서관 식당의 네 요소가 구성의 기본이다. 여기에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장이 덧붙여진다. 칼리지는 세속의 공간과 구분하기 위하여 높은 담을 쌓거나 성처럼 꾸며서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즉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는 성스러운 세계(sacred)로서 세속적 세계(profane/ mundane)와 구별되었다.

콜레기움 혹은 칼리지가 기숙과 식당을 교회와 함께 중시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교수

와 학생이 한 단위의 구성원을 이루며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질서와 인간적 윤대를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제도적 과정이다. 이러한 기숙학교에서는 지식 뿐 만 아니라 개인이 인간다움을 얼마나 완성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말투, 행동, 예절, 성품, 취미, 교양, 몸가짐 등이 모두 중요한 훈육의 항목이다.

성스러움과의 연관으로 인하여 지식은 그 자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당시의 학문이란 신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탐구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성스러운 지식이었다. 그것은 따라서 성직자의 특권적 영역이었다. 지식은 신과 연결됨으로써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대학의 출현 역사는 바로 그러한 신성한 지식의 탐구와 전수의 장으로서의 콜레기움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대중교육 기관으로 바뀌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그러한 성스러움의 영역에 접근을 하였다. 르네상스(14C~16C) 시대에 대학 혹은 아카데미(학술원)의 전신인 콜레기움이 많이 세워졌음은 곧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결합 혹은 조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주: 폴란드 크라쿠프의 야기엘론스키 대학의 시초인 콜레기움 마이우스(코페르니쿠스가 수학함)는 1364년, 에어푸르트 대학의 시초인 콜레기움 마이우스(루터가 수학함)는 1392년에 세워졌다]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봉건 제후에 의하여 학문을 위한 콜레기움의 설립은 지식습득이 세속적이고 특권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지식산업사(history of intellectual industry)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제 귀족 엘리트가 장악하는 세속적 권력의 장이 된 것은 아니다. 신학의 절대적인 성스러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입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와 경제 권력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다 학문의 전문기관으로 확립되었다. 곧 종교(신)와 세속(정치와 경제 권력)과 학문의 세 영역 혹은 힘이 르네상스 이래 서구의 지식생산의 구도를 형성하였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벽화 ‘아테네 학당’ (Scuola di Athene) (1510-11)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의 집무실을 철학 신학 시학 법학의 4개의 주제로 장식하기 위하여 라파엘로(1483-1520)에게 벽화를 주문하였는데 그 중 철학을 주제로 한 것이다. 철학은 인간의 학문 즉 이성의 논리라는 정신세계로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확립되는 당시의 이상(idea)을 그린 것이다. 라파엘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당대에 이르는 철학자 신학자 법학자 예술가를 하나의 아카데미 안으로 모아놓은 그림을 통하여 인본주의적 콜레기움을 상상하였던 것이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와 상업의 발달로 인한 시민계급의 탄생과 더불어 지식의 대중화 혹은 시민이 지식 산업에 접근성을 취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이래 산업혁명과 근대국가의 성립은 공민과 국민의 개념을 출현시켰고 소위 ‘국민/공민 만들기’를 위한 교육 제도와 지식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콜레기움은 근대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왕과 교회의 지원으로 시민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국립/관립/공립 대학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관학과 사학의 대립이 새로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과 공민을 만들려는 관학의

규율 지향의 교육과 사학의 자유주의적 가치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대주교와 국왕 혹은 귀족이 유서깊은 유면한 기숙학교와 대학을 설립하였다. 국왕이 재정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관립이 아니라 사립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영국에서 공립학교라고 번역되는 public school의 뜻은 개인이 집에서 가정교사(private tutor)로부터 받았던 교육 대신에 여러 명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공공의 장소에 모여서 공동기숙하고 함께 공부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가가 세운 소위 국립학교는 훨씬 뒤인 현대국가에 와서야 시작하였다.

결국 20세기에 와서 보다 분명하게 탈신학적인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대두와 경제학과 정치학 등의 세속적 지식을 추구하는 기술적 학문이 대두하게 되면서 교회와 교육기관의 간극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일정한 텍스트의 테두리 안에서 가르쳐졌던 성스러운 지식 대신에 이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교육기관에 의하여 도덕과 이성으로 감시를 해야 하는 사악한 범죄의 가능성을 함께 가진 지식이 양산되었다. 지식과 교육의 세속화에 따라 도덕철학이 반동적으로 강조되었다. 즉 고등교육은 교양과 함께 수양을 통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세상에 대한 고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갖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추도록 가르치는 과정으로 여기는 성향의 대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과 성스러움을 독점하면서 수료증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으로 무장하여 세속적인 영역에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소위 교육배경을 특권적 자산으로 삼고 이를 세습화하며 학벌로 된 패거리를 지었다. 이는 교육 신분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육 엘리트주의”는 교육받은 결과의 특권이 아니라 교육받을 기회의 특권을 독점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19세기 초에 훔볼트(1769-1835)에 의한 대중교육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1810년에 설립된 근대적 체계를 갖춘 공교육의 장으로서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은 교육과 연구 기능의 통합과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이전의 오랜 귀족주의적이고 특권주의적인 대학과는 다른 대중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1916년 초대 북경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자유주의자 채원배(蔡元培 1868-1940)는 겸용병포(兼容並包: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써 고등교육의 기회와 내용의 개방성을 설파하였다.

오늘날 고등교육 기제는 윤리와 도덕과 인간적인 것에 대한 교양 보다 상품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유통 산업의 허브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대학은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동반자임을 자처한다. 즉 전문 지식과 미래를 향한 이상을 가지고 비판을 통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그러나 이전의 종교 대신에 오늘날은 점차 비대해지는 세속적 권력 특히 관료집단과 긴장 내지 경쟁 관계에 접어들고 있다.

### 3. 한국의 전통 교육기관 : 서원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고등교육 기관은 고구려(BC 37-668)의 태학(372), 신라(BC 57-935)의 국학(747), 고려시대(918-1392)의 국자감(992) 등으로 면면히 있어왔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체계적으로 발달한 시대는 조선조(1392-1910)에서 유교의 확립과 함께 전개되었다. 유교를 국가 이념체계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조는 개국 초에 서울에는 최고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고려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고 조선 개국과 함께 한양에 세웠다]을 두고 크고 작은 모든 고을에는 문묘를 설치하고 향교라 부르는 중등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기초교육은 家學이거나 개인에게 私塾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儒者 혹은 선비들이 山林/士林/儒林의 연계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지식과 사상의 유통을 주도하였다. 성균관과 문묘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 그리고 조선의 성현을 제사지내며 강학과 유생들의 학습을 조직하였다. 향시를 쳐서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유학하고 그들은 대과 응시에 혜택을 누렸다. 중종조에 유학을 크게 장려하면서 사림/유림의 정치적 사회적 존재가 부각되었다.

조선조 중종조에 풍기군수로 있던 주세붕이 중국의 백록동서원[주: 9C초 이발 형제가 처음 시작하였는데 宋代에 와서 1179년 주희가 보수 확장하면서 중국 4대 서원의 하나로 발전하였다]을 본 따서 안향을 제향하는 백운동서원(1544)을 세웠다[주: 1550년에 소수서원으로 개칭 사액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본격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서원의 효시로 본다. 그 이래로 조선조에는 수백 개의 서원이 설립되었다. 전국에있던 1000여 개의 서원과 사우의 대부분은 고종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1864-1871)에 의하여 훼철되었으며 임금으로부터 사액한 서원과 국가의 이념과 역사에서 현창해야 하는 가치를 가진 서원과 사우를 합하여 모두 47개만이 남게 되었다. 서원 훼철의 이유는 그것이 면세 특권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를 좀먹고 당쟁의 소굴로서 국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지만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위의 확립을 위하여 사학 전통의 권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다.

일본의 식민침탈,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의 현대사의 과정에서 서원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서원들 중에서 영주 소수서원(1543), 함양 남계서원(1552), 경주 옥산서원(1573), 안동 도산서원(1574), 장성 필암서원(1590), 달성 도동서원(1568/1605), 안동 병산서원(1613), 정읍 무성서원(1615), 논산 돈암서원(1634)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등재의 가장 큰 이유로서 현재까지도 오랜 건축물의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서원의 전통적 기능을 지금도 실천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유림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유학자들에 의하여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따진다면 더 많은 서원들이 등재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들은 건축 혹은 건축된 공간 물질 즉 유형문화재로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전통적인 의례와 사상과 가치 그리고 도덕체계가 실천되고 있는 바 무형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원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유교전통의 나라에서도 있지만 지금은 역사유적으로 남아 있다. [주: 중국에서는 唐代에 시작한 강서성의 白鹿洞書院을 비롯하여 宋代에 설립된 호남성의 岳麓書院, 하남성의 嵩陽書院과 應天書院을 4대 서원으로 꼽는다. 설립 역사가 오래고 신유학의 창시자인 북송 남송의 대유들이

강학을 하고 크게 증수하였다는 역사로 인하여 서원의 대표로 인식된다. 그러나 淸末에 이미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몇몇 건축물이 남아서 역사유적으로서 존재한다. 악록서원은 호남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문화고적 혹은 박물관으로 존재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유림이라는 자발적 사회단체가 지금도 있어서 사학으로서의 서원 뿐 만 아니라 관학이었던 성균관과 지방의 문묘까지 500년을 계속 지켜 나오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예를 보이고 있다. 유림은 정기적인 제향을 수행하며 다양한 유교관계 학회와 모임을 조직하며 도덕사회를 위한 시민운동과 문화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원은 건축문화재 보다 그 설립과정, 공간적 구조, 상징 역할과 기능의 여러 면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정신문화의 생산과 전수 기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 서원의 설립과정

서원은 개인이 사사roi 세울 수 없다. 지역의 유림(儒林)의 공론(公論)을 통해서 설립의 의미가 인정되고 그 설립의례는 유림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림의 공인을 받아야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한다. 서양의 콜레기움이 신과의 연결 속에서 신성함을 아우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유교의 서원은 신 대신에 학문(여기서는 유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제향한다. 서원은 제향하는 인물의 생전에는 설립하지 않는다. 도학의 수준이 높은 학자가 죽은 후 유림에서 그에 대한 공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공론이 모아지면 유림을 통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관대작을 지냈더라도 도학자로서 학자로서의 평가가 높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심지어 유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부 인사들이 서원을 세울 경우에는 전체 유림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이 중단되거나 건물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서원의 설립은 지방 정부에 고하고 도와 중앙 조정의 예조에 보고되었다.

서원은 성균관과 향교가 官學인데 비하여 私學이며 따라서 지역의 정신 뿐 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鄉權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사상적 논쟁의 거점이었다. 관학이 서울과 지방 관아가 있는 도시에 위치함에 비하여 서원은 한적한 계곡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으로써 권력과 세속적 번잡스러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출세주의와 공리주의를 떠나 자유롭고 순수한 정신으로 학문을 추구할 수 있었다.

### 서원의 공간구조의 특징

조선 서원의 구조적 규범이 된 서원은 紹修書院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함양의 정여창을 봉향하는 藍溪書院(1552, 1566년 사액)이다. 구조적으로 학문하는 연구와 교육의 기관인 동시에 특정 학자를 제향하는 성스러운 의례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두 요소를 핵심으로 가져야 한다. 대개 봉향하는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 제일 안 쪽에 위치한다. 그 앞에는 가로로 본당인 강단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기숙을 하는 동재 서재가 마주 보며 선다. 여기에 서고가 또한 있다.

서원의 각 건물과 장소에는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붙인다. 도산서원[주: 퇴계가 1560년에 완성한 도산서

당 뒤에 그의 사후 3년상을 지낸 1574년 유림이 그를 기려서 서원을 세웠고 이듬해 선조로부터 사액하였다. 을 예로 들어보자. 서원의 입구에서 天光雲影臺(주희의 觀書有感이란 시에서 따온 것이니 이성의 맑고 순수함을 찾는 것이다)가 있어서 맑은 낙동강 물에 푸른 하늘과 흰구름이 비치는 광경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정신과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서원 입구에는 冽井(성군관 앞에는 반달 모양의 못을 파고 이를 열수라고 하였다. 맑고 차가운 이성을 말한다)이라는 우물이 있으니 손을 씻거나 목을 축이면서 또 한번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서원의 바깥 공간은 퇴계가 생전에 지어서 쓰던 도산서당의 공간이다. 거기에는 역락서재(亦樂書齋: 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농운정사(隴雲精舍 언덕 위의 구름을 사랑한다), 완락재(玩樂齋 진리를 탐구하여 즐긴다), 암서헌(巖栖軒 바위 속에 은거하여 학문과 수양에 힘쓴다), 관란헌(觀瀾軒 흐르는 물을 보고 세월이 가기 전에 공부에 열중한다), 시습재(時習齋 논어의 學而時習不亦悅乎) 등의 편액이 장식한다. 서당 건물 앞에는 淨友塘(사각형 연못에 연꽃을 심고 감상하였으니 주염계의 애련기가 도학자의 정신을 보여 준다)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다. 선비에게 연꽃은 고고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이상을 일깨워주고 상징하는 것이다. 옆 언덕에는 절우사(節友社: 절개있는 벗들의 모임)라 이름짓고 梅蘭菊竹松을 심었으니 이는 모두 선비 혹은 군자의 道の 경지와 마음을 상징한다. 또한 바위 틈으로 나오는 물을 모은 몽천(蒙泉)이란 작은 우물을 만들었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어린 제자를 바르게 가르친다(蒙以養正)”에서 따온 것이다.

도산서원의 주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문은 진도문(進道門)이라 한다. 세속과 구별하여 도학의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니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설 때 갖추어야 하고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중앙의 강당(본당) 처마 밑에는 선조대왕이 내린 <陶山書院>이라는 큰 액자가 걸려있고 마루 안쪽 중앙에는 전교당(典敎堂)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유학의 가장 중심 역할 즉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전교당에는 한존재(閑存齋: 사특한 마음을 막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의 현판 외에도 원규(院規)와 주희암의 백록동규(白鹿洞規), <論語>와 정이천(程伊川)의 四勿箴과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의 편액이 걸려있다. 그 앞에 마주하고 선 두 긴 건물은 기숙사로서 박약재(博約齋) 일명 東齋: 박문약례 즉 학문을 넓히고 예도를 바닷이 하여 행실을 갖춘다)와 홍의재(弘毅齋) 일명 西齋: 도의 세계는 넓고 터득하기 멀어서 강한 의지와 의연한 기개를 가져야 한다)가 있다. 진도문 좌우로 광명실(光明室)이라는 동서 서고(書庫)가 있다. 전교당 뒤편에는 퇴계를 주향하고 그 제자 월천을 종향한 상덕사(尙德祠: 도덕을 숭상한다)라는 사당이 있다. 서원의 정원에는 매난국죽의 사군자와 소나무와 백일홍이 백일홍은 선비의 꽃인데 그 발음으로부터 배롱나무라는 명칭이 생겼다. 선비의 표리일치함을 상징하며 백날을 붉게 핀다는 뜻 역시 선비의 고고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서원의 공간은 여러 사물로 구상되어 독특한 문화경관을 이루며 이 경관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유교의 인문 세계를 섭렵하게 된다.

### 서원의 상징적 의미

서구의 수도원(칼리지의 원형으로서), 아랍, 인도, 유대교, 티베트 등 모두 신을 받드는 종교적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교육기관은 교회(사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서원은 유교문화의 공간이다. 유교는 신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이성 혹은 본성으로부터 도덕을 찾는 이른바 자기수양을 통한 도통의 학문체계이자 방법론이다. 즉 지식은 신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신에게 봉사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됨을 위한 철학의 장소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로 편제되는 관학에 비하여 서원은 자유로운 사학전통의 학문 연구기관이다. 관학이 공자와 그의 제자를 제향하는 데 비하여 서원은 중국의 성현이 아니라 유림들이 사표로 삼을 만 하다고 공통으로 뽑은 한국의 선현을 봉향한다. 따라서 서원 자체가 각각 특별한 가치와 이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기제이다. 서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강학이다. 향교가 四書五經의 유교 고전 텍스트를 학습하는 곳이라면 서원에서는 텍스트의 해석을 둘러싼 철학 세미나와 높은 수준의 특별 강연인 강학을 하는 곳이다. 서원의 멤버는 함께 기숙하고 강학과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도야하고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도덕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곧 지식의 심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서원은 문화적 공간이며 기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원의 문화실현 기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스러움: 서원은 특정 인물을 봉향한다. 사당은 그 서원 안에서 추구하는 일체의 것에 신성함 혹은 성스러움을 부여한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성스러움은 서원에서 체득한다.
2. 인간다움의 추구: 지식은 인간되기(being human)를 위한 것이다. 인간 (human being)의 본성 즉 인성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도덕적 능력을 이론적으로 심화하는 수단이다.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따라서 사람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의 능력이 없다.
3. 자유정신: 서원은 선비의 강학처이자 수련의 문화적 공간이다. 선비정신은 권력과 관이 재조하는 제도적 힘에 대한 비판정신을 생명으로 한다. 곧 서원이 사학으로서 관학과 구별되는 점은 선비정신과 그 자유정신에 있다.
4. 도의의 실현: 서원은 관직이 아니라 학자의 도덕적 우월성을 체득하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관리도 그러한 학자적 지식과 윤리와 도덕을 갖추어야 했다. 서원의 출입은 그 서원에 의하여 표출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인의 윤리적 의무를 스스로 택하는 일이다.

### 서원의 역할 혹은 기능

1. 서원은 과거시험용 학습기관이 아니라 유교의 학문적 연마의 도장이다. 흔히 서원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마치 서원이 과거시험의 준비기구인 양 오해를 한다. 그러나 서원은 고시학원이 아니다. 서원의 강론과 강학은 철학적 주제를 놓고 탐구와 논쟁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서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학문적 논쟁거리가 나오면 특별 강회를 열었고 그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 지역사회에 대한 지적 도덕적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원의 멤버는 지방의 유림을 구성하는 선비들로서 지역사회를 도덕적 공동체로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세력을 담당하였다. 서양에서 교회가 그 관할하는 교구의 사람들을 관리하였듯이 서원 멤버들은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일정한 윤리, 도덕, 가치, 그리고 의례의 체계 속에 존재하도록 이끌었다.
3. 서원은 지식인의 집결체로서 공론(公論)을 생산하는 문화재조의 場이었다. 서원이 주도하여 원회와 향

회를 열어 선비들의 공문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중요 상황에 대응하였다. 그들은 통문과 격문을 통하여 서원 간에 공문의 네트워크를 가동하였고 격문을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국난을 해결하는 힘을 만들었다. 비판적 조언을 통하여 지방장관을 도왔으며 상소를 통하여 국왕에게 국가 관리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였다.

4. 봉향된 인물에 대한 정기적인 제향(향사)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특별 강학에도 일정한 의식과 의례 절차가 따랐다. 의례는 강학 보다 더 중시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의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선비는 정신적 자세와 몸가짐을 훈련하는 수양의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5. 서원은 당시에는 도서관인 동시에 출판을 담당하는 대전통의 가장 중요한 전승 기제였다.

6. 서원은 봉향하는 인물로써 특징의 가치관과 도덕률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어떤 서원에 출입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였다. 왜냐하면 서원은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교로서가 아니라 특징의 가치관과 도덕률의 존중과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서원의 위치와 주위 풍물은 그 자체 어떤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문화경관을 이루며 사물과 건물의 배치로 인한 물리적 구도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것을 체득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8. 서원은 멤버로 하여금 공의와 공정의 철학적 기준과 바탕을 생산할 뿐 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력과 지도력을 배양하는 기관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서원이 높은 수준의 도학을 실천한 인물을 받들고 그의 가르침을 심화하는 선비들로 구성된다는 점인데 이는 유교 경전 지식의 탐구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도덕공동체의 훈련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인간적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인간다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원은 지식 전수의 교육기제를 넘어서 인간됨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교육의 기제라는 점이다.

#### 4. 맺음말 : 전통적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e)의 문화적 의의가 왜 재론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서원과 선비정신이 오늘날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주의 그리고 실용성 위주의 가치관, 욕망의 해방을 자아실현의 증거로 삼는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유교적 전인교육의 이념과 그 교육제도는 역사의 잔존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성리학에 집중된 한국 유학 전통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즉 이성(理)을 감정(氣)의 우위에 두었던 전통 성리학은 오래 전부터 도전을 받아왔으며 오늘날은 합리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철학 보다 감정과 욕망과 상상을 표현하는 예술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기술과 물질과 권력의 시대에 실사구시의 구호 아래 지식의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는 21세기에 인간다움과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로서의 학문과 교육의 장은 제대로 인정받거나 지켜지지 않는다. 사회는 더욱 복합적인 요소로 채워지고 그 범주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확대되어서 특징의 도덕률이 더 이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식과 지식산업의 주체인 인간이 지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인간성 즉 휴머니티를 상실한 상품으로서의 지식이 대량 생산되는 현대에서 교육기관은 인간적인 관계와 가치의 생산기제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공자는 문질彬彬(文質彬彬)이란 말로써 설파하였다. 본질(本質)과 본질의 표현 기술로서의 문(文)의 조화로운 균형상태를 말함이다. 즉 本質이 文을 능가하면 거친 상태(野)가 되고 文이 本質을 능가하면 번잡스러워(史) 진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고 하였다. 문과 질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곧 중화(中和)이다. 그러나 지금은 본질보다 외적인 무늬를, 그리고 이성보다 감정을 더 중시한다. 지금은 이성과 논리의 틀을 벗어난 감정과 감각의 세계를 추구하며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일상적으로 넘나들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인간관계가 소외되는 교육의 장이 성한다.

우리가 고대 혹은 중세의 소위 전통적인 교육제도를 지금와서 다시 중시하는 까닭은 그것이 전인교육과 인간됨의 도를 추구하는 행위와 지식의 생산과 전수 과정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장소이자 과정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함께 추구하고 나누고 전하는 모든 과정과 형식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윤리와 도리를 만들었으며 그 기제와 과정 전체를 고귀한 가치로 삼았던 까닭이다. 곧 교육은 삶 자체였던 것이다. 서원 그리고 콜레기움의 아이디어들은 여기에 있다. 옥스퍼드 대학과 한국의 서원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교육 기관은 화석표본과 같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식과 인간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오래된 미래’ 라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 The Value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s a Cultural Heritage : On Collegium and Confucian Academy

Kim, Kwang Ok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 Traditional Education as a Cultural Mechanism for 'Being a Human'

The reason for the renewed attention toward educational institutes from ancient times can be construed as an intellectual pilgrimage. This pilgrimage conveys a reaction to our disappointment toward today's so-called modern educational institutes in which something is clearly missing. When we are disappointed about the present and evaluate it in a negative way, we often develop a romantic view that the past is pure, beautiful and of great value, and eventually fall into a nostalgic longing for the past. However, the reason we contemplate our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is that it is not merely a thing of the past. It encompasses the great period of cultural heritage in human civilization that deserves to be studied and acclaimed today as a subject of significance. This cultural heritage includes not only material advances, but also significant intellectual and metaphysical developments. To know something is not limited to obtaining knowledge and skill. The definition of knowing something includes the value, meaning and emotional asset, as well as the ability to find them. One's training on how to gain knowledge includes the process of being a human, and also of learning the Way of Human Beings. Modern education is gradually losing the value placed on pursuing, sharing and passing on the sanctity of knowing about and elevating humanity.

Here, however, we are led to ask which era the word tradition refers to when we speak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Each region on earth holds its own historical era when conveying its own "tradition." Just as we use the term "Ancient Greece" when we talk about Greek tradition, the word tradition in Korea refers vaguely to the key features of the five-century Joseon Dynasty. The time period before modernization of society is also often described as the traditional era, but,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context, its standards are often skewed, obscure and inaccurate. Here, we will use the word to refer to the institutional mechanism of the past in

comparison to the modern public education system that came to existence during the 20th century.

Cultural mechanism that produces and passes on knowledge exists everywhere on earth. Storytelling was actually the original form of instruction at the time letters and paper were not yet invented. During those times, stories conveyed knowledge and truth about the world to the listeners. Bards such as Germany's Minnesinger, Islam's Hoja, Central Asia's Akon and Menes, a verbal literary expert, were all sages who told stories. The invention of letters and paper allowed more systematic and continuous expansion of knowledge to more distant regions. Paper and letters eliminated the need for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to sit facing each other for knowledge to be passed 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s, the expansion of Islam would have been inhibited had the Tang armies led by Gao Xianzhi not been defeated in the Battle of Talas (751) throughout Central Asia. The Tang prisoners of war transferred paper manufacturing skills, which led to the quick and widespread expansion of Islam.

However, the ever crucial historical development lies in the systematic mechanism for education being established. In order to systematize, research and produce knowledge, experts have to gather at a certain place, invest ample amounts of time and raise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 This type of project needs to be specialized so that knowledge can overcome the restraint of time and be transferred from a generation to the next. Such a systematized education mechanism launched with religious purposes.

The most crucial "value as cultural heritage" that can be depicted from deep contemplation about our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could be described in the term "old future."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which we differentiate from that of the present, could be characterized as an amalgamation of human fellowship, the holiness of knowledge and the act of searching for knowledge. People grew as they learned the ways of humanity within the walls of this institution. We can say that, therefore, the value as a process and means of being a human held more significance than the mere production and attainment of knowledge.

## **2. The West's Collegium, or College**

Italy's University of Bologna (1088), England's University of Oxford (1096), the University of Paris (1200)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209) were some of the institutes for higher education that have been in existence since the Medieval times. In reference to the educational community, which is composed of teachers and disciples living together on campus, the word

college, used in the western world, derives from the Latin term collegium which in fact means church. (Note: Collegium means a gathering or a community. It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ith a common cause who come together to form a community.) The Collegium started off as a community of priests who serve God, and then served as a system where they could continuously research and educate others on divine truths. One vital aspect here is that the Collegium was a systematic mechanism that allowed teachers and students to live together in a dormitory while practicing the aesthetic life. In other words, the word “college” derived from the church, or monastery, but it developed into a unit of learning where people lived together. It is translated as Hagryo(學寮).

This is why colleges of universities such as Oxford and Cambridge that maintained the system of collegium since the Medieval era still contain a church or chapel within their campuses. In other words, church is the origin, or the foundation of college. (Note: Europe in the 19th century accepted Humboldt’s revolutionary idea of college as a public education institute. In England, however, the Universities of Oxford and Cambridge were allowed to maintain their tradition by the special decree of Queen Victoria.) College is composed mainly of four elements: dormitory, church, library and dining hall. Here, a gymnasium for physical training is added. The College isolated itself from the outside world by erecting high walls or designing the facility to resemble a castle. This was done in order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secular world. This differentiation, in other words, was a means to divide the sacred world in which scholarly work is pursued from the profane/mundane world.

There is a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collegium, or college, which places particular importance on the dormitory and dining infrastructures. This particular infrastructure signifies the cohesion professors and students share as one unit. This embodies the systematic process in which students are trained to develop personal maturity, ethics, morals and social skills necessary for human bonding in the wider world. In a school with such living arrangements, great care is often invested in ensuring that the students not only absorb knowledge, but also develop their own humanity. They learn how to communicate and behave properly, as well as how to exhibit courtesy, good character, manners and etiquette. These are all very important subjects.

Knowledge was coupled with sanctity, and it was regarded as something holy and sacred. Learning at the time meant studying the divine teachings of God, and it was, therefore, holy. As a result, learning became a special privilege enjoyed by priests. Knowledge became something holy when it was connected to God.

The history which led to the birth of college shows how collegium, a place of researching and transferring sacred knowledge, became today's public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t first, nobles who had secular power enjoyed the benefit of that sacred realm. The fact that colleges, or academies as the original form of collegium, were erected in large numbers during the Renaissance (14C-16C) shows that it was an age of harmony or integration between which was sacred and which was secular. [Note: Collegium Maius (where Copernicus studied) in Krakow, Poland, which later became the University of Jagiello?ski, was built in 1364, and Collegium Maius, which later became the University of Erfurt (where Martin Luther studied) was built in 1392.] Even though they were still controlled by the absolute power of the church,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ium was significant in that the intellectual industry witnessed the transfer of the privilege of gaining knowledge from the religious realm to the secular realm.

However, college did not become a place controlled by secular power where noble elites monopolized the privilege of learning. College not only moved to the position where relatively more freedom was allowed from the absolute sanctity of theology, but was also established as specialized institution for learning detached from secular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Since the time of Renaissance, the three realms, or powers, namely religion (God), secularism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academia, formed a structure where knowledge of the West was produced and perpetuated. "Scuola di Athene (1510-1511)," a mural painting that can be found in the Vatican, was painted by Raffaello(1483-1520) who was commissioned by the Pope Julius II. The Pope wanted to decorate his office with the four topics of philosophy, theology, poetic arts and jurisprudence, and Scuola di Athene represented philosophy. Philosophy is the study of humanity, in other words, of rationality as a logical means. And Raffaello drew on the idea at the time when secular humanism was setting itself as the dominant world view. Through his drawing which depicts philosophers, theologians, jurists and artists from Ancient Greece to his own time were gathered at one single academy, we can see that he imagined a collegium that was based on humanism.

The rise of humanism and commerce during the Renaissance not only gave birth to different classes for citizens, but it also guided the movement in which people tried to popularize knowledge and attempted to approach the intellectual industry.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odern nations, especially during 18th century, led to the creation of concepts such as people (of a nation) and citizenship, and it brought about a revolutionary change in the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the intellectual industry, which aimed toward creating people/citizen. Collegium went on to grow as today's modern college. The world then

witnessed the rise of national, institutional and public colleges, which were funded by kings and churches for public education.

This, then, led to a new type of confli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Here we can find the conflict between regulation-oriented public education, which aims to create citizens and people, and autonomy-oriented private education. In England, arch-bishops and kings, or nobles, joined forces to establish boarding schools and universitie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even though kings funded the creation of these institutes, they were private institutes rather than public. The word *Gongribhaggyo*, which is translated into English as public school, means a place where a number of people leave their families to gather at public institutions to live and study together, in comparison to one individual studying with a private tutor in his own house. National colleges established by the state were witnessed much later after the emergence of the modern nation.

The 20th century then witnessed even more pronounced separation of knowledge from the realm of theology. The emergence of scientific techniques and of secular studies, such as economics and politics, that pursued secular knowledge, deepened the divide between chu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ead of sacred knowledge that was taught to its pursuers within specific texts and boundaries, public education institutes mass-produced knowledge that contained the possibility for vile crimes, and therefore, were in need of constant and close oversight from human morality and rationality. Then, moral philosophy was emphasized in reaction to the secularization of knowledge and education. In summary, higher education aims for well-rounded education, and for noblesse oblige where people are equipped with a noble and ethical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is world.

Nevertheless, more and more people who received higher education since the emergence of 20th century monopolized both knowledge and sanctity, equipped themselves with diplomas, certificates and licenses and enjoyed their privileges within the secular realm. People's so-called educational background became their assets of privilege, and their hereditary transfer of such assets led to the formation of cartels. This is the creation of a set of citizen classes divided by the level of education.

“Educational Elitism” meant that only a certain group of people monopolized, not the privilege that came as the result of education, but the privilege of the opportunity to be educated. This began the changeover led by Humboldt of the 19th century of college's function as that of a public education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Humboldt established in 1810 as a public institute

of higher learning, equipped with a modern system, began an education system meant for the public, through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rough pursuing education of the whole person, he established a system that contrasted its contemporary universities, which were aristocratic and permeated a sense of privilege. Cai Yuanpei(蔡元培), a libertarian who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Peking University in 1916, argued for the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and openness of its contents, a position which he elaborated with the word qianrongbingbao(兼容並包), meaning everything and everyone is accommodated.

Today's mechanism of higher education is becoming a hub for the industry which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knowledge and technology as a product, rather than providing knowledge about morality and ethics. Colleges, of course, consider themselves as critical partners of the society. In other words, they pretend that they play the role of leading society through professional knowledge and ideals for the future, and through criticism. Today, however, we see colleges taking the place of past religions, becoming overgrown and creating a tense or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cular powers, especially officialdom.

### 3.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Korea: Confucian Academy

Korea'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has existed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Korea in different forms, from Goguryeo(BC 37-668)'s Taehak(372), Shilla(BC 57-935)'s Gukhak(747), and Goryeo(918-1392)'s Gukjagam(國子監 992). However, Korea's educational system was developed more systematic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1392-1910), together with the firm settlement of Confucianism in the kingdom. The Joseon(朝鮮) Dynasty set Confucianism as the foundation for its system of ideology. Shortly after its foundation, they established Sungkyunkwan (Gukhak was renamed as Sungkyunkwan(成均館) by the King Choongyeol of Goryeo, and it was founded in Hanyang, Joseon's capital city, with the foundation of Joseon) in Seoul as the highest institute of education, and established Moonmyo(文廟), or Confucian shrines, and the mid-level institute of education called hyanggyo(鄉校), or country school, in large and small villages. Elementary-level education was provided within the family, or by a teacher, and classical scholars of Confucianism and Confucian literati scholars led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deas. Ancestral rites for Confucius, his disciples, and Joseon's sages were held in Sungkyunkwan and shrines and it was the places for study and research of Confucian scholars. When students took and passed the Examination of Country Magistrates, they became Sengwon and Jinsa, the point at which they were invited to study in Sungkyunkwan, and enjoyed the benefit of being able to take the Daegwa(大科) examination. The king Jungjong heavily

encouraged the growth of Confucian literati scholars, which led them to become a more significant feature in society and throughout the political arena.

The governor of Punggi during the era of Jungjong, Ju, Se-bung followed the example of China's Bailutong(白鹿洞) Confucian Academy [Note: First started by the Ibal brothers in the early 9th century, it was repaired and expanded during Song Dynasty in 1179 by Zhu Xi, and was later developed as one of China's four great Confucian academies] in his creation of Baekundong Seowon (白雲洞書院 1544) where rites to venerate a great teacher or other sages were held [Note: It was later renamed in 1550 as Sosu Seowon(紹修書院) with the state's authorization]. We see that this is the first of Seowon in Korea as a full-fledged institute dedicated toward higher education. Since then, hundreds of Seowon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mong over one thousand Seowons and shrines dispersed around the nation, most of them were demolished by the order (1864-1871) of Regent Heungseon during the King Gojong era, and only 47 academies and shrines, either authorized by a king or deemed to have value according to the ideals and the history of the nation, were spared. The reason for demolishing Seowons on the surface was that they misused their tax exemption privilege and aided in wasting the nation's energy by serving as dens for political cartels. But it was, in truth, a political move to reduce the authority of private education aimed at establishing the state's authority in the midst of the nation's modernization.

Then many more Seawons disappeared during Korea's modern history, from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troduction of the modern system of education and the destruction by the Korean War. However, some of the Seowons still standing are waiting to be registered as UNESCO's World Heritage site. These include Sosu Seowon (1543) in Youngju, Namgye Seowon (1552) in Hamyang, Oksan Seowon (1573) in Gyeongju, Dosan Seowon (1574) in Andong, Pilam Seowon (1590) in Jangsung, Dodong Seowon (1568/1605) in Dalsung, Byeongsan Seowon (1613) in Andong, Museong Seowon (1615) in Jeongeub and the Donam Seowon (1634) in Nonsan. Few of the reasons for their candidacy is that they are well-maintained ancient structures that still serve the traditional function as a Confucian academy, and that they are managed not by the state, but by a group of Confucian scholars called Yurim. Of course, if these three were the only criteria, there would be more academies that could be candidates for UNESCO's World Heritage site.

However, Korea's Seowon is more than just buildings or tangible cultural assets. They serve as a host for still practiced non-tangible cultural assets, including traditional rites, ideals, values and moral systems. The Confucian academy system could also be foun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that fell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but they only remain as an historical site. [Note: In China, there are Confucian academies considered to be China's four great Confucian academies, which are Baekrokdong Academy in Gangseo established during the Tang era, Yuelu(岳麓) Academy in Hunan, Sungyang(嵩陽) Academy and Yingtian(應天) Academy, the three of which were established during the Song era. They are considered as such since they have long histories and because Confucianism was studied and expanded by the great Confucian sages in North Song and South Song. However, they were destroyed during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few of their structures remain to serve as historical sites. Yuelu Xuyuan today is an affiliate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Hunan, and it exists as a cultural site or as a museum.] Compared to this, the voluntary civil organization called Yurim(儒林) actually exists in Korea. They have been protecting for the past 500 years Confucian academies that were institutes of private education, and also Sungkyunkwan and regional shrines that were par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re is no similar example that could be found in today's world. Yurim still performs religious rites on a regular basis, organizes Confucian-related conferences and gatherings, leads a civil movement to create a moral society and is creating a network of cultural exchange.

Therefore, Seowon should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ir process of establishment, unique structure and symbolical role and function.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echanism for producing and transferring the moral culture surrounding the realization of true humanity.

### **Establishment Process of Seowon**

Seowon canno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s. Its establishment is only authorized by the commonly shared opinion of that region's Yurim, and the founding rite for the academy in question has to be led by the Yurim. In other words, Seowon is deemed official only when it's recognized by the Yurim. In comparison to the West's collegium which gave out divine aura that emitted from its connection with God, the academy of Confucianism which placed more importance on human's rationality venerated not the people of God, but the people of commendable scholastic achievement. No Seowon could be established for sages still alive. A scholar with a great level of study became a topic for discussion among Yurim, and if the consensus is made that the deceased deserves to be venerated, they went on to establish an academy in his honor. Even if a scholar held a high-ranking position in the government, it was imperative that others had to hold him in high regard as a scholar. In some cases where a few attempted to establish an academy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Yurim, the entire Yurim would oppose it, forcing the construction of academy to halt or destroy it altogether. Establishment of

any Seowon was reported to the regional government, which then reported to the king.

Confucian academy is an institute of private education, whereas Sungkyunkwan and country school are institutes of public education. Therefore, it was not only a symbol of that region's academic spirit, but also of that region's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nation, and it was also a base for ideological debates. Whereas the institutes of public education located in Seoul and other regions where there were regional governments' offices, Seowon could be found usually in remote and secluded valleys. This was done in attempt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annoyance which power and the secular world brought, and there, they could pursue their studies free from temptation for power.

### **Distinct Features of Spaces in Seowon**

Seowon that served as the model for other academies in Joseon was the Gamgye Seowon (state-authorized in 1552 and 1566) which was the second academy to be established in Joseon after the Sosu Seowon. Namgye academ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venerate the Yeochang Jeong of Hamyang. From structural perspective, it is composed as both an institute of scholastic research and education and a world where sacred rites are held in veneration for a specific scholar. These two features are absolutely essential to an academy. Normally, the shrine containing the ancestral tablet is located in the inner-most space. Then the main lecture house is built parallel to the shrine, but on both sides of this, they would build east dormitory building and west dormitory building. A library is included in here as well.

Each building and space in Seowon has a special meaning which its name reflects. Let us look at the Dosan Seowon [Note: Originally there was Dosan school established by Toegye in 1560. Then the Yurim which moaned his passing away for three years established Seowon in veneration for him, and it was authorized by the King Sunjo the year after.] as an example. Cheongwang Woonyeoungdae(天光雲影臺: As it was borrowed from Zhu Xi's poet, titled Gwanseoyugam(觀書有感), it means the searching the purity of one's mind]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academy lets people enjoy the view of the blue sky with white clouds reflected on the pristine water of Nakdong river, purifying their heart and mind. At the entrance of Seowon, there is a well, called Yejeong(冽井: In front of Sungkyunkwan, they dug a half-moon-shaped pond, and called it Yeolsu). It means pure and cold rationality, where people could wash their hands or quench their thirst, all part of their efforts to purify their minds and bodies. Outside of the academy is the space of Dosan school which Toegye build and used while he was alive. Inside of the academy is decorated with signboards such as Yeokrakseojae(亦樂書齋: deriving

from the Analects'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Nongwoonjeongsa(隴雲精舍: To love the clouds above the hill), Wanrakjae(玩樂齋: To study and enjoy the truth), Amseoheon(巖栖軒: To hide within a rock and fully invest oneself in training and study), Gwanranheon(觀瀾軒: To devote oneself in study before letting the time flow by while watching the flowing river), and Shiseubjae(時習齋: deriving from the Analects' 學而時習不亦悅乎). There is a small pond in front of the main building, named Jeongwoodang(淨友塘: They planted and enjoyed the view of lotus flowers which shows the Juyeomgye's love of lotus flowers reflects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s). To Confucian scholars, ponds symbolize and help awaken their pure and lofty spirits. They built at the adjacent hill Jeolwoosa(節友社: A gathering of friends with fidelity) and planted five kinds of plants, apricot flowers, orchid flowers, chrysanthemum, bamboo trees, and pine trees. All these symbolize a Confucian scholar's, or a virtuous man's height and the heart of the Way. They also created a small well called Mongcheon(蒙泉) where a stream of water flowed from a crack in a rock and gathered at the bottom. It derives from the line in Iching, "To teach young pupils in the right way(蒙以養正)."

The main gate that leads to the inside of Dosan Seowon is called Jindomun(進道門) or main gate. It means that whoever goes through the gate is entering the sacred world of Confucius study that is separated from the secular world, and that such is the heart that should be within those entering the gate. Found below the eave of the main building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academy is a large framed calligraphy that depicts the letters 'Dosan Seowon(陶山書院),' and another signboard which says 'Jeongyodang(典教堂)' can be found at the center of the outer floor. It means that here is the place where the central role of Confucius study, which is to teach the scriptures, is performed. In Jeongyodang, there are other tablets that say Hanjonjae(閑存齋: To repel evil mind and harbor pure heart.), Wongyu(院規) and Juhoeam's Baekrokdongyu(白鹿洞規), the Analects and Jeongecheon(程伊川)'s Samuljam(四勿箴), and Jinmugyeong(陳茂卿)'s Sukheungyamejam(夙興夜寐箴). The long buildings in the front facing each other are dormitories. One is called Bakyakjae(博約齋 or east dormitory building: Bakmunyakrye, or expanding one's study and having right kind of attitude by practicing the Way), and the other Honguijae(弘毅齋 or west dormitory building: The world of the Way is vast and hard to learn, which demands from its students strong will and determination). Left and right side of main gate are west and east libraries called Gwangmyeongshil(光明室). Toegye is the primary figure enshrined in the shrine behind Jeonggyodang, and there is a shrine called Sangduksa(尚德祠: To worship morality)where Toegye's student, Wolcheon, is enshrined. Apricot flowers, orchid flowers, chrysanthemum, and bamboo trees are planted in the academy's garden, and there are also pine trees and crape-myrtle flowers. Crape-myrtle flowers are symbolic flowers for Confucian scholars, and Berong tree became their nickname due to pronunciation. They symbolize Confucian scholars' yearning to

practice the teachings strictly. Staying red for hundred days, the flowers also symbolize Confucian scholars' lofty ideals. As such, we see that the structure of Seowon has unique culture, and that Confucian scholars studied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within such views.

### **Symbolic Significance of Seowon**

In addition to the monasteries of the West (the original collegiate institution), Arabs, Indians, Jews, and Tibetans all worked to construct religious education institutes meant to serve and attend God.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derives from church, or temple. In comparison, Korea's Seowon is an institution for Confucian culture. Confucianism is a system of education where the participants learn the Way, not through God's revelation, but through seeking morality from within their own rationality or essential nature.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knowledge is not to interpret God's Words or to offer their services, but to learn and develop the philosophy of being a human dedicated toward humans and guided by humans.

As I mentioned before, in comparison to public education composed of Seoul's Sungkyunkwan and regional country schools, Seowon was a institute of private education where scholars researched and studied more freely. The institutes of public education enshrined Confucius and his students, but Seowon enshrined not the Chinese sages but the sages of Korea who were deemed by consensus of Yurim to be worthy of veneration. Therefore, Seowon is a cultural mechanism which reproduces unique value and ideals continuously. Another important function of Seowon is study. If country school is a place where they learned the classical Confucian scriptures of the Nine Chinese Classics, Seowon is a place of study where scholars debate about interpretation of specific texts, and listen to philosophical seminars and high-level of lectures. The members of a Confucian schools lived and study together. In this process, they developed a moral relationship in which they cultivated good characters and shared ideals and system of values. In other words, Seowon existed not only to deepen knowledge, but to cultivate human character. Therefore, Korea's Seowon should be understood as cultural space and mechanism. Seowon's mechanism for realizing culture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Holiness: Seowons enshrine certain figures. The ancestral shrine imbues holiness or sacredness to everything that is pursued within that academy. The holiness which comes from defeating the temptation of secular world can be experienced in the academy.

2. Pursuit of humanity: The purpose of knowledge is to be human. Knowledge allows us to find and practice human's essential nature, or character, and is a method of deepening moral abilities in theoretical dimension. Without knowledge, there would be no standard with which

we can tell apart good and evil, and we would not be able to define the true nature of human.

3. Spirit of freedom: Seowon is a cultural space where Confucian scholars study and train themselves.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 is founded on the spirit of criticism towards systematized authority created by government and political powers. In other word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lies within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s and the spirit of freedom.

4. Realization of the Way: Seowon is not the government's office, but rather a place where scholars trained to heighten their moral superiority. In Joseon era, government officials, too, had to have such scholastic knowledge, ethics, and morality. To enter Seowon is to choose for himself the ethical responsibility bestowed upon intellectual people by the world as represented in that academy.

### **Role or Function of Seowon**

1. Seowon is not a place where students study for the state examination, but it is a place of scholastic training for Confucianism. It is usually described that students in Seowon went on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which is then interpreted that Seowons were places of preparing for the state examination. However, Seowon is not such a place. It is a place where scholars studied and debated specific philosophical topics. Special seminars were held in nationally renowned Seowons if an important matter is put up to debate on national level. The results from these seminars then became the point of national attention.

2. Seowons served a role of focal point for intellectual and moral unity. Members of Seowon were Confucian scholars who composed that region's Yurim, and they were the core influence in creation of moral community. As churches managed their own people in the West, members of Seowon guided the local people to exist within the realm of certain ethics, morality, value, and system of rites.

3. Seowon, as a gathering of intellectual people, was a place of cultural manufacturing where public opinions were generated. Seowon held meetings within themselves or within their region to form scholars' public opinion, and through this, they reacted to the society's and nation's important situation. They created a network of public opinions between academies through public announcements and manifestos, and generated a power to overcome national difficulties together with ordinary people. They helped their regional governors through critical advices, and made demands to the king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nation through letters.

4. Certain rituals and ritual procedures were observed not only during the rites performed to venerate a enshrined figure, but also during everyday life and special seminars. These rites were emphasized more than seminars, and it was because the scholars participating in these rites were following the process of training their mind and body, and their intellectual attitude.

5. Seowon at the time served as both library and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for transferring the great tradition.

6. Seowon's specific values can be symbolized by the figure enshrined in the academy. Therefore, a scholar had to choose carefully which academy he should enter. It was because Seowon was not a mere school where a student obtains knowledge, but it symbolized a specific system of values and practicing of moral laws and respect.

7. As it was mentioned above, the location and surrounding of a Seowon work together to create a cultural view which expresses the significance and symbols of that academy, and the composition of objects and building locations serves to provide a mechanism through which people experience something spiritual.

8. Seowon not only produced the philosophical standards and foundation for public justice and public righteousness, but it was also an institute which incubated leadership and ability to move forward.

The most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Seowon venerates a figure who practice high level of Confucian study, and that it is composed of Confucian scholars who deepens his teaching. This signifies that they did not stop at just pursuing knowledge through Confucian scriptures, but cultivated individual's character and trained as a moral community. In other words, human interaction was formed first before the education on what is to be a human was given. In yet another words, Seowon moves beyond a educational mechanism that transfers knowledge to become a mechanism of education through practice with humanity at its core.

#### **4. Conclusion : Why is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being discussed again?**

However, such Seowon and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 are being fundamentally destroyed today. Before the giant wave of modernization where scientific technologies, materialism, system of values revolving around pragmatism, and fulfillment of desire, the spirit of Confucius education of the whole person and its educational system are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relic of the past. These are connected directly to the fate of Confucius tradition of Korea which is focused on Neo-Confucianism.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Neo-Confucianism that put more emphasis on rationalism(理) over emotion(氣) has always been a subject to new challenges, and now has come the age where the form of art that expresses emotion, desire, and imagination rather than philosophy of pursuing rationalism and reason.

As secularization of knowledge under the slogan of empirical tradition is gaining more and more speed in today's age of technology, material and power, education and academics as a path of finding human's fundamental character and what is to be human are either underestimated or neglected altogether. Today's society is being filled with more and more complex elements, and its boundary is expanding well beyond the traditional limit, disabling specific moral laws from exercising control over it. More than anything, human beings, who are the main beneficiary of intellectual industry, are being isolated from knowledge. In today's reality where mass-produced is the kind of knowledge as a product that is devoid of humanity, educational institutes are gradually losing their human relations and their function as a mechanism or producing values.

Confucius taught the most ideal state of a civilization as *Munzilbinbin*(文質彬彬). This signifies the state of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essence(本質) and the literary art(文) as a technique of expressing that essence. In other words, the civilization becomes coarse(野) if the essence outweighs literary art, and it will become sly if literary art outweighs the essence(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 The state of balance between literary art and essence is called harmonious neutrality(中和). Today, however, outer appearance is emphasized above essence, and emotion above rationality. What is thriving in today is the kind of the place of education which pursues the world of emotion and senses that has broken loose from the grip of rationality and logic, and which places one foot on reality and one foot on the virtual world, isolating the meetings between humans and neglecting human relationship.

Today, we are placing special importance again on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ancient or medieval times, because it provided a venue and process where the act of pursuing the Way of humanity was combined to form one system with the process of creating and perpetuating knowledge. In other words, it is because they produced humans not through knowledge itself but through all the processes and steps of pursuing, sharing, and transferring, produced ethics and morals that need to be practice in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regarded that entire mechanism and process as a thing of great value. Meaning, education was life itself. Here lies the ideal of Seowon and collegium. As we have learned through examining Korea's Seowon and the University of Oxford,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s are not merely cultural assets that exist as fossil specimen, but they are still alive and are "living" cultural assets that continue to expand and reproduce knowledge and humanistic values. The term "old future" applies here as well.



# 주제발표1

## Theme 1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 Monastic Schools에서 대학교 Universities까지

Thomas Coomans 벨기에 루벤대학교 교수

From Monastic Schools to Universities :  
Educational Heritage in Medieval Europe

Thomas Coomans

Professor,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From Monastic Schools to Universities : Educational Heritage in Medieval Europe

Thomas Coomans

Professor,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The Middle Ages in Europe form a long and complex period of about ten centuries from the decline of the Roman Empire (5th century) to the Renaissance (15th century). The transmission of the antique Classical Greek and Roman cultures, through the medieval Christian culture, to the Humanism and the Renaissance is one of the most fascinating chapters of the world's intellectual history. Three educational institutions played a major role in this transmission: the monastic schools, the cathedral schools and, from the 13th century, the universities. Europe's medieval educational heritage covers three categories: first, the manuscripts and books (movable heritage), second, the places (immovable heritage), and third, knowledge (intangible heritage). The latter includes arts, sciences, music and spirituality, as well as the life of many famous medieval scholars, but is intimately related with the books that were used as medium for transmission. The lecture only focuses on the two first categories.

When the Roman Empire declined, the Christian bishops established schools near their cathedrals in order to promote religious learning and provide the Church with educated clergy. Parallel to the cathedral schools, the abbey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reservation and continuation of antique culture and science. Most abbeys possessed a library where manuscripts were conserved and a scriptorium where the monks copied manuscripts. Abbeys also had schools for the education of young boys who were offered to monastic life by their parents. Emperor Charlemagne (around 800) promoted the education of the clergy as a class of intellectuals that would help governing efficiently his empire. During the 11th and 12th centuries, monastic and cathedral schools became centres of advanced education in theology, arts, law and sciences. In the context of growing urban society, some cathedral schools became the first universities. These self-regulating communities of teachers and scholars were recognized by the pope. There were 14 universities by the end of the 13th century in Europe and 62 universities in 1500. Parallel to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e old monastic schools declined. New religious orders (Dominicans, Franciscans) had specialized monasteries or study houses related to the universities. Universities developed a new method of critical thinking

called °∞scholasticism°± that was based on dialectic reasoning and aimed to defend the dogmas of Christian faith. From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thanks to printed books, knowledge and new ideas diffused rapidly, bringing an end to the medieval education system and obliging high education to adapt to new world visions.

The most tangible legacy of medieval scholarship and intellectual culture are the millions of Western medieval manuscripts conserved through the world. All these relics have been hand produced, written, copied, illustrated and bound by generations of monks, clerics and other scholars with the aim to keep and transmit knowledge. Manuscripts and books being by definition movable relics, they travelled, were sold etc. before ending in public collections, some of which being world famous. Manuscripts contain whole the medieval intellectual knowledge, from arts and sciences to philosophical and sacred texts, including many copies of antique authors as well as remarkable medieval creations. The majority of Western manuscripts is in Latin but many are in other ancient and modern languages to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proportion of conserved and lost medieval manuscripts. Experts can trace the origin of texts and reconstruct generations of copies and cross-influences. Today, medieval manuscript collections form a network with specialized catalogues, digital databases of images, and the best conditions for material conservation.

The immovable heritage consists essentially in places rather than buildings, because most medieval educational buildings have been transformed or replaced during the following centuries. Book collections increased drastically when printed books came on the marked and required new buildings. Furthermore, the heritage of medieval abbeys has been deeply damaged during the religious wars of the 16th century and the secularisation at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Therefore, well preserved medieval monastic and cathedral library buildings are very exceptional. Medieval university buildings survive in several universities such as Oxford and Cambridge (England), Coimbra (Portugal), Salamanca (Spain) etc. Most university libraries, however, were rebuilt in the 16th century and later, because of the growing collections.

We could conclude about the immovable heritage of mediev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he place is more important than specific buildings. University and cathedral quarters in cities as well as the sites of abbeys, even ruined, are places of intellectual presence for centuries. It is fascinating to remember that specific places, even deeply transformed today, inspired ideas and debates to famous scholars as well as generations of students. Another conclusion is that Western medieval educational heritage is nearly absent of the World Heritage list.

#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에서 대학교Universities까지

토마스 쿠만스 벨기에 루벤대학교 교수

중세 유럽은 로마 제국의 쇠퇴기(5세기)부터 르네상스(15세기)까지의 약 10세기 동안의 길고도 복잡 다난한 시기를 일컫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가 중세 기독교 문화를 지나, 또다시 인본주의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전세계 역사상 지성이 가장 융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세 종류의 교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 대성당 학교(cathedral schools)와 13세기부터 유럽 각국에서 시작된 대학이 그 것이다. 유럽의 중세 교육 유산은 세가지 범주를 포괄한다: 첫째, 경전과 서책(이동성 유산), 둘째, 장소(비 이동성 유산), 셋째 지식(무형 유산)이다. 후자는 예술, 과학, 음악, 영성뿐만 아니라 저명한 중세 학자들의 삶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서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책이 바로 지식 전수의 매개이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앞의 두 가지 서책과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로마제국이 쇠퇴하면서, 기독교 주교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교육을 받은 성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성당 근처에 학교를 설립했다. 대성당 학교 (cathedral schools)와 더불어 대수도원(abbey)은 고대 문화와 과학을 보전 지속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대부분의 대수도원은 도서관을 짓고, 여기에 문헌(manuscript)을 보관하였다. 또한 필사실 (scriptorium)을 따로 두어, 여기서 수도승들이 경전을 필사했다. 대수도원은 어린 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수도원에 입소하였다. 샤를메뉴 대제 (Emperor Charlemagne - 약 800년경)는 자신의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도움이 될 지식인 계급으로서 성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11세기 및 12세기 동안,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는 신학, 예술, 법학, 과학을 가르치는 선진 교육의 중심점이 되었다. 도시 사회의 성장 속에서, 몇몇 대성당 학교는 최초의 대학으로 변모하였다. 교사와 학자들간의 이러한 자기 규제적 공동체는 교황의 인정을 받았다. 유럽의 경우 13세기 말에 14곳이었던 대학이 1500년에는 62개로 증가했다.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오래된 수도원 학교는 쇠퇴했다. 새로운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수도원 (monastery) 즉 대학과 관련된 학습장 (study house)을 전문적으로 운영했다. 대학들은 소위 “스콜라주의 (scholasticism)”이라 불리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의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 비판적 사고는 변증법적 추론 (dialectic reasoning)에 기반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함을 목표로 했다. 15세기 중반부터, 활자 인쇄 덕분에 지식과 새로운 사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중세 교육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고 고등교육은 새로운 세계관에 적응하는 것을 의무로 삼았다.

중세 학문과 지성인 문화의 가장 위대한 유형 유산은 중세 서양에서 작성된 수백만에 달하는 손으로 쓴 기독교문서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전되어 왔다. 수도사 성직자 및 기타 학자들은 지식을 보전 전수할 목

적으로 세대에 걸쳐 직접 손으로 제작, 필사하고 삽화 작업을 했으며 이러한 기록이 현재 유산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손으로 제작한 문헌 및 서책은 이동 가능한 유물 (movable relics)로 정의되는데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판매되곤 하다가 마침내 공공의 장서 (public collection)보관 되었다. 이 중 몇몇 개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수기한 문헌은 예술 및 과학부터 철학과 교리서 (sacred texts)까지 중세의 지식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 문헌의 대다수는 라틴어로 작성되었지만 그 외 고대어 및 현대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많다. 현재 보관중인 중세 문헌과 사라진 문헌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교본의 원본을 추적하고 필사본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또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중세 수기 문헌 장서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문적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최고 조건하에서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다.

이동이 불가능한 유산의 경우, 건물 보다는 장소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세 교육용 건물들은 이후 수세기 동안 변화를 거치거나 다른 용도로 대체되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수집한 장서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해졌다. 더욱이, 중세 대수도원 (abbeys)의 유산은 16세기 종교전쟁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세속주의 하에서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보전 상태가 양호한 수도원 및 대성당의 도서관 건물은 극히 예외적이다. 중세 대학 건물은 몇몇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옥스포드 (Oxford)와 캠브릿지 (Cambridge),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Coimbra), 스페인의 살라망카 (Salamanca)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은 보관해야 할 장서가 늘어나면서 16세기와 그 이후에 재건축 되었다.

중세 교육 제도와 관련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유산의 경우는 구체적인 건물보다 장소 (place)가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도시의 대학 및 대성당 구역뿐만 아니라 대수도원들은 비록 파괴되었지만 수세기 동안의 지식의 터전이다. 구체적인 장소들은(오늘날 많이 변화했더라도) 저명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학생들의 영감을 고취시키고 논쟁의 토대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세 서양의 교육 유산은 세계 유산 목록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또 다른 결론으로 언급할 수 있다.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Paper





# From Monastic Schools to Universities : Educational Heritage in Medieval Europe

Thomas Coomans

Professor,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For today's conference on educational heritage in Korea, I was asked to speak about the educational role of Christian monasteries in mediaeval Europe. Abbeys and monasteries, indeed,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ransmitting knowledge and culture within a Christian worldview. The image of the monk sitting at a desk, copying or illuminating manuscripts, became an icon of medieval culture and education. Abbeys and monasteries, however, were not the only places of education and their role varied during the middle ages.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total pictur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medieval Europe and will tell the evolution from the monastic schools to the universities.

The Middle Ages in Western Europe are a long and complex period of about ten centuries from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5th century) to the Renaissance (15th / early 16th century). The transmission of the antique Classical Greek and Roman cultures, through the medieval Christian culture, to the Humanism and the Renaissance is one of the most fascinating chapters of the world's intellectual history. Three educational institutions played a major role in this medieval transmission: the monastic schools, the cathedral schools and, from the 13th century, the universities. The first part of this lecture sketches the historical frame of the mediev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eir origin and evolution as well as their actors, most of which being Christian clerics. The second part of the lecture focuses on educational heritage.

## 1. History

The Roman education system consisted in municipal schools for the children of the elite. Children received moral education from their parents at home and learned grammar, rhetoric and philosophy at school. When the Roman Empire declined, the Christian bishops established schools near their cathedrals churches in order to promote religious learning and provide the Church with educated clergy. The earliest cathedral schools appeared in Spain in the 6th century,

in France and England in the 7th century. Parallel to the cathedral schools, the abbey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reservation and continuation of antique culture and science.

The origin of Western monasteries goes back to the 4th century, in Egypt, where holy men decided to “leave the world”, retire to remote places in the deserts, and devote their life to God. Some of these holy man, called ‘desert fathers, lived alone (eremites), other lived in small communities (coenobites). These communities had to be organised and therefore needed a head and a rule. The rule is thu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book in any monastery. Several ‘desert fathers’ wrote monastic rules, but the most influential one was written by St Benedict in the abbey of Monte Cassino (Italy) in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The rule of St Benedic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books from the early medieval heritage. Christian monasteries spread from the south of Europe to France, Ireland and Britain, and later to northern and eastern Europe.

Most abbeys possessed a library where manuscripts were conserved and a writing room or scriptorium where the monks copied manuscripts. Abbeys also had schools for the education of young boys who were committed to monastic life by their parents. During the Carolingian period, late 8th and 9th centuries, the Emperor Charlemagne promoted the education of the clergy as a class of intellectuals that would help governing efficiently his centralised empire. The emperor imposed the rule of St Benedict as only rule in all the monasteries of his empire. He also issued several decrees at the end of the 8th century, obliging Benedictine abbeys and cathedrals to provide education.

From the 10th and 11th century, new intercultural contacts developed with the Eastern cultures of the Byzantine Empire, Islamic Spain, Sicily and of the Arabic world, enriching knowledge and sciences. Cathedral schools and monastic schools reached their apogee during the 11th and 12th centuries, becoming the centres of advanced education in theology, arts, law and sciences. Education was based on the liberal arts inherited from the Antiquity and grouped in the “trivium” or humanities (grammar, rhetoric and logic) and the “quadrivium” or sciences (arithmetic, geometry, astronomy and music). Philosophy and theology were the supreme sciences that interpreted the world in a Christian perspective.

From the 12th century, in the context of growing urban centres, some cathedral schools became the first medieval universities. These first “universities” were self-regulating communities of teachers and scholars that had been recognized by the pope. The word “university” means “whole” in Latin and refers to the community of teachers and scholars. Fourteen universities existed by the end of the 13th century in Europe (amongst others Bologna, Oxford, Paris, Cambridge, Salamanca, Padua). In 1500, there were 62 universities in Europe, amongst others the University of Leuven, founded in 1425. Universities were successful and attracted male students (no women) who were no more clerics. More and more professors were

no clerics, but all were Christian and did not contest the “truth of God”.

Parallel to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e old monastic schools declined. Abbeys and monasteries often were located far away from cities, on places that were marginalised. Cities became the most dynamic places of the society’s economy, demography and politics, as well as the new places of artistic and scientific exchanges. New religious orders such as the Dominicans and the Franciscans were founded in the cities during the 13th century, and had specialized study houses related to the universities. Universities developed a new method of critical thinking called “scholasticism” that was based on dialectic reasoning and aimed to defend the dogmas of Christian faith.

From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the new printing techniques were at the origin of a revolution, first in the intellectual and religious circles, later in the whole society. Books were printed on paper, a new support coming from China and replacing the expensive parchment. The first major book printed in the West, using mobile types, was the Bible published by Johannes Guttenberg in Mainz (Germany) in the 1450s. The success of printed books was huge and immediate. People have compared the revolution of the printed book in the late 15th century with the revolution of the internet in the 1990s. Thanks to printed books, knowledge and new ideas diffused rapidly as well as the number of people able to read increased considerably. The printed book brought an end to the medieval education system and obliged high education to adapt to new world visions. The only “truth of God” would be contested by a new generation of scholars called the Humanists. In this context, the old monasteries and abbeys were completely marginalised and most had no more schools.

## **2. Manuscripts and Books**

Europe’s medieval educational heritage covers three categories: first, the places (immovable heritage), second, the manuscripts and books (movable heritage), and third, knowledge (intangible heritage). The latter includes arts, sciences, music and spirituality, as well as the life of many famous medieval scholars, but is intimately related with the books that were used as medium for transmission of knowledge. I will only focus on the two first categories.

The most tangible legacy of medieval scholarship and intellectual culture are the millions of Western medieval manuscripts conserved in public libraries and private collections through the world. All these relics have been hand produced, written, copied, illustrated and bound by generations of monks, clerics and other scholars with the aim to keep and transmit knowledge. Many manuscripts have been lost, but are only known thanks to copies. Because manuscripts were not written on paper, but on parchment - that is animal skin (calf, sheep, goat) -, they were

very precious and well preserved. Sometimes, parchment was reused for writing a new text, and so wears several layers of text (palimpsest).

The most sacred book was the Bible that contains the words of God. It has been copied and commented over the centuries. In the Middle Ages, copying existing books was the only way of reproducing texts and was thus an important activity. All the books from the Greek and Roman Antiquity are only known after several generations of copies. The Middle Ages, however, were much more than a period of copy and reproduction; it was a creative time too. Many new books were written by famous scholars, commenting the Antique books and the Bible, or compiling sentences from other books, or writing new books on history, sciences, encyclopaedias, law, etc. and, of course, theology in varied forms. As already said, all kind of knowledge were part of the medieval Christian world vision and could not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Bible or the writings of the Church Fathers and the Doctors of the Church.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rks of Western literature” is the *Summa Theologica* (1265-1274) of Thomas of Aquino. In his book, Thomas, who was a Dominican father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Paris, explains all the aspects of Christian faith to students in theology.

Making a manuscript involved different specialised people, from preparing the parchment and the ink, to writing the text, illustrating and binding the leaves of parchment. The most precious manuscripts are richly illuminated and bound in precious bindings. Text and illustration were not realised by the same monks; sometimes different handwritings can be identified in the same book. Copying was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proportion of conserved and lost medieval manuscripts. Experts in the field can trace the origin of texts and reconstruct generations of copies (stemma) and cross-influences. The majority of Western manuscripts is in Latin but many are copies of Greek classic authors. Medieval manuscripts are the best sources for the study of the emergence and early use of modern languages such as French, German, English, Italian etc.

Perhaps the most creative aspect of medieval manuscripts are their painted “illuminating”. They are totally original and were realised by great monastic artists, most of which remain anonymous. These images belong to the most refined medieval works of art and were only visible for the privileged people reading the manuscripts. Illuminating are mostly symbolic images, they follow the style evolution from the Romanesque to the Gothic and later Renaissance, and express all kind of feelings from the most spiritual and sacred, to profane scenes.

Most medieval manuscripts are no more conserved at the place where they were produced. Manuscripts and books being by definition movable relics, they travelled, were sold etc. before ending in public collections, some of which being world famous (Bibliotheca Vaticana, British Library, Bibliothèque Nationale, etc.). Today, medieval collections of manuscripts form a

network of libraries with specialized catalogues, optimal conditions for material conservation, digital databases of images, and even virtual collections of manuscript on internet.

The Celtic and early Irish illuminated manuscripts are amongst the most fascinating manuscripts in the world. They were produced in the context of Irish monasticism from the 7th to the 9th century. When visiting monastic sites such as Kells (Ireland) or Lindisfarne (England),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most precious Celtic manuscripts were written and painted there. Today, the famous Book of Kells, created around 800, is conserved in Dublin and makes Trinity College Library one of the most visited places in Ireland.

### **3. Educational Buildings and Libraries**

This brings us to the third part of the lecture about the immovable heritage of educational buildings. The immovable heritage consists essentially in places rather than buildings, because most medieval educational buildings have been transformed or replaced during the five following centuries. The main reason is the growth of the collections of books that drastically increased as soon printed books came on the market. Medieval libraries were small and were replaced with new libraries having a much bigger capacity of storage. Another reason is that new libraries expressed the intellectual prestige of an abbey or a university. The books were ancient, but the building should be new, decorated and safe, especially against fire.

Hundreds of medieval cathedrals are conserved through all Europe, many of them still having book collections and archives including medieval manuscripts and documents. Well preserved medieval cathedral libraries and school buildings, however, are exceptional. The famous cathedral library of Hereford (England), for example, containing a collection of medieval manuscripts and a rare bookshelf with chained books, looks medieval but dates from the late 16th century. The famous “Librije” in Zutphen (The Netherlands) conserves chained printed books in a late medieval vaulted room near the church. Rare books were locked in special places but much consulted books were chained in order not to be stolen. The practice of chained books also existed in university libraries, but disappeared gradually. One of the reasons being that when there was a fire in a library, chained books could not be saved.

The heritage of medieval abbeys has been deeply damaged during the religious wars of the 16th century and the secularisation at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Numerous abbeys have been more or less totally ruined or have been rebuilt. Therefore, well preserved medieval monastic scriptorium rooms and library buildings are very exceptional too. Moreover, abbeys’ book collections also increased when printed books came on the market and required new buildings. Many prestigious abbey libraries were rebuilt in baroque and rococo style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 remarkable example is the library of the World Heritage abbey of Saint Gall (Switzerland): the exceptional collection of medieval manuscripts is conserved in a richly decorated rococo library, which is part of the complete rebuilding of the abbey during the 18th century.

How did medieval monastic libraries and scriptoriums look like? The image of dozens of monks copying manuscripts in silence in great scriptoriums is a romantic vision from the 19th century or from sensational movies such as the famous “Name of the Rose”. The word scriptorium has two meanings. First, it could be a room where the writers and painters worked in silence. Second, a scriptorium also was the name of the desk itself that could be moved in function of the light to one or another place of the room or to different places within the abbey. Such desks are often depicted on book illuminating, so we know how they looked like.

In most abbeys, libraries were small locked rooms with bookshelves or niches in the walls where books were stored horizontally or vertically, but on their long side in order not to damage the bindings. In the early Middle Ages, libraries certainly conserved manuscript rolls from the Roman Antiquity. Rolls took more space in libraries. Only the librarian had the key, and he was responsible for keeping the books. Some catalogues of medieval monastic libraries are conserved and give a precise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of the library as well as about the storage of the books. In the 13th century, an abbey possessing 300 manuscripts could be considered as having a rich library. Only the most important abbeys had larger collections. As already said, when printed books appeared the collections increased rapidly and books would be stored vertically on their short side in order to take a minimum of space. This obliged to rearrange the old libraries and make new furniture.

The built heritage of university is richer and better preserved than the heritage of medieval abbeys. Medieval university buildings can be seen in several universities such as Oxford and Cambridge (England), Coimbra (Portugal), Salamanca (Spain) etc. University buildings consist in colleges, churches, and libraries. Most universities, however, were rebuilt in the 16th century and later, especially their libraries, always because of the same reason of growing collections. So, the prestigious university of the Sorbonne in Paris (France) has no more medieval buildings: new buildings were erected in the 17th century and enlarged in the 19th century. Only some parts of medieval colleges of religious houses, such as St. Bernard’s College, can be seen in Paris. One of the most famous university libraries in the world is the Bodleian library in Oxford. It was built as a library building in 1602 in order to merge older collections were brought together. The early university libraries in Oxford were no specific buildings but just one room in a college or in a church with chained books. This explains why all early libraries were replaced.

Most medieval Dominican and Franciscan monasteries in university towns wer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ad a “studium” combining a library and a reading room. Some exceptional cases survive as at the Franciscan convent of Zutphen in The Netherlands. Old maps and views of monasteries mention the location of libraries that had no specific place in the monastery. Often the libraries were at a first floor in order to protect the book from the humidity.

So we could conclude about the immovable heritage of mediev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he place is more important than specific buildings. University and cathedral quarters in cities as well as the sites of abbeys, even ruined, are places of secular intellectual presence. It is just fascinating to remember that specific places, even deeply transformed today, inspired ideas and debates to famous scholars as well as generations of students. With this consideration, we include the intangible aspect of educational heritage, that is to say the living knowledge as it was and still is transmitted in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 **4. Medieval abbeys and Universities as World Heritage**

I would like to conclude with a short evaluation of the medieval abbeys and universities that are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fact, Western medieval educational heritage, as such, is nearly absent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Even the world famous university towns of Oxford and Cambridge are no World Heritage. Only a few medieval university towns are on the list: Coimbra (Portugal), Salamanca (Spain), Krakow (Poland) - the famous university of Alcalá de Henares (Spain) belongs to a totally different 16th - century colonial project.

Medieval cathedrals are on the World Heritage list, but their libraries are often post-medieval and filled with books rather than medieval manuscripts - for example the library of Durham cathedral.

Less than 25 abbeys and monasteries are individually listed as World Heritage: the abbeys of Lorsch, Maulbronn, Reichenau and Corvey in Germany, the abbeys of Poblet, Guadalupe, the Escorial and the monasteries of San Millan de Yuso and Suso in Spain, the abbeys of Fontenay, Saint-Savin-sur-Gartempe, and Mont-Saint-Michel in France, the abbeys of Tomar, Belem, Alcobaça and Batalha in Portugal, Fountans abbey and St Augustine abbey in Canterbury in Great Britain, Assisi, the Dominican convent of Milano, the abbeys of St Gall and of Müstair in Switzerland, and the monastery of Rila in Bulgaria. That is not very much. Clonmacnoise and six other old monastic sites in Ireland are on the tentative list. These very important places of monastic heritage originally included monastic schools, libraries and scriptoriums, but most significant remains are lost. Abbeys are usually considered as historical and spiritual places rather tha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explained in this lecture, the most important intellectual heritage from the abbeys are the manuscripts the monks wrote, copied and illuminated - and

these manuscripts are spread in libraries in Europe and in North-America.

I would like to conclude this overview of medieval educational heritage with a remarkable World Heritage site from Belgium. It is not medieval but from the 16th century. The Plantin-Moretus printing office in the city of Antwerp conserves a library with copies of all the books printed in the house, as well as the presses and other parts of the office. It was an important centre of European humanism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s and culture in the 16th century. World heritage criterion VI, mentions: “The Plantin-Moretus complex is tangibly associated with ideas, beliefs, technologies and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is place is at the crossing of medieval and modern sciences, and shows the shift from the medieval world of hand written manuscripts to modern printed books that spread ideas and knowledge faster and to a larger population of scholars and intellectuals named humanists. At that time, the golden age of medieval monasticism and manuscript libraries definitively belonged to the past.

#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에서 대학교Universities까지

토마스 쿠만스 벨기에 루벤대학교 교수

한국에서 개최되는 교육 유산에 관한 회의에서 중세 유럽 기독교회 수도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실제로 대수도원과 수도원은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책상에 앉아 있거나, 경전을 필사하거나 채색하고 있는 수도승의 이미지는 중세 문화와 교육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대수도원과 수도원이 유일한 교육 장소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두 기관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 발표에서는 중세 유럽 교육 기관의 종합적인 그림을 다루면서 수도원 학교에서 대학교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부 유럽의 중세 시대란 로마 제국의 쇠퇴기(5세기)에서 르네상스(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의 약 10세기 동안 길고 복잡 다난했던 시기를 일컫는다. 중세 기독교 문화를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인본주의와 르네상스까지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지성이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세 시대의 이런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육 기관은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 대성당 학교(cathedral schools) 그리고 13세기 이후로는 대학교(universities) 이렇게 세 기관이었다. 이번 강연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중세 교육 기관의 역사적 틀과 기원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더불어 교육 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한 기독교 성직자들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강연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교육 유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 1. 역사

로마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층의 자녀들을 위한 시립 학교(municipal school)로 구성되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도덕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문법, 수사법과 철학은 배웠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기독교 주교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학식 있는 성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당과 교회 근처에 학교를 설립했다. 대성당 학교(cathedral school)는 6세기 스페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후 7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에 설립되었다. 대성당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수도원은 고대 문화와 과학을 지속 보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 수도원의 기원은 성자(holy men)들이 “문명을 떠나서” 사막의 외진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4세기의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막 교부(desert fathers)’라고 불린 이 성자들 중 일부는 혼자 살았고(eremites(개인 은수)) 또 일부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았다

(coenobites(공동 수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조직되면서 대표와 규칙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때 제작된 규칙서가 모든 수도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초의 서적이 되었다. 몇 명의 '사막 교부'들이 수도원 규칙서를 만들었지만, 6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몬테카시노(Monte Cassino) 수도원에서 성 베네딕트(St. Benedict)가 쓴 규칙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성 베네딕트의 규칙서는 초기 중세 유럽의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기독교 수도원은 유럽 남부에서 프랑스,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후에는 유럽 북부와 동부로도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대수도원에는 문헌이 보전되어 있는 도서관과 수도승들이 문헌을 필사하는 필사실(scriptorium)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대수도원은 부모들에 의해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된 어린 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운영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까지 카롤링거 시대(Carolingian Period)에 샤를메뉴 대제(the Emperor Charlemagne)는 자신의 중앙집권적인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도움이 될 지식 계급으로서 성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샤를메뉴 대제는 성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왕국 내 모든 수도원의 유일한 규칙으로 도입했다. 또한 8세기 말에는 모든 베네딕트 대수도원과 성당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몇 가지 칙령도 발표했다.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의 유럽 문화, 이슬람 권의 스페인, 시칠리아 그리고 아랍 세계 간의 새로운 문화 교류가 발생하면서 지식과 과학이 더욱 풍부하게 발전했다. 11세기와 12세기 동안 대성당 학교와 수도원 학교의 영향력은 정점에 이르며 신학, 예술, 법학과 과학의 선진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교육은 고대의 교양 과목(liberal arts)을 기반으로 하며 인문학인 “3학(trivium)”(문법, 수사학 및 논리학)과 과학인 “4학(quadrivium)”(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및 음악)으로 구분되었다. 철학과 신학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최고의 과학이었다.

12세기부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대성당 학교는 중세 시대 최초의 대학교로 변모하였다. 이런 최고의 “대학교”들은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사와 학자들의 자치 공동체였다. “university(대학교)”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전체”를 의미하고 교사와 학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13세기 말 경 유럽에는 14개 대학교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볼로냐, 옥스포드, 파리, 캠브리지, 살라망카 그리고 파도바 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1500년에 유럽의 대학교는 1425년에 설립된 루벤 대학교를 포함하여 62개로 증가했다. 이 대학들은 성공적이었으며 성직자가 아닌 남학생만 (여학생은 모집 제외)을 모집했다. 종교지도자가 아닌 일반인 교수의 수는 늘어났다. 모든 교수가 성직자 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대학교의 발전과 동시에 예전 수도원 학교는 쇠퇴했다. 대수도원과 수도원은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다. 도시는 사회의 경제, 인문학 및 정치의 가장 역동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 교류의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했다. 13세기 도시에는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같은 새로운 종교 단체가 설립되었고 대학교와 관련된 학습장(study house)을 운영했다. 대학교들은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라는 새로운 비판적 사고 교육법을 개발했다. 변증법적 추론(dialectic reasoning)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 교육법은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5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인쇄술로 시작된 새로운 혁명은 지식층과 종교계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전 사회로 확산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종이 덕분에 값비싼 양피지 대신 종으로 인쇄된 서적이 제작되었다. 서구 사회에서 최초로 제작된 서적은 1450년경 독일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tenberg)가 활자(mobile type)를 사용하여 펴낸 성경이었다. 활자 인쇄술은 엄청난 영향력을 즉각 발휘했다. 사람

들이 15세기 말의 인쇄술 혁명을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과 비교할 정도이다. 인쇄술 덕분에 지식과 새로운 사상이 급속하게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인쇄술은 중세 교육 시스템의 종말을 가져왔고 고등 교육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 들어야만 했다. 성직자들만이 인본주의자(the Humanists)라고 불리던 새로운 학자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옛 수도원과 대수도원은 완전히 소외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다.

## 2. 문헌과 서적

유럽의 중세 교육 유산은 장소(비이동성 유산), 문헌과 서적(이동성 유산) 그리고 지식(무형 유산)으로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무형 유산에는 예술, 과학, 음악, 영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명한 중세 학자들의 삶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형 유산은 지식 전수의 매개로서 사용되었던 서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교육 장소와 문헌, 서적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세 시대의 학문과 지적 문화의 가장 위대한 유형 유산은 전 세계의 공공 도서관과 민간 수집 장서로 보전되어 온 수 백 만 권에 달하는 유럽 중세 시대의 문헌들이다. 지식을 보전 및 전수하기 위해 수도승, 성직자 및 학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수기, 기록, 필사하고 삽화를 넣어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한 덕분에 이런 유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문헌은 소실되었지만 필사본 덕분에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문헌의 경우 종이가 아니라 송아지,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보존이 잘 되었다. 양피지는 새 문서를 적기 위해 재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한 장의 양피지에 몇 겹의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palimpsest(팰립시스트)).

가장 성스러운 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주석을 달았다. 중세 시대에는 기존 서적을 필사하는 것이 문서를 복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필사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모든 책들은 수 세대에 걸친 필사본 덕분에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세 시대는 필사와 복사의 시대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기이기도 했다. 유명한 학자들이 고대 서적과 성경에 주석을 달고, 여러 책의 문장을 편집하고, 역사, 과학, 백과사전, 법학 그리고 신학에 대한 다양한 책을 쓰면서 다수의 새 서적이 제작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종류의 지식은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했기 때문에 성경 또는 교부(Church Fathers)와 교회의 박사(Doctors of the Church)의 기록과 양립할 수 없었다. 서양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품 중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이다.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이자 파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토마스는 이 책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리의 모든 요소를 설명한다.

경전을 만드는 것은 양피지와 잉크를 만드는 것부터 글을 쓰고, 삽화를 넣고 양피지로 된 페이지를 엮는 일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했다. 가장 귀한 문헌들은 채색을 하고 값비싼 묵음철로 장정을 하였다. 글을 쓰고 채색을 하는 과정을 수도승 한 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같은 책에 다른 글씨체가 확인되기도 한다. 필사는 학습 과정의 일환이기도 했다. 보전된 중세 문헌과 소실된 중세 문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서의 기원을 추적하고 필사본의 전승 계통도(stemma)와 문화 교류의 영향력 등을 재정립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양 문헌은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다수의 문헌은 그리스 고대 작가 서적의 필사본이다. 중세 문헌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및 이탈리아어와 같은 현대어의 등장과 초기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최고의 자료이다.

중세 문헌의 가장 창조적인 측면은 “채색(illuminating)”기술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채색된 문서들은 모두 원본이며 뛰어난 수도원 예술가들이 담당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누가 채색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채색 이미지들은 가장 세련된 중세 예술 작품으로서 당시에는 채색 문헌을 읽는 귀족들만 볼 수 있었다. 문헌의 채색은 대부분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그리고 채색 스타일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 그리고 나중에는 르네상스 양식을 따라 변화했으며 가장 영적이고 숭고한 모습부터 불경한 장면 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적 감정을 표현했다.

대부분의 중세 문헌은 제작된 곳에서 보존되지 않는다. 문헌과 서적을 이동성 유산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바티칸 도서관, 영국 도서관 및 프랑스 국립 도서관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 기관에 오기 전까지 여기 저기로 이동되고 판매 되었다. 오늘 중세 문헌 장서들은 전문 카탈로그, 문서 보존을 위한 최상의 조건, 이미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중세 문헌의 가상 전시관 등을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켈트와 초기 아일랜드의 채색 문헌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문헌으로 꼽히고 있다. 이 채색 문헌들은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아일랜드 수도원 운동의 영향으로 제작되었다. 아일랜드의 켈스(Kells) 또는 영국의 린디스판(Lindisfarne)과 같은 수도원 성지 유적을 방문해보면 가장 귀한 켈트 문헌들이 그 장소에서 작성되고 채색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 800년경에 제작된 켈스의 유명한 서적은 현재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으며 이 도서관은 아일랜드의 명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 3. 교육 관련 건물 및 도서관

이제 강연의 세 번째 파트인 부동산 유산인 교육 관련 건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대부분의 중세 시대 교육 관련 건물들은 이후 5세기에 걸쳐 큰 변화를 겪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유산에는 기본적으로 건물들보다는 장소가 많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쇄술이 대중화되면서 장서의 수가 급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중세 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더 많이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으로 대체 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새로운 도서관들이 대수도원이나 대학교의 지적 자부심을 표현해주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서적들은 오래되었지만 건물은 새로 지어서 잘 꾸미고 화재에도 안전하도록 만들었다.

유럽 전역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수 백 개의 중세 성당들의 대부분은 중세 문헌과 문서들을 포함한 장서들과 공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잘 보존된 중세 대성당 도서관이나 학교 건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유명한 대성당 도서관인 영국의 헤리포드(Hereford)는 중세 문헌과 사슬이 달린 책들(chained books)이 놓인 희귀 책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세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16세기 말에 지어진 도서관이다. 네덜란드의 줘트펜(Zutphen)에 위치한 리브리예(Librije) 도서관에는 교회 근처의 중세 말 양식의 아치형 천장이 있는 방에 사슬이 달린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희귀 도서들은 특별한 밀실에 안전하게 보관하였지만 참고 서적으로 자유롭게 보던 문헌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 사슬로 묶어 놓았다. 서적을 사슬로 묶어 놓은 관행은 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존재했지만 점차 사라졌다. 이런 관행이 사라진 이유는 도서관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사슬로 묶어 놓은 책들은 모두 불타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종교 전쟁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세속화로 인해 중세 대수도원 유산의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다수의 대수도원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수도원의 필사실과 도서관 건물이 잘 보존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한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대수도원의 장서의 수도 증가했고 따라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다. 다수의 유명한 대수도원 도서관은 17세기와 18세기에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으로 재건축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세계 문화 유산인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수도원(abbey of Saint Gall)의 도서관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로코코 스타일의 도서관에 우수한 중세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또한 18세기에 장크트갈렌 수도원을 전체적으로 재건축하면서 그 일부로서 건립되었다.

중세 수도원의 도서관과 필사실은 어떤 모습일까? 거대한 필사실에서 조용히 경전을 필사하고 있는 수십 명의 수도승의 이미지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이미지거나 “장미의 이름으로(Name of the Rose)”와 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다. 필사실(scriptorium)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작가나 화가가 조용히 일을 하는 방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스크립토리움(scriptorium)이란 단어 자체가 필사실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수도원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조명으로 사용하던 책상의 이름이었다. 이런 책상은 문서 채색 장면에서 자주 묘사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대수도원 도서관은 묶음철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을 눕혀서 가로나 세로로 꽂을 수 있는 책장 또는 벽에 틈이 있는 자물쇠가 갖추어진 작은 밀실이였다. 중세 초기에 도서관에는 고대 로마의 문서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었다. 이런 문서 두루마리는 도서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했다. 유일하게 방 열쇠를 가진 도서관 사서가 밀실의 서적 관리를 책임졌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중세 수도원 도서관의 카탈로그는 도서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장서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13세기에는 300권의 문헌을 보유한 대수도원을 책이 많은 도서관이라고 여겼다. 가장 중요한 대수도원만이 그 보다 더 많은 서적을 보유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장서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서적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을 세워서 세로로 보관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오래된 도서관은 재건축되고 새로운 가구도 발명되었다.

대학교의 건축 유산은 중세 대수도원의 유산보다 더 많이 더 잘 보존되고 있다. 중세 대학교 건물은 영국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교 그리고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교와 같은 여러 대학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학교 건물은 대학, 교회 그리고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교, 특히 도서관은 장서의 규모의 증가로 인해 16세기 이후에 대부분 재건축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대학교에는 중세 시대의 건물이 남아있지 않다. 새로운 건물이 17세기에 들어섰고 이후 19세기에 확장되었다. 파리의 세인트 버나드 칼리지(St. Bernard's College)와 같이 종교적인 대학교에만 중세 대학 건물 일부가 남아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도서관 중에 하나는 옥스포드의 보드레이안 도서관(the Bodleian Library)이다. 이 도서관은 이전 장서들을 모두 통합 관리하기 위해 1602년에 지어졌다. 옥스포드의 초기 대학교 도서관들은 건물이 아니라 대학교나 교회 내에 사슬로 묶어 놓은 서적들이 있는 한 개의 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도서관들은 모두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교 내에 위치한 중세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대부분 교육 기관이었으며 도서관과 독서실이 결합된 스튜디오(studium)이 있었다. 네덜란드의 쥐트펜 프렌체스코 수도원의 경우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수도원의 옛 지도나 조망도에서 수도원 내 도서관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수도원 내에 도서관으로 지정된 특정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이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중세 교육 제도의 부동성 유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건물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도시에 위치한 대학교와 대성당뿐만 아니라 비록 훼손이 되긴 했지만 대수도원 또한 세계 지성의 터전이였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지만 이런 장소들에서 유명 학자들과 학생들이 수 세대에 걸쳐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고 토론을 벌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 유산의 무형적 측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여전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전수되고 있다.

#### 4. 세계 유산으로서 중세 대수도원과 대학교

중세 대수도원과 대학교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간략한 평가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실 서양의 중세 교육 유산은 세계유산에 거의 등재되지 않았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교,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교, 폴란드의 크라쿠프 대학교 등 소수의 대학교만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페인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Alcala de Henares) 대학교는 16세기 식민지 유적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유산 범주에 속해있다.

중세 대성당들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더럼 대성당(Durham Cathedral) 도서관의 경우처럼 대성당의 도서관은 중세 이후에 건축된 경우가 많고 중세 필사본보다는 서적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등재가 되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수도원과 수도원의 수는 25개가 되지 않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로쉬(Lorsch), 마울브론(Maulbronn), 라이헤나우(Reichenau), 코르베이(Corvey) 수도원, 스페인의 포블레트(Poblet), 과달루페(Guadalupe), 에스코리알(Escorial), 산 밀란 데 유소(San Millan de Yuso), 수소(Suso) 수도원, 프랑스의 생사뱅 쉬르 가르탕페(Saint-Savin-sur-Gartempe), 몽 생 미셸(Mont-Saint-Michel), 포르투갈의 투마르(Tomar), 벨렘(Belem), 알코바사(Alcobaca), 바탈하(Batalha) 수도원, 영국의 파운틴스(Fountains),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수도원, 스위스의 쾨터베리(Canterbury), 아씨시(Assisi) 밀라노 도미니크(Dominican convent of Milano), 장크트갈렌(St. Gall), 뮈스태어(Müstair) 수도원 그리고 불가리아의 릴라(Rila) 수도원이다. 등재된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일랜드의 클론매크노이즈(Clonmacnoise) 수도원을 비롯해서 6개 수도원이 잠정목록에 올라와 있다. 이런 수도원 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에는 원래 수도원 학교, 도서관, 필사실이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의 중요 유적이 소실된 상태이다. 대수도원은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장소로 간주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지적 유산은 수도승들이 작성하고 필사하고 채색한 문헌들이다. 그리고 이런 문헌들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도서관에 퍼져있다.

오늘 중세 교육 유적에 대한 강연을 벨기에의 훌륭한 세계유산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한다. 이 유적은 중세 시대가 아닌 16세기에 건립되었다. 안트워프펜 시에 위치한 플랜틴-모레투스(Plantin-Moretus) 인

쇄사무소에는 자체 출판한 모든 책의 제본뿐만 아니라 언론과 다른 부서의 문서들까지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이 인쇄사무소는 16세기의 과학과 문화 발전을 위한 유럽 인문주의의 중요한 구심점이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VI항은 “플랜틴-모레티스 인쇄사무소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는 사상, 신념, 기술 및 문학과 예술 작품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곳은 중세와 현대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중세 시대에 수기로 작성한 문헌이 현대에 와 인쇄 서적으로의 변화하면서 사상과 지식을 더 빠르게 더 많은 인본주의학자 및 지식인에게 확산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당시 중세 수도원 운동과 필사본 도서관의 황금 시대는 명백히 과거에 있었다.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주제발표2

## Them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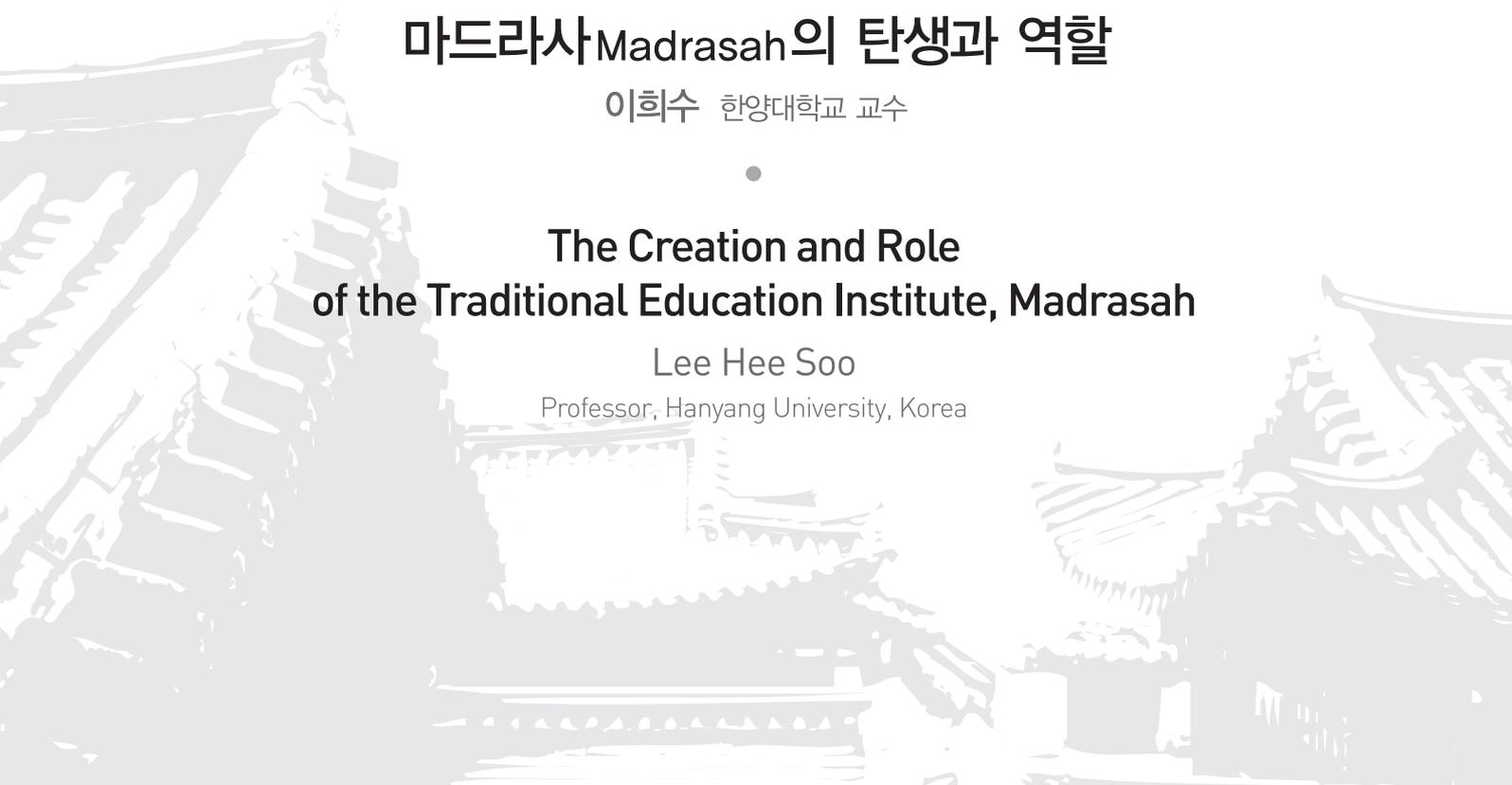
###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 Madrasah의 탄생과 역할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

### The Creation and Role of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Madrasah

Lee Hee S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Korea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Madrasah)의 탄생과 역할

이 희 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슬람의 전형적인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ah)는 9세가 중엽부터 이슬람 세계가 제국의 규모를 갖추어나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이라는 측면과 이슬람 신념의 영속적 계승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마드라사가 모스크 부속건물로 출발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마드라사 교육의 목표는 이슬람 신학과 법학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종교적 세속학문이 도입되었고, 신의 영역 연구와 인간의 이성적 커리큘럼이 조화를 이루는 학문적 전통이 마드라사 교육철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의 전통있는 주요 종합대학교들이 대부분 마드라사에서 출발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중세 유럽이 신(神)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암흑의 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이슬람 학문 전통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이는 신학과 세속학문의 조화를 가능케 했던 독특한 이슬람의 교육철학과 이슬람 통치자들의 교육 리더십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관찰에 의거한 세속적인 학문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오묘한 신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즉 이성적 학문은 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신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신학의 하부구조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세속적 학문 연구를 절대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무슬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신의 영역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슬람 학문발전이 무한의 질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시 압바스 제국의 군주들은 이러한 학문적 열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며 학문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칼리프 알 마문(Al-Mamun)이 학자들이 저술한 책 무게를 동일한 무게의 금으로 배상해주었던 일화는 이러한 학문 장려 정책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이러한 중세 이슬람 학문의 전당이 바로 마드라사였다. 모스크 부속건물로서 마드라사는 종교적 통제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조화되었다. 하나의 전체적 구조를 이루는 모스크 콤플렉스 내에는 중심에 예배를 위한 모스크를 배치하고, 마드라사, 도서관, 병원, 상인들을 위한 대상 숙소인 카라반 사라이(Caravan Saray), 목욕탕, 시장 등이 기본적으로 함께 기능하도록 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마드라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 멀리서 온 여행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데이터 베이스 공간 역할을 했다. 마드라사를 중심으로 대중들의 삶과 인식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 번성하게 되는 배경이다. 특히 신학과 이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마드라사 학문은 신의 창조를 이해

하기 위해 천체학과 우주론이, 라마단 단식기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하루 다섯 번의 예배시각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과 역법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행적을 찾기 위해 역사학이, 여행 중 예배방향을 정확히 찾기 위해 지리학이, 사람간의 다툼을 이슬람올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법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삶과 종교의 합일, 종교의 하부구조로서의 세속교육, 정교일치적 특징을 가진 마드라사의 역할은 20세기 후반부터 몰아친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상당부분 위축되었으나,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정교일치적 전통을 고수하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마드라사 교육의 필요성이 부활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실세들이 마드라사 교육을 통해 성장하였고, 중동 전역의 저항 세력들이 마드라사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는 마드라사가 테러리스트들의 양성 소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21세기 이슬람 세계는 1200년간의 마드라사 전통과 서구식 첨단 교육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힘든 담론을 거듭하고 있다.

# The Creation and Role of the Traditional Education Institute, Madrasah

Lee Hee S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Korea

As the Islamic world developed into an empire around the mid 9th century, the Islamic educational institute, Madrasah, started to take its place as the mainstream educational institute with the purpose of maintaining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incubator to nurture talented individuals and of succeeding the Islamic ideals. As most of Madrasahs started out as the annex of the mosque, it can be assumed that the initial goal of Madrasah focused on certain subjects such as Islamic theology and law. Gradually it introduced other non-religious subjects to meet the social demands and the academic traditions of keeping balance between the study on the domain of God and the rationality of human beings was placed in the center of Madrasahs' educational philosophy. A good example of this can be easily found; most of the major Islamic universities of these days share the same background of starting out as Madrasah.

When Europe was still struggling amidst the God-centered paradigm, enduring the "Dark age", the Islamic academic tradition was able to achieve world-class level in all subjects, from the natural science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is was heavily indebted to the unique Islamic educational philosophy of keeping balance between theology and secular learning, and to the educational leadership of the Islamic rulers. Instead of seeing it as the insolence of humans daring the realm of God, the Islamic scholars saw the secular learning based on human rationality and observation as reasonable m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Divine providence. Thus, the rational studies was accepted as a substructure of theology, to better understand God and to get closer to God's world. Moreover, they stated that the studies on secular learning was the muslim's sacred obligation in order to truly understand the divine Being. Under the condition that one dares not to confront the realm of God,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Islamic world was granted prosperity. The rulers of the Abbas empire took active measures to protect this academic passion, and fully supported the scholarly research. The story of caliph Al-Mamun compensating the scholar's published research with equal weight of gold, symbolically represents policies carried out to encourage research and studies.

In short, Madrasah was the hall of learning for Islamic studies in the medieval times. As the annex of the mosque, Madrasah was structured to stay within the domain of religious control. Inside the mosque complex, the mosque for attending worship was placed at the center, and then next to it other sections such as the Madrasah, library, hospital, Caravan Saray, accommodations for the caravans, public baths, markets, etc. With such structure, Madrasah served many functions; it was not only an educational institute but also an open place for the public and a database where the travellers from afar can visit and acquire new knowledge. With such background, Madrasah was able to flourish and cultivate practical studies that can actually help promote peoples' awareness and support their lives.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of Madrasah's learning of keeping balance between theology and rational education was led to the development of certain subjects; cosmology and uranology to understand God's creation, astronomy and calendar system to notify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Ramadan fasting period and to calculate the exact time for prayers five times a day, history to follow the footsteps of the prophet Muhammad, geography to find the exact direction for daily prayers even during the journeys, laws to settle quarrels in accordance to Sharia.

Madrasah holds many roles; consolidation of life and religion, the secular learning as the substructure of the religion, the union of church and state. Its role has reduced significantly in the late 20th century as globalisation swept the world. Recently the need for Madrasah education is being mentioned by the radical Islamic ideologists who support the tradition of the union of church and state. After knowing that the leaders of the Taliban in Afghanistan and the resistance across the Mideast region were educated through the Madrasah, Madrasah is misinterpreted as the training school for terrorists in the Western world. To address this issue, the 21st century Islamic society is continuing their discourse in an attempt to converging 1200 years of Madrasah tradition and the modern Western education system.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Paper





#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Madrasah)의 탄생과 역할

이 희 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1. 머리말

이슬람의 전형적인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ah)는 9세기 중엽부터 이슬람 세계가 제국의 규모를 갖추어나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이라는 측면과 이슬람 신념의 영속적 계승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마드라사가 모스크 부속건물로 출발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마드라사 교육의 목표는 이슬람 신학과 법학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종교적 세속학문이 도입되었고, 신의 영역 연구와 인간의 이성적 커리큘럼이 조화를 이루는 학문적 전통이 마드라사 교육철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의 전통있는 주요 종합대학교들이 대부분 마드라사에서 출발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중세 유럽이 신(神)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암흑의 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이슬람 학문 전통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이는 신학과 세속학문의 조화를 가능케 했던 독특한 이슬람의 교육철학과 이슬람 통치자들의 교육 리더십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관찰에 의거한 세속적인 학문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오묘한 신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즉 이성적 학문은 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신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신학의 하부구조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세속적 학문 연구를 절대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무슬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신의 영역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슬람 학문발전이 무한의 질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시 압바스 제국의 군주들은 이러한 학문적 열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며 학문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칼리프 알 마문(Al-Mamun)이 학자들이 저술한 책 무게를 동일한 무게의 금으로 배상해주었던 일화는 이러한 학문 장려 정책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이러한 중세 이슬람 학문의 전당이 바로 마드라사였다. 모스크 부속건물로서 마드라사는 종교적 통제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조화되었다. 하나의 전체적 구조를 이루는 모스크 콤플렉스 내에는 중심에 예배를 위한 모스크를 배치하고, 마드라사, 도서관, 병원, 상인들을 위한 대상 숙소인 카라반 사라이(Caravan Saray), 목욕탕, 시장 등이 기본적으로 함께 기능하도록 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마드라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 멀리서 온 여행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데이터 베이스

공간 역할을 했다. 마드라사를 중심으로 대중들의 삶과 안식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 번성하게 되는 배경이다. 특히 신학과 이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마드라사 학문은 신의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 천체학과 우주론이, 라마단 단식기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하루 다섯 번의 예배시각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과 역법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행적을 찾기 위해 역사학이, 여행 중 예배방향을 정확히 찾기 위해 지리학이, 사람간의 다툼을 이슬람율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법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삶과 종교의 합일, 종교의 하부구조로서의 세속교육, 정교일치적 특징을 가진 마드라사의 역할은 20세기 후반부터 몰아친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상당부분 위축되었으나,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정교일치적 전통을 고수하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마드라사 교육의 필요성이 부활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실세들이 마드라사 교육을 통해 성장하였고, 중동 전역의 저항 세력들이 마드라사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는 마드라사가 테러리스트들의 양성소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21세기 이슬람 세계는 1200년간의 마드라사 전통과 서구식 첨단 교육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힘든 담론을 거듭하고 있다.

## 2. 마드라사의 역할과 역사적 발전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전통 교육기관인 마드라사의 언어적 의미는 아랍어로 “배우는 장소”이다. 그렇지만 긴 이슬람 역사를 통해 이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지역에 따라 그 역할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모스크에 부속되어 있으면서, 이슬람 신학과 이슬람학 관련 학문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대에 와서는 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따로 ‘자마야’라 불리면서 이슬람학은 물론 일반 서구식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마드라사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이슬람의 평등정신에 따라 입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점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입학이 허용된 후에는 수학 능력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일반 종교과정과 이맘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이맘은 순니파에서는 단순한 예배인도자이지만, 전문 종교인 집단으로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꾸란과 설교법,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 이맘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수학기간을 필요로 하며, 그 중 일부는 꾸란을 모두 외우는 하피즈가 된다. 전통적으로 마드라사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관장하는데, 기숙사에 함께 생활하면서 야간 학습을 하고, 사회생활과 삶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마드라사의 기능 중 하나는 고아와 가난한 자제들을 받아들여 함께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슬람 형성초기부터 마드라사가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마드라사는 처음 당면한 종교적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종교인사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모스크와 같은 장소에서 정통한 무슬림 학자들이 임시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비롯되었다. 처음 사람들은 샤리아(이슬람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을 찾아가 일정한 이슬람 지식을 전수받은 후 비정규 교원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비정규 종교 교원들은 이후 셰이크(shaykh)라 불리었다. 이후 셰이크들에 의해 마갈리

(mağālis)라 불리는 교과를 구성하여 정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마드라사로 불리는 최초의 교육기관은 아마도 예언자 무함마드 시기에 메카의 사파 언덕에 설치된 자이드 빈 아르캄(Zaid bin Arkam)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무함마드가 직접 교사로 추종자들을 교육했으며, 메디나로 이주해 간 이후에는 지금 예언자 모스크 동쪽에 수파(Suffa)라는 마드라사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바이다 빈 사미트('Ubada bin Samit)가 교사로 활동하면서, 이슬람 종교, 꾸란, 하디스, 일반 교과목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법, 말타기, 전쟁기술, 서예, 체육, 격투기 등과 같은 과목들도 가르친 것으로 되어있다.

체계를 갖춘 초기 마드라사의 대표적인 예가 859년 모로코 페스에 설립된 '자미아투 알 카라위인(Ġāmi'at al-Qarawīyyīn)' 이었을 것이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드라사이자 동시에 최초의 대학으로 간주되고 있다. 알 카라위인 마드라사는 부유한 상인인 무함마드 알 피흐리(Muḥammad al-Fihri)의 딸인 파티마 알 피흐리(Fāṭimah al-Fihri)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를 이어 959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도 알 아즈하르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압바스 왕조 말기인 11세기에는 셀주크 왕국의 재상인 니잠 알물크가 그의 이름을 따서 여러 마갈리(종교 지도자)를 교육하는 '마드라사 니자미야(Madrasah Niẓāmiyyah)' 라 불리는 최초의 공립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니자미야(Niẓāmiyyah)' 라고 불리는 이 교육기관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교육의 효시로 여러 지역에 니자미야가 설립됨으로써 후일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 교육과정 정립의 전형이 되었다. 11세기 이슬람 교육의 전당으로서 마드라사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슬람의 지식 중시 가르침과 부합되면서 짧은 시간내에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1155~1260년 약 1세기 동안 카이로에 75개, 다마스쿠스에 51개, 알레포에 44개의 마드라사가 설립되었고 훨씬 많은 마드라사가 스페인 이슬람 지역인 안달루시아의 코르도바, 세비아, 톨레도, 그라나다, 무르시아, 알메리아, 발렌시아, 카디즈, 등지의 도시에 설립되었다.

10세기 이후 마드라사 설립 방식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유력인사나 권력자, 혹은 공동체가 와크프(Waqf)로 알려진 재단이 주도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마드라사를 설립하는 일은 모스크 건립과 함께 기부자의 위상과 공헌을 표현해주는 상징자본의 매력 때문에 경쟁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맘루크 왕조 시기에는 노예의 상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드라사를 통한 재산 이전과 노예 상속이 지배계층에서 한 때 널리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설립된 마드라사 중에는 카이로에 있는 술탄 하산(Hasan) 마드라사가 유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10세기 전후 이슬람 궁정에서 관료들이 술탄으로 부터 신입받고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 다투어 마드라사를 짓거나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조건의 일부였다. 그러나 마드라사가 첨단학문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은 아니었다. 국책연구나 고도의 과학연구는 궁정의 후원을 받는 학자들에 의해서 별도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마드라사 교육을 통해 이슬람 제국 초창기에

아랍어와 아랍 문학의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고대 그리스 시대보다도 더 많은 문헌들이 이 시기에 저술되었다.

마드라사 교육의 확산과 일반화로 이슬람 세계의 지적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를 흔히 이슬람 철학과 아랍어문학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특히 이 시기에 중세 최고의 이슬람 철학자였던 알 가잘리에 의해 마드라사 교육과정에 종교이론과 일반 교과목의 조화로운 통합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에서 후일 이븐 시나(유럽에서는 Avicenna)라는 대학자가 배출되었다.

마드라사가 독특한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공교육 영역은 물론 대중적 교육기관으로 지식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통치자의 학문적 인식이자 리더십이었다. 중세 유럽 사회가 ‘암흑의 시기(Dark Age)’라는 질곡 속에서 신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인간의 합리적 창의성과 이성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슬람 세계는 1 항성년(태양년)의 길이를 365.2422로 계산해 낼 정도로 앞서 있었다. 중세 유럽의 침체와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라는 명운을 바꾼 인식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는 마드라사 교육에서 이성적 학문과 세속적 과학연구가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이슬람의 율법적 재해석은 자연의 탐구와 과학적 연구를 신이 창조한 우주와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이치를 탐구하기 위한 신성한 종교적 사명으로 무한의 문호를 열어주었다. 이슬람 세계는 신학과 과학이 갖는 상호 모순된 문제점을 두고 회피하거나 억누르려는 태도 대신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쳤으며, 몇몇 뛰어난 칼리프의 놀라운 지원을 통해 종교적 해석에 이성과 과학이라는 선물을 허용했다. 신성과 세속사이의 관계 정립을 위한 오랜 고뇌 끝에 양자의 유용성과 상호 합치라는 확신을 얻었고, 결국 “과학연구는 종교적 의무”라는 놀라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신을 이해하는 하부학문으로 위상을 유지하는 한 모든 연구는 무한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 교육과 학문전통은 신학과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학의 보조학문으로 실과 바늘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신이 창조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과 천체학이, 단식일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이, 농사와 조수간만을 이해하기 위해 역법이, 교역과 예배방향을 찾기 위해 지리학이, 무함마드의 행적을 정리하기 위해 역사학이, 이슬람 율법을 실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 법학이, 하느님의 집인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학과 대수학 등이 각각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무슬림들은 자연과학에서 매우 발달된 수준을 이룩하였다. 수학에서는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영향을 받아 아라비아 수자 체계와 영(0)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삼각법, 해석기학, 그리고 그 어원이 아랍어인 대수학(Algebra)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에서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자오선의 길이가 측정되고, 천체관측기구를 만들어 지구구체설을 증명하였다. 이슬람력의 원리는 원나라때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태음력의 정비와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학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수술이 성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의학자인 알라지(Al-Razi)의 <의학대전>과 이븐 시나의 저술들은 유럽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재로 사용되었다. 화학분야에서는 승화작용이나 증류법과 같은 화학실험 방법이 고안되었다. 알칼리, 알코올 등의 아랍어 용어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통치자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문치 리더십이었다. 9세기 바그다드에 설립된 중세 최고의 아카데미였던 <지혜의 집>은 서양역사가 스스로 닫아버린 암흑의 시기에도 인류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의 빛이 비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다. 칼리프나 재력가 등 지식의 후원자들은 필요한 책을 구입하거나 필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학자들을 지원했으며, 한 권을 책을 찾기 위해 바그다드에서 다마스쿠스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탄불로 달려갔다. 지금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경탄스러운 세계지식여행이었다. 이슬람제국인 압바스 왕조는 지식인을 극진히 대우했으며, 학자는 존경받는 최고의 직업이었다. 계층과 신분,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오로지 학문과 과학적 성취로만 사람을 평가하였다. 선대의 학문적 업적을 낡은 것이라 버리지 않았으며, 고대 그리스의 학문과 철학을 이교도의 것이라 하여 폄하하지 않았다. 인도의 대수학, 중국의 과학 등 당대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창조의 단단한 터전을 닦아주던 곳이 <지혜의 집>이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칼리프 알 마문(813~833 통치)의 역할을 놓칠 수 없다. 중세 이슬람 역사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통치자의 한 사람이었던 알 마문은 과학적 탐구에 종교적 사명이라는 신성한 보호막을 씌움으로써 과학을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무엇보다 당시 칼리프들은 제대로 연구된 학자들의 책 무게를 동일한 금의 무게로 보상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학문적 장려정책을 폈다. 이로써 중세는 이슬람 과학의 황금시대가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이슬람 세계 전역의 마드라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저술 사업에서 편찬된 필사본이 현재까지 약 300만권 이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마드라사의 역할과 학문적 열정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마드라사의 역할은 이슬람 세계의 문해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유럽보다 500년이나 앞서 이슬람의 학문적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단단한 지적 토대가 되었다.

### 3. 마드라사의 교육 과정

마드라사의 이슬람 교육과정은 크게 두 코스로 나뉘는데, 첫째는 히프즈(hifz) 코스로 꾸란을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코스이다. 꾸란 구절을 완전히 암송하는 사람인 하피즈(hāfīz)가 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둘째는 울라마(Ulama) 코스인데, 이슬람 학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 마드라사에서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아랍어, 타프시르(꾸란의 내용에 대한 해석), 샤리아(이슬람 율법),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논리학, 이슬람 역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하디스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탄 술탄 1세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마드라사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아랍문학, 과학, 세계사,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외국어를 부가적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오스만 제국의 마드라사는 종교 교육을 행하면서 작문, 문법, 통사론, 시문학, 정서법, 자연과학, 정치학, 생활예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슬람 세계에서, 이맘이 되기 위해 마드라사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울라마 자격은 12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하피즈들은 마드라사 출신이다. 마드라사는 야간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와 비슷한 면이 있다. 마드라사의 중요한 기능은 고아나 가난한 학생을 받아들여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드라사는 여성도 학

생으로 받아들였으나, 수업장소가 다르거나, 여성만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마드라사가 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마드라사는 공사립 세속학교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들에게 방과 후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가정환경이 부유한 학생 거의 대부분은 세속 교육과 종교 교육 모두를 제공하는 기숙 또는 전일제 사립학교만 재학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인도 출신의 무슬림들이 재학하는 마드라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르두어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마드라사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마드라사 교육의 특징은 신앙과 연관된 교과목과 함께 다양한 ‘이성과학’ 분야도 가르친다는 점이었다. 수학, 천문학, 의학, 지리학, 지구과학, 철학, 마술 과목들이 중요과목으로 포함되었다. 11세기와 14세기 사이의 이슬람의 황금시대에 가잘리에 의해 이슬람 철학의 논리학이 마드라사의 교육과정의 되었고, 이후에는 이븐 시나의 학문적 성과가 마드라사의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 시기가 오면 마드라사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네 개의 교육단계가 요구되었다. 영적 단계, 지적 단계, 구술단계, 필답단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네 단계를 캘리그래프 학문, 이론과학, 실천과학의 학문분야 속에 녹아들게 했다.

#### 1) 중세 교육철학자 이븐시나의 학교교육의 필요성

11세기 유명한 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이븐 시나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아이들 양육”이란 제목의 저술을 남겼는데, 이에 따르면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개인적 과외보다는 집단생활을 통한 학교교육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그 이유는 경쟁의 가치, 학생상호간의 배려와 섞임, 집단 토론의 유용성 때문으로 보았다. 훨씬 공동체적인 삶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8세가 되면 학교에 보내야 되고, 14세가 될 때까지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꾸란, 이슬람 형이상학, 언어, 문학, 이슬람 윤리, 실천 기술 등을 익혀야 된다고 피력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14세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교양교육을 넘어 자신이 능력과 취향에 맞는 교육의 특화와 전문적인 교육방향을 취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와 선호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중등과정부터는 문학과 설교, 의학과 기하학, 무역과 상업, 공예와 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의 교육 관점으로 보아도 매우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철학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교육방침이 마드라사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이런 영향을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아랍 역사학자 막디시의 저술에서도 보인다. 그는 유럽 대학의 성립과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 무엇보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의 수여 개념 등은 이슬람의 마드라사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 그외에도 대학 교육 문화 측면에서도 유럽에서 잘 알려진 학문분야의 대표교수격인 학과장을 “chair” 로 지칭하는 것도 마드라사에서 교수는 의자에 앉고 학생들이 주변에 둘러앉는 이슬람 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구 대학 문화에서 통용되는 ‘academic circles’ ‘fellows’, ‘reading’ ‘degrees’, 같은 용어의 문화적 배경도 이슬람 마드라사 교육 전통인 “aṣḥāb”

(companions, 예언자 무함마드의 추종자), “qirā’ ah”(reading 큰소리도 꾸란 읽기), “ijāzah”(license 강의 자격증)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취임연설, 학위가운 입기, 학위 디펜스 전통, 대학에서의 상아탑의 자유 개념 등 18개의 서구식 교육용어나 개념이 이슬람 교육제도나 마드라사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마드라사 전통은 주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유럽 지역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그러한 예로 그는 1224년 신성 로마 황제 프레드릭 2세가 세운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이 이슬람 전통을 따른 교육기관으로 꼽았다. 물론 막디시의 이론에 비판을 가하는 유럽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더욱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다.

#### 4.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슬람 세계의 주요 마드라사

이슬람 세계의 마드라사는 많은 국가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으며 국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으로 보존하고 있다.

##### 1)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 모스크(마드라사)

975년에 이집트의 시아파 파티마 왕조의 통치자 이스마일에 의해 카이로에 설립된 이슬람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이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알 아즈하르의 그랜드 몹티라는 최고 종교석학이 ‘파트와’라는 종교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외국인 무슬림 유학생들로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성직자나 대학 교수요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 2) 바그다드의 니자미야 모스크(마드라사)

1091년 셀주크 터키의 재상이었던 니잠 알 몰크에 의해 바그다드에 설립된 중세 세계최대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다드에는 바로 이어서 1233년 압바스 제국 칼리프 알 무스탄시르에 의해 무스탄시리아 대학(Mustansiriya University)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3) 16세기 이란 이스파한 이맘 모스크(마드라사)

##### 4) 9세기 모로코 페즈(마드라사)

##### 5) 11세기 시리아 알레포(마드라사)

##### 6) 9세기 튀니지 카이로완(마드라사)

##### 7) 16세기 터키 이스탄불 술탄이마니예(마드라사 등)

##### 8) 15세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레기스탄 마드라사)

#### 5. 여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드라사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고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사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의 취업이나 사회참여 제한은 물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운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 장관이나 정치인이 등장하고 대학교육에서 여학생

들이 남학생 숫자를 앞지르면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에서 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마드라사 교육에서도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12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 이슬람학자의 숫자는 전체의 1% 미만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부터는 8,000명 이상의 이슬람 여성학자들이 등장한다. 이슬람 학자 알 사카위가 저술한 이슬람 여성학자 전기에는 1,075명의 여성학자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최근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이슬람 연구센터의 모함마드 아크람 나드위가 저술한 40권에 달하는 하디스 여성 연구가 전기에 따르면 8,000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750년 압바스 왕조 시기부터는 여성들의 미모와 지적 능력들이 발휘된 기록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주로 음악, 무용, 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마흐부바(Mahbuba)가 압바스 왕조시기 시와 춤으로 유명했고, 노예 소녀로 칼리프 하룬 알 라쉬드에게 팔려온 타와두드(Tawaddud)는 당시 가장 고매한 학자들의 지식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엘리트 여성이었다. 그녀는 천문학, 의학, 법학, 철학, 음악, 역사, 아랍어 문법, 문학, 신학, 체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해박했으며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졌다. 슈흐다(Shuhda) 또한 이슬람 역사에서 잘 알려진 12세기 여성 학자로서 '여성들의 자존심'이라 불릴 정도로 수도 바그다드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

마드라사 건립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파티마 알 피흐리(Fatima al-Fihri)는 859년 알 카라위인 마드라사를 건립했고, 12~13세기 아유브 왕조시대에는 다마스쿠스에만 160개의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생겨났는데, 그 중 26개가 여성 후원자들에 의해 충당되었다고 한다.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2세기에 오면 여성들이 마드라사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났다. 고위관료들도 자신들의 자제를 마드라사에 보낼 때 딸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렇지만 꾸란이나 법규에는 여성들의 교육차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아랍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풍조는 늘상 존재해 왔다.

## 6. 오스만 제국 시대 마드라사의 역할 변화

이슬람 세계의 마드라사는 전통적으로 부유층이나 권력층들의 기부에 의해 설립되는 교육기관으로 이슬람 법학, 신학, 의학의 세 축으로 발전했으며 와카프라는 재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마드라사 교육기관이 공교육 기관으로 제도화 되면서 오늘의 현대 교육의 초석이 된 것은 600년전 세 대륙을 통치한 오스만 제국시대였다.

오스만 제국 최초의 마드라사는 1331년 이즈니크에 세워졌다. 순니 이슬람 전통을 철저히 준수하던 오스만 제국의 마드라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초빙되었다. 무엇보다 술탄이 직접 설립한 마드라사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몰려들었다. 한 예로 술탄 무라드 2세(Murad II)는 페르시아로 부터 알라딘('Alā' al-Dīn)과 파크르 알 딘(Fakhr al-Dīn)이라는 당대의 석학을 초빙하여 오스만 제국의 마드라사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세 대륙을 통치하는 제국의 잇점을 활용하여 이집트, 중앙아시아, 인도, 스페인, 페르시

아 등지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학문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바로 오스만 제국의 단단한 인문적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나라간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교환학생제도나 기숙교육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마드라사를 설립하는 위치와 교육철학적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모스크와 함께 마드라사를 설치하는 것을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스탄불에 8개의 마드라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모두를 등급화했으며, 8개의 모스크와 함께 배치하도록 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는 종교와 학문, 고등과학과 일반과목, 고위 석학들과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감하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미래 세대를 자극하고 육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오스만 제국시대의 마드라사 등급은 상급에서 하급순으로 네 단계로 나뉘어졌다

- 1)Semniye
- 2)Darulhadis
- 3)부르사 마드라사(부르사 시대 초기 술탄들이 지은 것)
- 4)고위관료 들이 지은 마드라사

오스만 제국시기에도 교육과정의 궁극적임 목표는 이슬람 세계의 일반적인 교육철학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신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중심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 마드라사에서 교습되는 주요 과목이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이슬람 종교관련 교과-신학, 꾸란, 하디스, 샤리아
- 2)이슬람 캘리그래프(서체)
- 3)아랍어, 문법, 음운론
- 4)이슬람 철학과 논리학
- 5)수학, 정치학.

오스만 제국 시대 마드라사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뛰어넘는 사회복지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었다. 교육 의외에도 모스크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종교적 지식을 대중적 삶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가르침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런 정신은 이슬람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마드라사를 운영했던 와카프 재단들이 오늘날 진화하여 많은 아랍국가에서는 종교성으로 발전하여 국가기관이 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 7. 오늘날 마드라사 교육 현황과 미래

물론 마드라사는 18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화 바람이 이슬람 세계에 거세게 밀려오고 거의 모든 이슬람 세계가 서구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과거의 마드라사는 하나씩 서구식 학교로 대체되었고, 고등교육 역할은 서구식 대학이 차지하게 되었다. 학문의 중심을 이루던 이슬람 신학

은 세속적인 서구대학 편제에서 신학대학(Ilahiyat Fakultesi)이란 단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모스크에 부속건물로 존재하던 마드라사는 이제 방과후 아이들이 꾸란이나 아랍어를 배우는 장소로 제한되었다. 이슬람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드라사는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또 다른 시련을 맞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보수적인 아랍국가들이 믿고 있는 과격 이슬람 이념인 와하비즘을 수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마드라사에는 그러한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탈레반을 비롯한 많은 테러전사들이 이러한 마드라사에서 과격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오늘날 마드라사는 반미, 반서구 이념 교육장, 테러리스트 양성소로 서구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İnalçık, Halil. 1973. "Learning, the Medrese, and the Ulema." In *The Ottoman Empire: The Classical Age 1300–1600*. New York: Praeger, pp. 165–178.

Esposito, John, 2003.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Oxford University Press.

Kettani, M. Ali. 1974,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Arab World*. *Middle East Journal*,

Jonathan Berkey, 1992,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in Medieval Cair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ra Lapidus, 1984, *Muslim Cities in the Later Middle 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rew J. Coulson, 2008, *Delivering Education* (PDF), Hoover Institution

Asimov, Clifford Edmund Bosworth, 1999, *The Age of Achievement: Vol 4, Motilal Banarsidass*

M. S. Asimov, Clifford Edmund Bosworth, 1999, *The Age of Achievement: Vol 4, Motilal Banarsidass*

Alatas, Syed Farid, 2006, *From Jamiyah to University: Multiculturalism and Christian–Muslim Dialogue*, *Current Sociology* 54 (1): 112–132 [122],

George Makdisi, 1970, "Madrasa and University in the Middle Ages", *Studia Islamica*, No. 32

Gibb, H. A. R. (1970), "The University in the Arab–Moslem World", in Bradby,

Daniel, Norman (1984). "Review of "The Rise of Colleges. Institutions of Learning in Islam and the West by George Makdisi".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Rüegg, Walter: 1992, "Foreword. The University as a European Institution", in: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dersen, J.; Rahman, Munibur; Hillenbrand, R, 2010, "Madrasa." *Encyclopaedia of Islam*, Second Edition.

Nahar, Sunita (2006). "What role for madrassas that teach Hindus?". *BBC News*.

Ali, Saleem H. 2009, "Islam and Education: Conflict and Conformity in Pakistan's Madrassas",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Alexander. 2006, "Understanding Madrasahs", *Foreign Affairs*, Jan/Feb 2006.

Ziad, Waleed. "Madaris in Perspective" at the Wayback Machine (archived October 27, 2009).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주제발표3

## Them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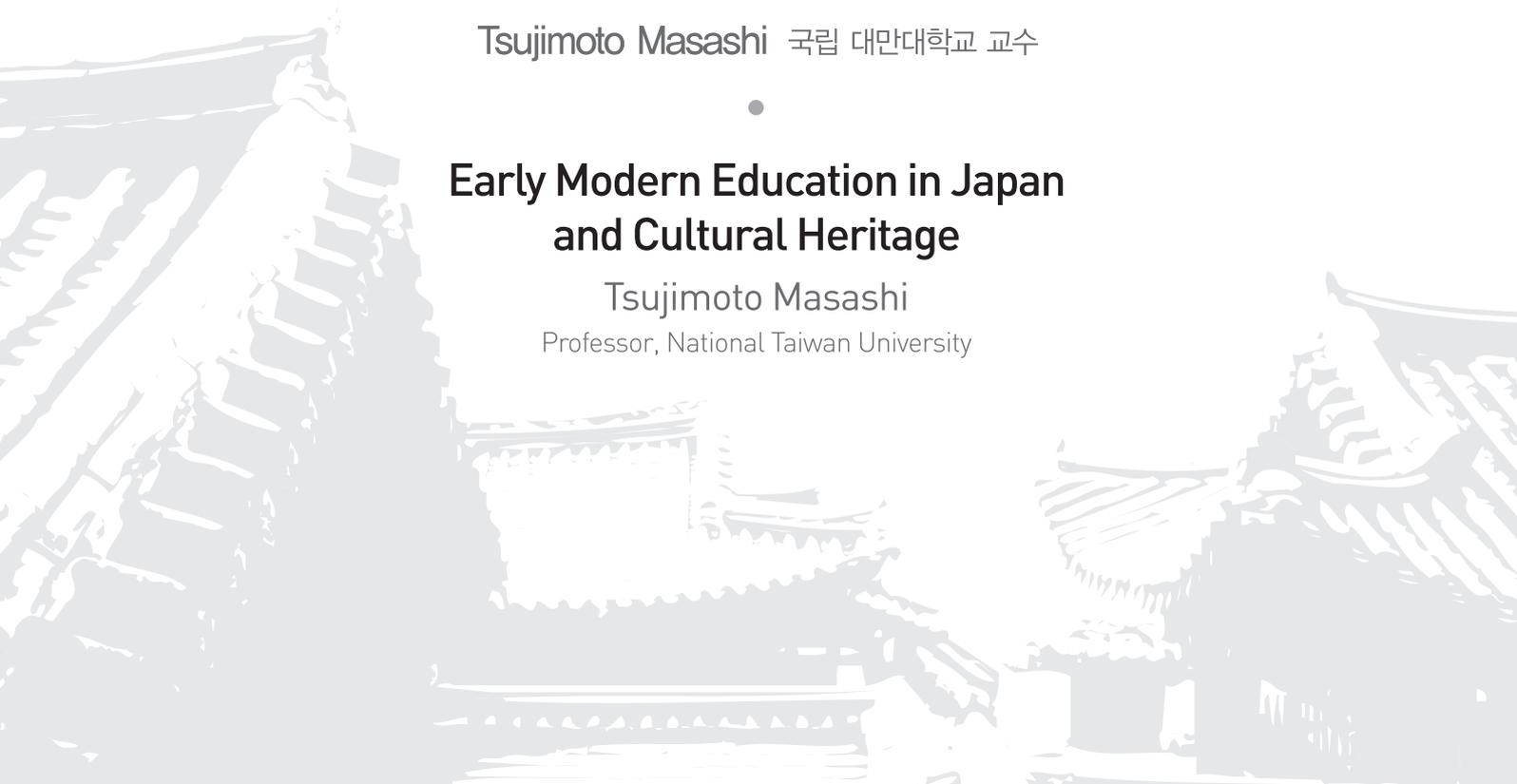
###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Tsujimoto Masashi 국립 대만대학교 교수

### Early Modern Education in Japan and Cultural Heritage

Tsujimoto Masashi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ersity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日本近世教育と文化遺産

辻本雅史 国立台湾大学、京都大学名誉教授

日本では、教育の歴史的な文化資産を「世界文化遺産」に登録しようとする2つの動きがある。一つは旧水戸藩の藩校・弘道館と足利市の中世以来の足利学校と日田市の私塾咸宜園が連携した動き。いま一つは、備前市の近世郷学・閑谷学校の単独による動きである。現状ではいずれも、文化庁の「暫定リスト」掲載以前の段階で、実現には程遠い。本報告は、現在準備中の教育資産を紹介し、「近世日本の教育資産」がもつ「顕著な普遍的価値」(Outstanding Universal Value)について考察する。

日本の近世(1600-1868)は兵農分離の「文字社会」で、一定の民衆の子どもに教育を不可欠とする「教育社会」であった。そのため民衆に文字学習が浸透し商業出版が普及し、子どもが学ぶ場とそこで教える職業教師が広範に生れ、寺子屋、学問塾(私塾)、郷学、藩校が普及していった。この学校を支えたのは東アジアに共有されていた儒学であった。

藩校は主に武士支配層の教育機関であったが、学問塾や郷学は上層民衆が積極的に学んだ学校である。日本近世は科挙制度を欠いていたが、武士や庶民が儒学学習に向かったのは、儒学を知的活動の文化資源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と想定される。上層民衆は、宗教ではなく、儒学学習(つまり自力)によって直面する諸課題に立ち向かったのである。

旧水戸藩藩校弘道館は、幕末の日本最大の藩校、足利学校は中世以来の長い歴史を誇る学校、日田の咸宜園は幕末に優秀な学生を輩出した代表的な儒学塾である、いずれも「代表性・包括性」がある。しかしいずれも現存文化資産は少なく、多くは復元された資産であるため、「真実性・完全性」の点に問題を残す。それに対して閑谷学校は、近代に至るまで地域の教育を担ってきただけでなく、講堂(国宝)など300年以上の前の極めて上質な建築物がほぼ完全に現存し、その保存管理体制もほぼ完璧に維持されており、「真実性・完全性」を満たす。加えて地域内外の民衆と武士層の教育も担ってきた点で、近世教育の「代表性・包括性」も具えている。日本的特質を示す一方、中国や朝鮮の書院との共通点も少なくない。

世界文化遺産としては、人類史の中での普遍的価値(価値)が問われることになる。①儒学は東アジア諸地域で古典(経書)を共有することで広域の思想と文化の交流圏を形成していた。②儒学は高度な知的活動の源泉で、古典解釈を通じた思想革新を繰り返してきた。③儒学学習は、政治的・道徳的主体形成と社会秩序の維持、換言すれば普遍的な人間形成を可能とした。さらに④身心一元論にもとづく儒学は、近代学校(近代の知)の心身二元論の「科学モデル」と異なり、人間形成と知の形成、および「知」と「行」(実践)を不可分とらえる人間観・教育観を有する。現代の学校教育は、高度メディア社会の中で人間の関係性と自然環境との関係性の変質に苦しんでいる。東アジアの教育伝統は、こうした現代教育に関わる諸問題を克服する新たな方向性を示唆できる点で、現代的な意義は小さくない

#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츠지모토 마사후미 국립 대만대학, 교토대학 명예교수

일본에서는 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 하나는 옛 미토번(水戸藩)의 한코(藩校)인 고도칸(弘道館)과 아시카가(足利)시의 중세시대부터 이어온 아시카가(足利)학교 그리고 히타(日田)시의 시주쿠(私塾)인 간기엔(咸宜園)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젠(備前)시의 근세 고가쿠(郷学)인 시즈타니(閑谷)학교 단독의 움직임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두 문화청의 「잠정목록」게재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등재는 요원하다. 본 보고는 현재 준비 중인 교육자산을 소개하고 「근세 일본의 교육자산」이 갖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대해 고찰했다.

일본의 근세(1600-1868)는 병농 분리의 「문자 사회」이었으며 일부 평민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필수 사항이었던 「교육 사회」였다. 이 때문에 일반 평민들에게 문자 학습이 침투하고, 상업출판이 보급되고, 어린이가 학습하는 장과 그 곳에서 가르치는 직업 교사가 광범위하게 탄생하고, 데라고야(寺子屋)·학문 주쿠(学問塾(시주쿠私塾))·고가쿠(郷学)·한코(藩校) 등이 등장했다. 이들 학교를 지탱한 것은 동아시아 공통의 유학이었다. 한코(藩校)는 주로 무사지배층의 교육기관이었는데 학문 주쿠(学問塾)나 고가쿠(郷学)는 상층 평민이 적극적으로 수학했던 학교였다. 일본의 근세시대에는 과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나 서민이 유학을 학습한 것은 유학을 지적 활동의 문화자산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상층 평민은 종교가 아니라 유학 학습(즉 스스로의 힘)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맞선 것이다.

옛 미토번의한코(藩校) 고도칸(弘道館)은 막부 말기 일본 최대의 한코(藩校)이고, 아시카가(足利)학교는 중세부터 이어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히타의 간기엔(咸宜園)은 막부 말기에 우수한 학생을 배출한 대표적인 유학 주쿠(儒学塾)이다. 모두 「대표성·포괄성」이 있다. 그러나 모두 현존하는 문화자산은 적고 대부분이 복원된 자산이기 때문에 「진정성·완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시즈타니(閑谷)학교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교육을 담당해왔을 뿐 아니라 강당(국보)등 300년 이상 보존된 아주 높은 품질의 건축물이 거의 완벽하게 현존하며 보존관리체제도 거의 완벽하게 유지되어있어서 「진정성·완전성」을 충족시킨다. 덧붙여 지역 내외의 평민과 무사층의 교육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근세교육의 「대표성·포괄성」도 갖추고 있다. 일본적 특징을 나타내는 한편 중국이나 한국의 서원과 공통점이 적지 않다.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역사 속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① 유학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고전(경서)를 공유함으로써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사상과 문화 교류권을 형성해왔다. ② 유학은 고도의 지적활동의 원천이며 고전 해석을 통한 사상혁신을 되풀이해왔다. ③ 유학

학습은 정치적 도덕적 주체형성과 사회질서의 유지, 바꿔 말하자면 보편적 인간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④ 신심(身心)일원론에 입각한 유교는 근대학교(근대의 知)의 심신(心身)이원론의「과학 모델」과는 달리 인간형성과 知의 형성 및 「지(知)」와「행(行)」(실천)을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으로 보는 인간관·교육관을 가진다. 현대 학교 교육은 고도 미디어 사회 속에서 인간의 관계성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의 변질에 고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교육전통은 이런 현대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의의는 적지 않다.

# Early Modern Education in Japan and Cultural Heritage

Tsujimoto Masashi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 Japan, there are two attempts to register the historical cultural assets of educa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e of them is the corporative approach taken by Kodokan, Han School of the former Mito Domain, Ashikaga Gakko from the medieval times of Ashikaga city, and Kangien Private School of Hita city. The other is an independent approach taken by Shizutani School, an early modern village school of Bizen city. Currently, neither of them is close to realization since the Cultural Affairs Agency has not even listed them in its “temporary list.” This report introduces the educational assets that are now in preparation and examine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educational assets of early modern Japan.”

Japan in its early modern period (1600-1868) was a “literate society” due to the policy of *Heinobunri* (separation of samurai and peasants) and was an “educational society” where education was essential to common children of certain class. Therefore, literacy education became prevalent in common people's lives and commercial publication grew popular. Educational institutes for children and professional teachers increased, and *Terakoya* (temple schools), academies (private schools), village schools, and Han schools grew popular. What supported these schools was Confucianism which was common in East Asia.

Han schools were educational institutions mainly for the samurai (warrior) class but academies and village schools were schools where common people of upper quartile pursued their learning eagerly. Although early modern Japan did not adopt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it is assumed that samurai and common people learned Confucianism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an intellectual activity and a cultural asset. Common people of upper quartile stood up to various issues not with religion but with teaching of Confucianism (in short, their own effort).

Kodokan, Han school of the former Mito Domain was the biggest Han school in Japan in the end of Edo period. Ashikaga Gakko is Japan's oldest academic institute since the medieval times. Kangien Private School of Hita cit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ols that produced the nation's best and the brightest students at the end of Edo period. Therefore, all three schools share “representative and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However, there are issues in term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since they preserve few existing cultural assets and many of its assets have been restored. Shizutani School, on the other hand, has not only taken

the central role in education in local community up to the late modern period but has also preserved its architectural structures of high quality such as the auditorium (national treasure of Japan) for more than 300 years in a near-perfect condition and has almost completely maintained its conservat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refore fulfills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Furthermore, since Shizutani School took a central role in educating common people and samurai from within and without the district, it fulfills the necessary conditions of “representativ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education in early modern period. Along with its Japanese characteristic, it shares common grounds with Academies in China and Korea.

Its Universal Value within human history must be evaluated in order to b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1) Confucianism has created a wide communion of thoughts and culture in East Asia through the Classics (Templates). (2) Confucianism has been a source of high intellectual activiti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Classics have repeatedly created innovation of thoughts. (3) Confucianism has enabled formation of political and moral subject and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at is, formation of universal human character. Furthermore, (4) Confucianism is based on monism of mind and body and its view of human beings and view of education consider character building and knowledge building, and “knowledge” and “deed”(practice) as indivisible unlike modern schools (modern knowledge) which is based on dualism of mind and body. Modern school education, in this advanced media society, faces difficulties due to transformation of human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al East Asian education is that it can indicate new direction to overcome such issues of modern education.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Paper





# 日本近世教育と文化遺産

辻本雅史 国立台湾大学、京都大学名誉教授

■日本には現在、「世界文化遺産」は14件  
(自然遺産は4件)

■日本国内の世界遺産への申請

○文化庁管轄(文部科学省外局で文化行政担当、日本ユネスコ国内委員会)

A.「世界遺産暫定一覧表記載文化資産」(11件)⇒ユネスコに推薦予定リスト

⇒ICOMOS(国際記念物遺跡会議)＝評価・勧告⇒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決定

B.「世界遺産暫定一覧表候補の文化資産」(暫定リスト入り目指して準備中の資産リスト)

○「日本近世の教育資産」(仮称)準備状況

I. 公募(2007年、各自治体が個別に申請)

①茨城県水戸市;水戸藩の学問・教育遺産群⇒水戸藩弘道館(藩校)

②栃木県足利市:足利学校と足利氏の遺産⇒足利学校(中世の学校)

③岡山県備前市:近世岡山の文化・土木遺産群⇒閑谷学校(近世郷学)

※文化庁の委員会で検討＝助言(2008年)

⇒①～③は「近世の教育資産」という主題で、顕著な普遍的価値を証明し得る可能性について検討すべきもの

II. 近世の教育資産(学校)の検討

①水戸市の弘道館(藩校)＋足利市の足利学校＋日田市の咸宜園(私塾)

②閑谷学校(近世郷学、岡山県備前市)

■日本近世儒学の特質

※日本は科挙採用せず(儒学が制度化されず)

⇒儒学学習の社会的意味が、科挙をもつ東アジア儒教圏と異なる位相にある

※日本的特質:①武士の儒学学習本格化(藩校)は近世最後の100年間だけ

②儒学が武士支配層に限らず、市民民衆層に浸透＝「学問する民衆」

③制度上の制約ない:自由で多様な思想展開(知的思考の素材としての儒学)、塾と郷学

■日本近世の学校

1:幕府(中央政府)昌平黌(昌平坂学問所、湯島聖堂)

\* 1630:尾張藩主徳川義直が孔子廟寄進⇒林家家塾

\* 1690:(将軍綱吉)神田湯島に孔子廟移築、講堂/学寮整備＝林家塾と一体

\* 寛政期(18世紀末):昌平坂学問所(幕府直轄学校):朱子学「正学」化＝官学化(試験⇒学問の制度化)⇒幕臣教育本格化、諸藩武士入学も許可⇒中央政府の大学

2:藩校:藩内武士への儒学教育(儒学以外の学問教育のあり)250校以上  
18世紀後半以後に本格化

※朝鮮時代の「郷校」に近いか？

3:郷学:本義は郷(むら)に設立の学校、内実多様－儒学教育は共通、公的性格

①藩校の分校的(在郷藩士、陪臣、上層庶民、ex.閑谷学校)

②民衆教化、教諭所:美作の典学館など

③民衆有志による自己学習の学校:含翠堂、懐徳堂、越後の朝陽館、後期の閑谷学校  
「好学有志共同の学舎」(入江宏)

④維新前後、町村単位で設立学校:堺の郷学校、愛知の義校、京都の番組小学校

4:学問塾(私塾)＝儒学塾:儒者の私的な学問と教育の活動

古義堂(伊藤仁斎とその子孫)、藤樹書院、護園塾(徂徠)、咸宜園(広瀬淡窓)、松下村塾(吉田松陰)、……

※儒学にもとづく私的で自由な教育活動:新たな創造的思想は学問塾から生成

※朝鮮時代の書院、中国書院に近いか？

5:手習塾(寺子屋)

民衆の日常生活に必要な文字と算数の学習の場(読み書き算数:手習師匠と子ども)

日本近世は「文字社会」、列島内に広範に分布、原則として学問(儒学)は教えない

## ■現在申請準備中の日本近世の教育資産について

1. 弘道館(水戸藩藩校):茨城県水戸市、国の特別史跡

・幕末1841年開設(藩主徳川斉昭):289藩校中最大規模⇒以後の藩校のモデル

・「弘道館記」(徳川斉昭撰、教育理念)－藤田東湖『弘道館記述義』(弘道館記の解説書)

・後期水戸学による武士教育(後期水戸学とは、日本的に解釈された儒学とくに『古事記』『日本書紀』を儒学的に解釈。幕末の内憂外患の危機のなか、尊王攘夷の政治思想を強調、日本中心主義の国家論の展開、会沢正志斎『新論』はその理論書

⇒幕末、全国の武士に強烈な影響、明治維新の一つの思想的源流

(近世教育資産として「代表性」があるか疑問:後期水戸学は特異な儒学、幕末の短期間のみの藩校)

・弘道館内の現存の正庁・至善堂・正門＝国の重要文化財指定

(正庁・至善堂は藩主や重臣のための施設で学生教育の場ではない)

※幕末維新期の藩内政治闘争の中で弘道館の主要施設が破壊⇒復元施設が多い

「真正性」に疑問

## 2. 足利学校(下野国=栃木県足利市)、国の史跡

- ・中世の最大の学校、14c末-15c初期成立、足利氏の菩提寺を中心に学習活動(学生たちが集まりギルド的学習自治)、上杉憲実(関東管領)が1439年本格的学校に整備
- ・「坂東の大学」:易学,儒学,医学,兵学、仏教など最も高度な学問と教育-全国から学生多数(僧侶・武士・儒者ら)
- ・16世紀、イエズス会宣教師たちが本国に書き送った報告書に再三言及
- ・各時代の領主の保護を受け受け明治初期まで継続。
- ・国史跡「足利学校跡」、聖堂=大成殿は1668年幕府の援助でつくられた。現在の遺跡は大半が1990年代の復元(真正性に疑問)
- ・近世江戸時代の幕府の保護はあったが教育機関としては機能していない-「近世教育の文化遺産」とは言うのは困難

## 3. 咸宜園(豊後・大分県日田市)、国の史跡

- ・最大規模の近世儒学塾(私塾)
- ・1805年儒者広瀬淡窓が始めた私塾(学問塾)、三奪法(身分・学歴・年齢)=学力主義と競争主義を徹底(月旦表:成績序列表、無級~9級(上下入れると19等級))
- ・旭窓-青邨-林外と継承1897年まで。学生は淡窓時代3000人、併せて4500人という
- ・現存建築物=秋風庵と遠思楼のみ、大半は復元遺跡(真正性に難点)

## 4. 閑谷学校(岡山県備前市、郷学)

- ①国の特別史跡、講堂は国宝(国宝指定の教育施設としては日本で唯一)、その他の(小斎・習芸斎・飲室・文庫・公門、聖廟・閑谷神社[芳烈祀]・石堀など24棟)大半の建築物が国の重要文化財。加えて周辺の火除山・泮池・椿山・黄葉亭・津田永忠宅跡・石門など含めて国の特別史跡。蔵書・資料典籍などがほぼ現状保存。国の重要文化財指定。
- ②建築物大半が300年前の建設時のままほぼ完全現存する稀有な学校。施設、環境が良好な保存は偶然ではなく、周到的配慮と関係者のたゆまぬ努力の結果
- ③岡山藩主池田光政がその腹心の津田永忠に命じて、武士と上層民衆対象に朱子学教授、講堂に「白鹿洞書院掲示」を掲額(中国、朝鮮の書院に共通)
- ④光政は、儒学的仁政の理想実現を目指す。その方法として「学校」の普及を図った⇒儒学を、仁政を共に担う武士および民政官(農民指導者層)と共有するために、武士のための藩校(1666年開設)開設し、農民指導者層の学習施設として手習所(123か所)を設立、儒学教育の徹底を期した⇒手習所は民衆層の支持を得られず失敗⇒学校による仁政の実現を諦めず、閑谷学校建設へ向かった。
- ⑤18世紀後半期以後、閑谷学校は地域の教育機関として活性化していった。つまり民衆指導層は自ら学ぶ学校として活用し、その結果、閑谷学校での学習活動が盛況。学生は、地域の民衆指導層と地方の武士層、加えて希望の他藩の武士たちにも入学を容認。

⑥閑谷学校では、儒学の基礎教育(素読や講釈)の他、儒者育成の本格的な学問学習も可能であり、全国的に著名となった農民出身の儒者文人や閑谷学校教授も輩出した。

⑦閑谷学校は全国の儒者文人たちの憧憬の対象となり、全国諸藩から、学校に関する問い合わせや情報提供が求められ、各地の学校建設の参考に供されていた。

閑谷学校を訪問する儒者文人も少なくなかった。

⑧1670年建設着手、1701年完成—明治3年1870年閉校—1873年山田方谷(備中高松の陽明学者)招聘し閑谷精舎再興—私立閑谷中学校—岡山県閑谷中学校—県立和気閑谷高等学校(戦後)として現在に至る。現代まで、地域住民が支えた稀有な学校。

⑨閑谷学校は、中国書院の4要素(講学、蔵書、祭祀、学田)を具備する点で、東アジア共通の書院の特質をもつ。

※独自の日本の特質もあり:建築物、祭祀、庶民+武士+他藩への開放など、学生層が中国の士大夫層、韓国の士林=両班士族と階層的に異なる。

※その背景に、日本近世における「学問する民衆層」が一定数の厚みで存在していた。

■日本近世教育資産の顕著な普遍的価値(Outstanding Universal Value)は何か。

(代表性・包括性、真実性・完全性、適切な保存管理体制)

## 1. 世界性、国際性

日本あるいは東アジアだけで意味があるのではなく、人類史の中での意味(普遍的価値=価値)をどのように見出していくのか。

①儒学思想の普遍的意味=封建的旧思想と考えるのではなく、国家を越えて経書=古典を共有し、一定の文化と思想の交流圏を構成していた。

②儒学を通じた政治主体、道徳主体の形成がなされ、儒学的価値を共有することで社会秩序の維持が可能であった。要するに普遍的な人間形成を可能とした。

③儒学は高度な知的活動の源泉で、中国古代の古典を習得・解釈することで、常に新たな思想的革新を進めてきた事実がある。

## 2. 現代的意味

①近代学校に代表される近代の教育は、西洋近代に見出された近代の知にもとづく。それは心身二元論にもとづく「科学モデル」である。すなわち測定(言語化)可能な一義的概念と論理によって構築され、教科に分節化した知識体系である

②国民国家の中での「国民」の育成、産業化=資本主義化を担っていく指導者と労働者の育成、民主主義を担っていく市民(社会の構成員)⇒心の問題(道徳、人間形成)と学校の教科学習が分離⇒心身二元=身体性の疎外

③近代学校教育の行き詰まり(高度メディア社会=人間の関係性の変質、身体性と自然性=全体的超越的世界の喪失など)を新たに克服していく方向性を示唆できる。

以下、辻本雅史「閑谷学校に込められた思想と教育」(備前市教育委員会編『学びの原郷「閑谷学校」』未刊)からの抄録

### ■ 近世郷学としての閑谷学校

閑谷学校入学生を中心は村役人層の子弟であったが、武士子弟も受け入れ、他国者にも門戸を開いていた。行政上では藩校の学校奉行の差配下にあり、当初は藩校教授の出向も多く、教育内容と方法もほぼ藩校に準ずるものであった。

閑谷学校が活性化したのは、明和期(18世紀後半)以降であり、19世紀前期に全盛期を迎えた。藩校が全国的に普及し武士の教育が重視されてきた動向と、軌を一にしている。重要なことは、閑谷学校の活動を中心的に担ったのが地域の村役人層であったことである。なかでも和気郡働村大庄屋の有吉和介ら有吉家3人と北方村大庄屋の武元君立は、閑谷学校で学び、後にその教授役を中心的に担った人たちであった。ちなみに君立の兄、武元登々庵もここで学んだ後、漢詩人・書家・医師として全国的に知られた著名な文人であった。

こうした村役人層の学問は、1780年代始まった「天神講」という地域民たちによる自発的な学習活動と深く関わっていた。それは閑谷学校学生を講師にした民衆の経書学習会であり周辺にも広がった。地域社会の課題を、仏教信仰に依るのではなく、自ら学ぶことによって乗り越えていこうとする民衆指導層の内発的な学びであった。民衆指導者層のこうした学習意欲が、閑谷学校を活性化させた。とすれば、光政が1世紀前に「学ぶ民衆」を政策的に創出しようとした理想が、1世紀近く後のこの段階で開花したとみられる。閑谷学校が彼らの学習意欲の受け皿となったことは疑いない。1871年まで閑谷学校は存続したが、それは地域の教育機関として機能し続けたことを意味していよう。(すぐ後に復活)

民衆が自らの学びのために開設・運営した学校を「郷学」という。入江宏は「好学有志教導の学舎」の在り方に「近世的公共性」を見出し、そこに近世郷学の本質を見出した。1720年代、大坂近郊の含翠堂(摂津平野)や大坂の懐徳堂にその先駆があるが、1780年代、越後(新潟県)の農村で上層農民有志が儒者を招いて開校した朝陽館に、郷学の典型を見出した(入江宏2011「郷学論」、高木靖文ら編『近世日本における「学び」の時間と空間』溪水社)。閑谷学校の主体的な担い手は学習意欲のある地域民衆指導層であり、しかも閑谷学校は士庶や外部に開かれた学問所であった。その意味で、閑谷学校は「近世的公共性」を具えた郷学だった。

生活に根差した自らの課題を、学びによって自ら克服する意欲が閑谷学校の教育をささえていたとすれば、そこに教育の普遍的性格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教育とは本来、人間としての自らを高めていく営みであるのだから。その点で、18世紀半ば以降、全国的に普及した藩校が、一種の政治の方法であったのとは異なっていた。

### ■ 閑谷学校の教育

光政は当初、中江藤樹－熊沢蕃山の「心学」を受容したが、後年に次第に朱子学に傾斜していった。藩の学校は朱子学を自覚的に採用し、閑谷学校もそれに準じて「純粹朱説」を掲げ(講堂

以下、辻本雅史「閑谷学校に込められた思想と教育」(備前市教育委員会編『学びの原郷「閑谷学校」』未刊)からの抄録

### ■近世郷学としての閑谷学校

閑谷学校入学生を中心は村役人層の子弟であったが、武士子弟も受け入れ、他国者にも門戸を開いていた。行政上では藩校の学校奉行の差配下にあり、当初は藩校教授の出向も多く、教育内容と方法もほぼ藩校に準ずるものであった。

閑谷学校が活性化したのは、明和期(18世紀後半)以降であり、19世紀前期に全盛期を迎えた。藩校が全国的に普及し武士の教育が重視されてきた動向と、軌を一にしている。重要なことは、閑谷学校の活動を中心的に担ったのが地域の村役人層であったことである。なかでも和気郡働村大庄屋の有吉和介ら有吉家3人と北方村大庄屋の武元君立は、閑谷学校で学び、後にその教授役を中心的に担った人たちであった。ちなみに君立の兄、武元登々庵もここで学んだ後、漢詩人・書家・医師として全国的に知られた著名な文人であった。

こうした村役人層の学問は、1780年代始まった「天神講」という地域民たちによる自発的な学習活動と深く関わっていた。それは閑谷学校学生を講師にした民衆の経書学習会であり周辺にも広がった。地域社会の課題を、仏教信仰に依るのではなく、自ら学ぶことによって乗り越えていこうとする民衆指導層の内発的な学びであった。民衆指導者層のこうした学習意欲が、閑谷学校を活性化させた。とすれば、光政が1世紀前に「学ぶ民衆」を政策的に創出しようとした理想が、1世紀近く後のこの段階で開花したとみられる。閑谷学校が彼らの学習意欲の受け皿となったことは疑いない。1871年まで閑谷学校は存続したが、それは地域の教育機関として機能し続けたことを意味していよう。(すぐ後に復活)

民衆が自らの学びのために開設・運営した学校を「郷学」という。入江宏は「好学有志教導の学舎」の在り方に「近世的公共性」を見出し、そこに近世郷学の本質を見出した。1720年代、大坂近郊の含翠堂(摂津平野)や大坂の懐徳堂にその先駆があるが、1780年代、越後(新潟県)の農村で上層農民有志が儒者を招いて開校した朝陽館に、郷学の典型を見出した(入江宏2011「郷学論」、高木靖文ら編『近世日本における「学び」の時間と空間』溪水社)。閑谷学校の主体的な担い手は学習意欲のある地域民衆指導層であり、しかも閑谷学校は士庶や外部に開かれた学問所であった。その意味で、閑谷学校は「近世的公共性」を具えた郷学だった。

生活に根差した自らの課題を、学びによって自ら克服する意欲が閑谷学校の教育をささえていたとすれば、そこに教育の普遍的性格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教育とは本来、人間としての自らを高めていく営みであるのだから。その点で、18世紀半ば以降、全国的に普及した藩校が、一種の政治の方法であったのとは異なっていた。

### ■閑谷学校の教育

光政は当初、中江藤樹－熊沢蕃山の「心学」を受容したが、後年に次第に朱子学に傾斜していった。藩の学校は朱子学を自覚的に採用し、閑谷学校もそれに準じて「純粹朱説」を掲げ(講堂

近代学習観からみれば、素読は子どもの発達段階を無視した非教育的な学習法に見える。しかし素読不要論を説いた儒者は皆無であった。近世開設の250近い藩校の大半は、社会的な混乱期、改革が不可避の18世紀後期以降であった。危機を乗り越える官僚養成のために、武士に儒学学習が要求された。儒学を不要とした藩校は皆無であった。中国古代古典漢籍の素読とその解釈に終始する儒学教育は、切実な政治課題に応えるものではない。すぐには何も役立たない、余りにも迂遠な学習であるとみえる。

もとより儒学は実用的な知識や技術のための学問ではない。経書の漢文言語と概念によって知的に思考し、実践していく学問であった。それは人間形成・思想形成の学でもあった。日々の実践や困難な局面に直面したとき、「身につけた」聖人の言語と概念にもとづいて的確に判断できる人間主体の形成が、期待されていた。要するに現実の課題を背負って実践する、強い責任主体の形成が儒学教育の目指すところであった。幕末維新の激動期を主導した政治主体は、こうした儒学で思想形成した人たちであった。

儒学教育では「身体化する学び」が重要であったが、実は「学びにおける身体化」は儒学にとどまらない。流麗な文字を書くわざを「身につける」手習い学習も、やはり身体を通した学びにほかならない。身体に身に付けた知こそ自ら活用でき、それが人間の内面形成、人間形成につながると考える、それが近世の学習観であった。幼児期の「しつけ」教育も、身体を通した人間形成の教育であった。

身体は自らがもつ最も身近な「自然」である。あるいは身体を通して、人は環境—他者や大自然と接して生きている。「身体を通した学び」とは、感性や心性をもつ生身の身体を、学びの中に組み込んだ人間形成の過程でもある。

近代の学校教育は、この学びの身体性を削ぎ落とした。近代学校教育は、人間知性が論理化できない世界を排除し、近代科学をモデルとした知によって基礎づけられている。他方、儒学の教育は、この近代学校とは異質な知と人間観・世界観で構成されていた。その分、東アジアの儒学教育からの視点は、現代の世界を覆っている近代教育の特質を明確に浮き彫りにしてくる。身分と年齢と地域を超えて、政治と繋がりながらも、民衆自身が主体となって、長年継続してきた閑谷学校や韓国の書院の教育の在り方は、近代学校のこれからを考えるために欠かせない、重要な視点を開いてくる。

東アジアの伝統的な儒学教育の意味を、いま改めて再検討することは、現代の世界標準化した近代学校教育を相対化する視点を獲得することを可能とする。高度情報化社会に伴う現代の子どもたちの教育の病理的現象は、日本に限らず、韓国も含めた世界的問題である。儒教教育を復興すれば解決できるとは思わないが、少なくともそれらを批判する視座は提供でき、問題の所在を指摘することはできる。現代の学校教育を考えるためにも、東アジアの儒学の教育に注目する意味がある。東アジアの歴史的教育文化遺産がもつ「顕著な普遍的価値」は、その視点からも見出せる。

#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츠치모토 마사후미 국립 대만대학, 교토대학 명예교수

## ■ 일본에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14건(자연유산 4건)

## ■ 일본 국내의 세계유산 신청

○문화청 관할(문부과학성 외국(外局)에서 문화행정 담당,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A.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기재 문화자산」 11건 ⇒ 유네스코에 추천 예정인 리스트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회의) = 평가 · 권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B.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문화자산」(잠정목록으로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인 자산 리스트)

○ 「일본 근세의 교육자산」(가칭) 준비상황

I. 공모(2007년,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신청)

① 이바라기현 미토시 ; 미토번(藩)의 학문 · 교육유산 군(群) ⇒ 미토번 고도칸(弘道館)

(한코(藩校) : 번이 설립한 교육기관)

② 이바라기현 아시카가시 : 아시카가(足利)학교와 아시카가 문중의 유산 ⇒ 아시카가 학교(중세의 학교)

③ 오카야마현 비젠시 : 근세 오카야마의 문화 · 토목유산 군(群) ⇒ 시즈타니(閑谷)학교(근세 고가쿠(郷学) : 일반서민도 입학 가능한 번이 인가한 교육기관.)

※ 문화청의 위원회에서 검토 = 조언(2008년)

⇒ ①~③은 「근세의 교육자산」이라는 주제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II. 근세의 교육자산(학교) 검토

① 미토시의 고도칸(弘道館)(한코(藩校)) + 아시카가시의 아시카가 학교 + 히타시의 간기엔(咸宜園)(시주쿠(私塾) : 민간교육기관)

② 시즈타니(閑谷) 학교(근세 고가쿠(郷学), 오카야마현 비젠시)

## ■ 일본 근세 유학의 특징

※ 일본은 과거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유학이 제도화되지 않음)

⇒ 유학 학습의 사회적 의미가 과거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과 다르다.

※ 일본적 특징 : ① 무사의 유학 학습 본격화(한코(藩校))는 근세 말기 100년만

- ②유학이 무사지배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서민층에 침투=「학문하는 민중」
- ③제도 상의 제약이 없다 : 자유롭고 다양한 사상 전개(지적 사고의 소재로서의 유학), 주쿠(塾)와 고가쿠(郷学)

## ■ 일본 근세 학교

- 1 : 막부(중앙정부) 쇼헤이코(昌平黌)(쇼헤이자카(昌平坂)학문소, 유시마(湯島)성당)
  - \* 1630 : 오와리 번주인 도쿠가와 요시나오가 공자 사당(廟)을 기부⇒하야시케 카주쿠(林家塾)
  - \* 1690 : (쇼군 츠나요시)간다 유시마에 공자 사당 이전, 강당/기숙사 정비=하야시케주쿠(林家塾)와 통합
  - \* 간세이(寛政)기(18세기 말) : 쇼헤이자카(昌平坂)학문소(막부의 직접관할 학교) : 주자학「정학(正学)」화= 관학화(官学化)(시험⇒학문의 제도화) ⇒ 바쿠신(幕臣)교육 본격화, 각 번의 무사 입학도 허가⇒중앙정부의 대학
- 2 : 한코(藩校) : 번(藩) 소속 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 교육(유학 이외의 학문교육도 있음) 250교 이상. 18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화
  - ※조선시대의 「향교(郷校)」에 가까운가?
- 3 : 고가쿠(郷学) : 본래 의미는 郷(마을)에 설립한 학교. 실제 내부 사정은 다양함—유학 교육은 공통으로 이뤄짐. 공적 성격.
  - ①한코(藩校)의 분교적 성격(재향 한시(藩士·번 소속 무사), 바이신(陪臣·가신의 신하), 상급 서민, ex. 시즈타니 학교)
  - ②민중교화, 교육의 장(教諭所) : 미마사카(美作)의 덴가쿠칸(典学館) 등
  - ③民衆有志에 의한 자기학습의 학교 : 간스이도(含翠堂), 가이토쿠도(懷徳堂), 에치고(越後)의 죠요칸(朝陽館), 후기의 시즈타니(閑谷)학교  
「호학유지 공동의 학사(好学有志共同の学舎)」(이리에 히로시(入江宏))
  - ④유신 전후, 작은 마을 단위로 설립된 학교 : 사카이의 고각코(郷学校), 아이치의 (기코)義校, 교토의 반구미(番組)소학교
- 4 : 학문 주쿠(시주쿠)(学問塾(私塾)) = 유학 주쿠(儒学塾) : 유생들의 사적인 학문과 교육활동  
고기도(古義堂/이토 진사이와 그 자손), 도주(藤樹)서원, 겐엔주쿠(護園塾/소라이), 간기엔(咸宜園/히로세 탄소), 쇼카손주쿠(松下村塾/요시다 쇼인)....  
※유학에 기반을 둔 사적이고 자유로운 교육활동 : 새로운 창조적 사상은 학문 주쿠(学問塾)에서 형성됨.  
※조선시대의 서원, 중국서원과 비슷한지?
- 5 : 테나라이주쿠(手習塾)(테라고야·寺子屋)  
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와 산수의 학습장.(읽고 쓰기와 산수 : 테나라이 스승과 어린이들)  
일본 근세는 「문자사회」, 열도 안에서 광범위하게 분포, 원칙적으로 학문(유학)은 가르치지 않는다.

■ 현재 신청 준비 중인 일본 근세의 교육자산에 대해

1. 고도칸(弘道館)(미토번 한코(藩校)) : 이바라기현 미토시, 정부의 특별사적(史跡)

- 막부 말기 1841년 개설(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 : 289개의 한코(藩校) 중 최대규모⇒후에 설립되는 변교의 모델이 됨.
- 「고도칸기(弘道館記)」(도쿠가와 나리아키 편저, 교육이념) - 후지타 토코『고도칸기(弘道館記)술의(述義)』(고도칸기의 해설서)
- 후기 미토학(水戸学)에 의한 무사교육(후기 미토학이란 일본적 해석의 유학, 특히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유학적으로 해석. 막부 말기의 내외외환 위기 가운데, 존왕양이의 정치사상을 강조, 일본 중심주의의 국가론 전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의 『신론(新論)』은 이들 사상의 이론서. ⇒막부말기, 전국의 무사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줌. 명치유신의 사상적 원류 중 하나. (근세교육자산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 : 후기 미토학은 특이한 유학, 막부말기 단기간의 한코(藩校))
- 고도칸(弘道館)내의 현존하는 정전(正庁)·지선당·정문=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정전·지선당은 번주나 중신을 위한 시설이며 학생 교육의 장은 아니다.)  
 ※막부말기 유신기의 번 내 정쟁으로 고도칸(弘道館)의 주요 시설이 파괴됨  
 ⇒복원시설이 많다. 「진정성(Authenticity)」에 의문

2. 아시카가(足利)학교(시모츠케노쿠니=이바라기현 아시카가시), 국가 사적(史跡)

- 중세 최대규모 학교, 14세기 말-15세기 초 성립, 아시카가시의 보다이지(菩提寺)를 중심으로 학습활동 (학생들이 모여 길드적 학습자치), 우에스기 노리자네(간토관령)이 1439년 본격적인 학교로 정비.
- 「반도(坂東)의 대학」: 역학, 유학, 의학, 병학, 불교 등 가장 고도의 학문 교육 - 전국에서 많은 학생이 모임(승려·무사·유생 등)
- 16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여러 번 언급.
- 각 시대의 영주의 보호를 받아 메이지 초기까지 이어짐.
- 국가 사적(史跡)「아시카가 학교 유지」, 성당=대성전(大成殿)은 1668년 막부의 지원으로 세워졌다. 현재 유적은 대부분이 1990년대에 복원(진정성에 의문)
- 근세 에도 시대 막부의 보호는 있었지만 교육기관으로서는 기능하지 않았다.  
 - 「근세교육의 문화유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3. 간기엔(咸宜園)(분고·오이타현 히타시), 국가 사적(史跡)

- 최대규모의 근세 유학 주쿠(塾)(시주쿠(私塾))
- 1805년 유생 히로세 탄소가 시작한 시주쿠(학문 주쿠), 삼탈법(三奪法)(신분·학력·연령)=학력주의와 경쟁주의를 철저히(월단표(月旦表) : 성적 서열표, 무급~9급(上下 포함 총 19등급)
- 교쿠소-세이손-린가이가 계승. 1897년까지. 학생은 탄소 시대 3000명, 총 4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 현존 건축물=슈후안(秋風庵)과 엔시로(遠思楼)만 남아있다. 대부분은 복원 유적(진정성이 난제)

#### 4. 시즈타니(関谷)학교(오카야마현 비젠시, 고가쿠(郷学))

①국가의 특별사적, 강당은 국보(국보지정 교육시설로서는 일본에서 유일함), 기타(쇼사이(小齋)·슈게이사이(習芸齋)·인시즈(飲室)·분코(文庫)·고문(公門)·세이묘(聖廟)·시즈타니 신사[호렛시(芳烈祀)]·돌담 등 24채) 대부분의 건축물이 국가의 중요문화재. 더불어 주변 히요케야마(火除山)·한치(汗池)·츠바키야마(椿山)·고요테(黄葉亭)·츠다 나가타다 집 옛터(津田永忠宅跡)·석문 등을 포함해 국가 특별 사적으로 지정.

장서·자료서적 등이 거의 현상 보존.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

②건축물 대부분이 300년 전의 건설 당시 그대로 거의 완전하게 현존하는 귀한 학교. 시설, 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면밀 주도한 배려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③오카야마 번주 이케다 미즈마사가 충신인 츠다 나가타다에게 명령해 무사들과 상류층 민중을 대상으로 주자학을 교습. 강당에 「백록동서원 계시」를 걸어놓음. (중국, 조선 서원과 공통)

④미즈마사는 유교적 인정(仁政)의 이상 실현을 지향함. 그 방법으로서 「학교」보급을 시도.⇒유학을, 인정을 함께 펼칠 무사 및 민정관(농민지도자층)과 공유하기 위해 무사를 위한 한코(藩校)(1666년 설립) 개설.

또 농민 지도자 층의 학습 시설로서 테나라이도코로(手習所(123개소))를 설립. 유학 교육을 철저히 했다.⇒테나라이도코로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학교를 통한 인정 실현을 포기하지 않고 시즈타니(関谷)학교를 건설했다.

⑤18세기 후반기 이후 시즈타니(関谷)학교는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활성화됐다. 즉 민중 지도층은 스스로 학습하는 학교로서 활용하고 그 결과 시즈타니(関谷)학교에서 학습활동이 성황리에 이뤄짐. 학생은 지역의 민중지도층과 지방 무사층. 희망자가 있을 경우 다른 번의 무사들도 입학 허용.

⑥시즈타니(関谷)학교에서는 유학의 기초교육(소리 내서 읽기와 내용 설명)이외에 유생 육성의 본격적인 학문학습도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농민출신의 유생 문인이나 시즈타니(関谷)학교 교수도 배출했다.

⑦시즈타니(関谷)학교는 전국 유생 문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전국의 각 번에서 학교에 관한 문의와 정보제공 요청이 있었으며 각지의 학교 건설의 참고가 되었다. 시즈타니(関谷)학교를 방문하는 유생 문인도 적지 않았다.

⑧1670년 건설 착수, 1701년 완성-메이지 3년(1870년) 폐교-1873년 야마다 호코쿠(비추 타카마츠의 양명학자)를 초빙해 시즈타니 쇼샤(関谷精舎)로서 재건-사립 시즈타니 중학교-오카야마현 시즈타니 중학교-현립 와케(和氣)시즈타니 고등학교(전후)로 현재에 이른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이 지탱해온 희귀한 학교.

⑨시즈타니 학교는 중국서원의 4요소(강학, 장서, 제사, 학전)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공통의 서원의 특징을 갖는다.

※일본 특유의 특징도 있다 : 건축물, 제사, 서민+무사+타 번에 대한 개방 등, 학생 층이 중국의 사대부층, 한국의 사림=양반 토족과 계층적으로 다르다.

※그 배경에는 일본 근세의 「학문하는 민중층」이 일정 수준의 두터운 층으로 존재했다.

■ 일본근세교육자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무엇인가.

(대표성 · 포괄성, 진정성, 완전성, 적절한 보존관리체제)

1. 세계성, 국제성

일본 혹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인류사 속에서의 의미(보편적 가치의미=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 ①유학 사상의 보편적 의미=봉건적 구 사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초월한 경서(經書)=고전을 공유하고 일정의 문화와 사상의 교류권을 형성했다.
- ②유학을 통한 정치주체, 도덕주체의 형성이 이뤄지고 유학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했다. 요컨대 보편적인 인간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 ③유학은 고도의 지적 활동의 원천이며 중국고대 고전을 습득·해석함으로써 늘 새로운 사상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2. 현대적 의미

- ①근대 학교로 대표되는 근대 교육은 서양 근대에서 비롯한 근대의 지식에 입각한다. 이는 심신 이원론에 입각한 「과학 모델」이다. 즉 측정(언어화)가능한 일의적 개념과 이론에 의해서 구축되며 교과별로 분절화된 지식체계이다.
- ②국민국가 속에서 「국민」의 육성, 산업화=자본주의화를 노리는 지도자와 노동자의 육성, 민주주의를 담당하게 될 시민(사회의 구성원)⇒마음의 문제(도덕, 인간형성)와 학교의 교과 학습이 분리⇒심신이원(心身二元)=신체성의 소외
- ③근대 학교교육의 한계(고도 미디어 사회=인간의 관계성의 변질, 신체성과 자연성=전체적 초월적 세계의 상실 등)를 새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이하, 츠지모토 마사시 「시즈타니(閑谷)학교에 담겨진 사상과 교육」(비젠시 교육위원회 편저 『학습의 원향(原郷)「시즈타니 학교」』미간)의 초록에서 발췌.

■ 근세 고가쿠(郷学)로서의 시즈타니(閑谷)학교

시즈타니 학교 입학생의 중심은 촌락 관리자(村役人)층의 자제들이었는데 무사 자제들도 받아 들였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열었다. 행정상으로는 한코(藩校)의 학교 호코(奉行) 지배 하에 있었으며 당초에는 한코(藩校) 교수들도 많이 파견 왔었고 교육내용도 방법도 거의 한코(藩校)에 준했다.

시즈타니 학교가 활성화된 것은 메이와기(18세기 후반) 이후였으며 19세기 전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한코(藩校)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무사 교육이 중시되었다는 동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 중요한 것은 시즈타니 학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촌락 관리자(村役人)층 이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와케군 働村의 지방관리인 有吉和介등 有吉 가문의3명과 기타카타무라 지방관리인 다케모토 쿤류는 시즈타니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후에 그 곳 교수역(教授役)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참고로 쿤류의 형인 다케모토 토토안도 이 곳에서 수학한 후 한시 작가·서예가·의사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문인이 됐다.

이와 같은 마을 관리층의 학문은 1780년대에 시작된 「덴진코(天神講)」라는 지역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시즈타니 학교 학생을 강사로 하는 민중의 경서 학습모임이었으며 주변지역에도 널리 퍼졌다. 지역사회의 과제를 불교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지도층의 내발적인 학습이었다. 민중지도자층의 이러한 학습의욕이 시즈타니 학교를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미즈마사가 1세기 전에 「학습하는 민중」을 정책적으로 창출하고자 했던 염원이 1세기 후 이 단계에서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다. 시즈타니 학교가 그들의 학습의욕을 해소하는 장이 된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1871년까지 시즈타니 학교는 존속했었으나 그 것은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곧 부활)

민중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학교를 「고가쿠(郷学)」라 한다. 이리에 히로시는 「호학유지 교육지도의 학사(好学有志教導の学舎)」의 모습에서 「근세적 공공성」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근세 향학의 본질을 찾았다. 1720년대, 오사카 근교의 간스이도(含翠堂(세츠히라노)나 오사카의 가이토쿠도(懷徳堂)에서 앞선 사례를 볼 수 있는데 1780년대 에치고(니가타현)의 농촌에서 상층농민유지가 유생을 초빙해서 개교한 조요칸(朝陽館)에서 고가쿠(郷学)의 기본 틀을 찾아볼 수 있다(이리에 히로시 2011 「고가쿠(郷学)론」, 다카기 야스후미 등 편저 『근세 일본에서의 「학습(学び)」의 시간과 공간』 게스이샤). 시즈타니 학교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학습의욕이 있는 지역민중 지도층이며 게다가 시즈타니 학교는 일반 백성이나 외부에 열린 배움의 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즈타니 학교는 「근세적 공공성」을 갖춘 고가쿠(郷学)였다.

생활과 관련된 스스로의 과제를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극복하는 의욕이 시즈타니 학교 교육을 지탱해 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교육의 보편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본래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8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한 한코(藩校)가 일종의 정치의 방법이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 ■ 시즈타니 학교의 교육

미즈마사는 당초에 나카에 토주-구마자와 반잔의 「心学」을 수용했는데 후에 점차 주자학으로 기울었다. 변의 학교는 주자학을 자각적으로 채택하고 시즈타니 학교도 이에 따라 「純粹朱説」을 내세웠으며(강당에 백록동서원 게시), 이는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학생은 8세 입학이 표준이며 학습 과정은 우선 「습자사(習字師)」로부터 문자를 배우는 「習字」와 「독서사(読書師)」에 의한 경서(『효경』 『소학』 사서, 오경)나 「좌국사한(역사서)를 소리 내서 읽는 소도쿠(素讀)가 있다. 오경의 소리 내서 읽는 과정이 끝날 무렵 경서 의미해석 강의에 들어간다. 또 교수나 독서사의 집에서 빈번하게 여러 사람이 모여 경서 등의 해석을 하는 회독(會讀)도 가졌다. 월 6회 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서 강석(講釈)」은 교수가 주도하며 교원·학생·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외부 희망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것이었다. 또 「시회(詩會)」 「문회(文會)」가 각각 월 3회 열리며 한시문의 작문과 첨삭이 이뤄졌다. 이런 교육은 주자학에 입각한 교육법의 표준으로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민간의 많은 자제들이 뜻을 모른 채 소리 내서 글을 읽고는 학업을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효제 충신의 도리는 꾸준히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民間子弟多ハ習字、素讀而已ニ而退校仕、農業相勤候故、勿論孝弟忠信之道を着実ニ講究為仕)」(1814년 다케모토 쿤류의 「제칙(諸則)」)와 같이 민중 학문의 수준이

기록되어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습자와 사서를 소리 내서 읽는 단계에서 수업을 마쳤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고 또 그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교수진이 갖춰져 있었다. 실제로 다케모토 형제나 아리요시 가문의 사람들처럼 시즈타니 학교에서 수학하고 훗날 교수역(教授役)이 된 유학자는 드물지 않다. 교원에는 오카야마 한코(藩校)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시즈타니 학교 상근의 교수역(教授役) 1~3명, 강독사(讀書師)(읽기와 경서 강의 담당)이나 「습자사(習字師)」(습자를 지도하는 교사) 등 10명 가까운 인원으로 구성되었다.(시즈타니 학교 편찬위원회 편 1971 『시즈타니 학교사』 시즈타니 학교사 간행회).

근세는 병농분리의 「문자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한「교육사회」였다. 근세에는 민중들에게도 문자 학습이 침투하고 상업 출판이 보급되고 아동기에 소정의 교육을 필수로 하는 「교육사회」였다. 어린이가 학습하는 장(테라고야 寺子屋)가 광범위하게 성립되고 그 곳에서 가르치는 직업교사가 등장한 것은 일본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결과 테라고야(寺子屋), 학문 주쿠(學問塾 (시주쿠 私塾)), 고가쿠(郷学), 한코(藩校) 등의 학습기관이 근세에 보급됐다.

시즈타니 학교는 어린이들의 문자 학습부터 유학의 기초학습인 경서 읽기, 나아가 고도의 유학 학습까지 가능한 유학의 「학교」였다. 더 나아가 민중·무사의 신분을 초월한 학습의 장이었다. 즉 근세 학습의 제반 요소나 제반 기능을 모두 갖춘 시즈타니 학교는, 근세 학교로서는 보기 드문 학교였다. 그런 의미에서 시즈타니 학교야말로 일본 근세「교육사회」의 특징을 고루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즈타니 학교가 가진 「보편적 가치」이다.

#### ■ 소리내어 읽기(素讀)에서 볼 수 있는 유학교육의 특징—근대학교를 생각하기 위해

유학의 학습에 아동기의 「소리내어 읽기(소도쿠 素讀)」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7-8세 어린이들이 의미도 모른 채 효경·소학·사서 등의 한서를 소리 내서 한자를 일본어 식으로 읽고 통째로 암송하는 학습. 그것이 소도쿠(素讀)이다. 소도쿠(素讀)는 경서의 음독이 아니라 암기다. 경서를 통째로 몸 안에 넣는다는 의미에서 소도쿠는「텍스트의 신체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서는 성현의 언어로 그것을 「신체화」한다는 것은 성현의 언어를 스스로 일체화하는 것이다. 신체화된 언어는 스스로의 언어로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사상이 풍부한 성현의 언어와 개념으로 사고하고 자기표현을 한다. 유생 지식인은 「한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소도쿠(素讀)는 지적언어·사상언어(한문)의 학습법이며 그 한문이 사상이나 인간형성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대 학습관 측면에서 보면 소도쿠는 어린이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인 학습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도쿠 불용론을 주장한 유생은 없었다. 근세에 개설된 250가까운 한코(藩校)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혼란기, 개혁이 불가피한 18세기 후기 이후에 형성됐다. 위기를 극복하는 관료 양성을 위해 무사들에게 유학 학습이 요구되었다. 유학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던 한코(藩校)는 전무했다. 중국 고대 고전 한자서적의 소도쿠(素讀)와 그 해석에 집중하는 유학 교육은 절실한 정치과제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돌아가는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유학은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경서의 한문언어와 개념을 토대로 지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학문이었다. 이는 인간형성·사상형성의 학문이기도 했다. 매일 반복되는 실천과제나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을 때「몸에 익힌」성현의 언어와 개념에 입각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주체의 형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의 과제를 안고 실천에 옮기는 강한 책임주체 형성이 유학교육이 지향하는 바였다. 막부 말기 유신의 격동기를 주도한 정치주체는 이렇게 유학으로 사상을 형성한 사람들이었다.

유학교육에서는 「신체화하는 학문」이 중요했는데 실은 「학문에 있어서의 신체화」는 유학만이 아니다. 유려한 필체를 쓰기 위해「몸에 익히는」습자(서예) 학습도 역시 신체를 통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몸에 익힌 지(知)야말로 활용 가능한 것이고 그 것이 인간의 내면형성, 인간 형성에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 것이 근세의 학습관이었다. 유아기의 「예절」교육도 신체를 통한 인간 형성의 교육이었다.

신체는 스스로가 가진 가장 친근한 「자연」이다. 혹은 신체를 통해 사람은 환경-타자나 대자연과 접하며 살아간다. 「신체를 통한 학습」이란 감성이나 심성을 가진 사람의 신체를 학습 안에 포함시킨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근대의 학교교육은 이 학습의 신체성을 배제했다. 근대 학교교육은 인간의 지성이 논리화 할 수 없는 세계를 배척하고 근대과학을 모델로 한 지(知)를 통해 기초가 마련됐다. 한편 유학 교육은 이 근대학교와는 다른 지(知)와 인간관·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동아시아의 유학교육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은 현대 세계를 둘러싼 근대교육의 특징을 명확하게 부각시킨다. 신분과 연령과 지역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연결되면서도 민중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시즈타니 학교나 한국 서원의 교육 방식은 근대 학교의 향후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점을 열어준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학교육의 의미를 지금 다시금 재검토하는 것은 현대의 표준화된 세계의 근대 학교 교육을 상대화하는 시점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 수반되는 현대 어린이들의 교육의 병리적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한 세계적 문제이다. 유교교육을 부흥시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 문제의 소재를 지적할 수 있다. 현대 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도 동아시아의 유학 교육에 주목할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교육문화 유산이 갖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그런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발표4

## Them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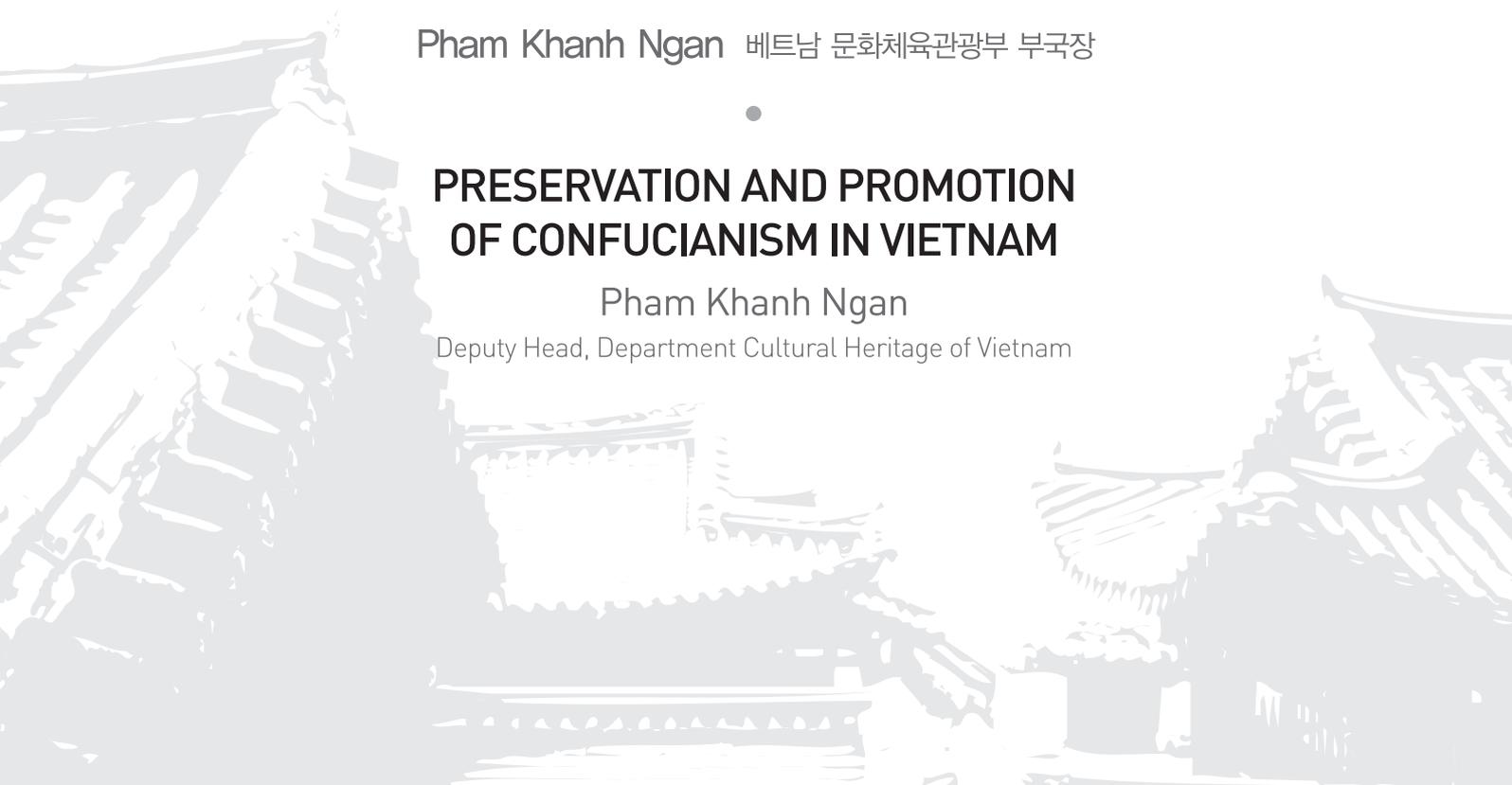
###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Pham Khanh Ngan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ONFUCIANISM IN VIETNAM

Pham Khanh Ngan

Deputy Head, Department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ONFUCIANISM IN VIETNAM

Pham Khanh Ngan

Deputy Head, Department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Confucianism was introduced into Viet Nam since the first century BC. Confucianism, along with the popular Kanji, has lead Viet Nam to the knowledge treasure of society and nature. It i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astronomy and medicine of the ancient Chinese.

## 1.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impact of Confucianism

Vietnamese traditional belief has received Buddhism, Taoism, Confucianism to create “Three co-original religions” (all of three religion from the same origin) and “Three converged religions” (all three religions in the same purpose). In addition, many factors of Confucianism which were introduced into Vietnam, were assimilated by national cultural traditions, changes to be suitable with Vietnamese culture.

- \* The first element of Confucianism is a stability-oriented trend.
- \* The second important factor is an appreciation of humanity.
- \* The third element is the trend of appreciation of literature, culture and learned people.
- \* The fourth factor is loyal thought for Kings: The Vietnamese is absorbent directly the loyal thought from Confucianism based on available patriotism and national spirit.

With all aforementioned features, it is said that Vietnamese Confucianism remains its own unique identity.

## 2.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Confucianism in Vietnam

In the long-last history of Vietnam cultural heritage, Confucian cultural heritage is characterized by both common colors of Vietnam cultural heritage and unique features.

The Confucianism heritage sites are including 4 main types:

- \* The monument systems of Confucius worship: Temple of Literature, Van Thanh Temple, Confucius Temple.
- \* The monument system s of successful graduates worship: Van chi, Tu chi, Tu vu, Nghe temple.
- \* Schools, examination locations...

\* Temple, poem, Confucian scholar, philosophers, competition - examinations, tombs, tips, statues ... related to the competition - examinations of the family, family.

### 3.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cultural heritage values associated with Confucianism

Facing the challenges of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general and Confucian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we need to propose appropriate solutions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se highly valuable cultural heritages.

#### 3.1. Protecting activity

\* According to DAI NAM THONG NHAT TRI, The Temple of Literature system of Vietnam under the Nguyen Dynasty had 28 temples from the central to local. Undergoing the ups and downs of history, nowadays only 9 temples in provinces/cities have been ranked in national monuments. Nowadays, beside ranking national monumen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combining with provinces/cities to continue improving the criteria for ranking national monument.

\* The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interested and planned to renovate regularly according to the budget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r local Expenditure and socialization.

\* In recent year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 Training conducted on a program named "Building friendly schools, active students", initially received certain results.

#### 3.2. The promotion of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values

\* Focus on inventorying, identifying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value in promoting traditions, good values of the nation and enhancing awareness of community about it today.

\*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on a national range, centralizing to build common data store about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creating widespread network among schools, organizations,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ervices and other management units of cultural social activities in central and local, all make good condi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value in the innovating period.

\* Research and develop annual festival programs at monuments are to reserve the quintessenc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attract visitors coming to study and visit.

\* Concentrate on training Han - Nom experts,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research, collection, translation, dissemination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UNESCO to exchange and receive assistance from experts, advance skills and techniques to preserve and promote the values ??of the World Memory Program and activities related UNESCO.

#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MA. Pham Thi Khanh Ngan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베트남에 유교가 전래 된 것은 BC 1세기경이었다. 당시 인기 있던 한자의 전래와 더불어, 유교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보고로서 베트남을 이끌어왔다. 유교는 고대 중국의 문학, 역사, 철학 및 천문 의학의 정수이다.

## 1. 유교의 형성 과정과 영향력

베트남 토속 신앙은 불교, 도교, 유교를 수용하여 “동일한 뿌리를 가진 삼원교 (tree co-original religions)” 및 “변화된 형태의 삼교 (three converged religions-동일한 목표를 지닌 삼교)”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베트남에 전래된 유교는 그 여러 요소들이 베트남 문화 전통과 융합되어 베트남 문화에 맞는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 유교의 첫 번째 요소는 안정 위주의 경향 (a stability-oriented trend)이다.

\* 두 번째 중요 요소는 인본주의 존중 (an appreciation of humanity)이다.

\* 세 번째 요소는 문리의 존중 (appreciation of literature) 및 수양을 쌓고 학식이 뛰어난 자를 존경하는 경향이다.

\* 네 번째 요소로는 왕에 대한 ‘충 (loyal thought, 忠)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인들은 애국심과 민족정신에 기반한 유교 (Confucianism based on available patriotism and national spirit)의 가르침인 ‘충 (忠)’에 직접적으로 매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특징을 감안할 때 베트남 유교는 그 자체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 2. 베트남 유교와 연관된 문화 유산

베트남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 유산이 있다. 그 중 유교 문화 유산의 특징은 베트남 문화 유산이 가지는 공통의 색깔과 독특한 특징으로 대변된다.

유교 문화 유적지는 4가지 주요 형태를 띤다:

\* 공자 숭배와 관련된 기념물: 문묘 (Temple of Literature, 文廟), 반탄 사원 (Van Thanh Temple), 공자 사원 (Confucius Temple).

\* 대 학자를 기리는 기념물: 반치 (Van chi), 투치 (Tu chi), 투부 (Tu vu), 응혜 사원 (Nghe temple).

\* 학교, 과거 시험장….

\* 기타 사원, 시, 유교학자, 철학자, 경쟁 시스템- 과거 시험, 무덤, 서책, 조각상… 과거 시험 관련하여- 가문 내 과거 급제자 목록, 가문 족보 등 기록 유산.

### 3. 유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 보호, 증진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특히 유교 문화 유산과 관련된 전통 문화 가치를 보전 증진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베트남은 보전 가치가 풍부한 문화 유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3.1. 보호 활동

\* 대남일통지 (DAI NAM THONG NHAT TRI 大南一統志, 1882) 에 따르면, 응우옌 왕조 (Nguyen Dynasty) 하에 베트남 문묘 시스템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28개의 사원이 있었다. 역사적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날 시도지역의 9개 사원이 국가 기념물 (national monuments)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국가 기념물 등재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기념물 등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유교 문화 유산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 (National Target Program) 예산 할당과 각 지방 정부의 지출 및 사회화 활동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마련했다.

\*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와 협력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적극적인 학생 (Building friendly schools, active students)”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기에 소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 3.2. 유교문화유산 가치 증진

\* 전통 증진에 있어 유교 문화 유산의 가치를 규명,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며 오늘날 유교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지역사회의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 문화 유산을 규명하고 그 관리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 관리함으로써 학교, 각급 기관, 유교 문화 유산 관리 기구 및 기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 활동을 펼치는 유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유교 문화 유산 가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문화 유산 관리의 혁신기 (innovating period)를 달성할 것이다.

\* 기념물과 관련된 연간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전수 및 전통 문화 가치를 보전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현장학습을 강화할 것이다.

\* 유교 문화 유산 연구, 수집, 번역, 전파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교 경전 전문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상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월드메모리 프로그램 (World Memory Program)의 가치를 보존하고 UNESCO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및 기법을 선진화한다.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Paper





#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ONFUCIANISM IN VIETNAM

Pham Khanh Ngan

Deputy Head, Department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Confucianism was introduced into Viet Nam since the first century BC. Confucianism, along with the popular Kanji, has lead Viet Nam to the knowledge treasure of society and nature. It i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astronomy and medicine of the ancient Chinese.

## **1.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impact of Confucianism**

Vietnamese traditional belief has received Buddhism, Taoism, Confucianism to create “*Three co-original religions*” (all of three religion from the same origin) and “*Three converged religions*” (all three religions in the same purpose). Three religions support each other: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take care about social organizations, human body and spiritual human life, respectively.

Confucianism has existed and developed in Vietnam for 20 centuries. The inevitable presence and history role of Confucianism in Vietnam are inseparable from formation and existence of Vietnamese feudalism. Confucianism has meet requirements of the development of feudalism in Viet Nam. Some advance aspects of Confucianism at this time :

It creates the studious tradition, traditions of respecting teachers and learned people and moral rules. Thus, the learned knowledge is cumulated, facilitated for maintenance and development. Beside, it helps people know how to live in the cultural and ethical manner, care about others.

It creates talent recruitment mechanism through exam. Regardless of poor or rich (farmers, workers, solders....) if a person studied good and passed the exam, he could be mandarin to help country (in the West, during this period, the rank just transferred in the internal aristocratic family, civilians hardly became a mandarin). Many people considered learning; examination as the highest goal in their life. Due to it, all people in society respected serious and diligent learning.

In addition, many factors of Confucianism which were introduced into Vietnam, were assimilated by national cultural traditions, changes to be suitable with Vietnamese culture.

- The first element of Confucianism is a **stability-oriented trend**. For Vietnamese agricultural culture, a desire for a stable life is a long-lasting tradition. The need is to maintain the stability not only in civilians but also in court.

- The second important factor is an **appreciation of humanity**. Because it is the long tradition of Vietnam agricultural culture, then during reception of Confucianism, the words “politeness and reason” and “humanity” are favored most by the Vietnamese.

- The third element is the trend of **appreciation of literature**, culture and learned people. In Vietnam society feudal period, literature activities are appreciated more than physical ones. The authorities realized Confucianism in particular and “Literature” in general is a tool to rule. The civilians just saw this is the cultural tool, a way to make a great career.

- The fourth factor is loyal thought for Kings: The Vietnamese is absorbent directly the loyal thought from **Confucianism based on available** patriotism and national spirit. When occurring the conflict between King and country or nation, the country or nation will be the determinant factor.

With all aforementioned features, it is said that Vietnamese Confucianism remains its own unique identity.

## **2.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Confucianism in Vietnam**

In the long-last history of Vietnam cultural heritage, Confucian cultural heritage is characterized by both common colors of Vietnam cultural heritage and unique features.

The Confucianism heritage sites are including 4 main types:

- The monument systems of Confucius worship: Temple of Literature, Van Thanh Temple, Confucius Temple.

- The monument system s of successful graduates worship: Van chi, Tu chi, Tu vu, Nghe temple.

- Schools, examination locations...

- Temple, poem, Confucian scholar, philosophers, competition - examinations, tombs, tips, statues ... related to the competition - examinations of the family, family.

### *2.1. The Temple of Literature, Temple of Literature Lord and Temple of K'ung-fu-tzu*

To prove the importance of Confucianism, right from Empire of Ly (in the 11th century), central government built a temple to worship K'ung-fu-tzu, the master of Confucian the Temple

of Literature in Thang Long Old Capital to transmit Confucianism to aristocracy and nobles. Temple of Literature was to workshop K'ung-fu-tzu, who is considered the “founder” of Confucianism and Confucian together with his students. Since the first temple of literature founded in Vietnam in early 1070 (The year of Dog), following feudal empires decided to build many other Temples of Literature in area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of Vietnam. Located beside the Temple of K'ung-fu-tzu, there were many ones worshiped Doctors of Confucian, who lead the exams in areas around the country. This symbolized for the dominant thought in honoring nation’s tradition of eager to learn and venerating teachers.



Khue Van Cac (Temple of Literature - Hanoi)



Van Thanh Temple (Hue city)

In the Le Empire, in order to honor the doctors ranking first positions in the exams in Temples of Literature, the Court directed to erect monuments naming them, who were known as “Talent and Righteous People- the Country’s Power”. In 19th century, the Nguyen Empire situated Capital in Hue, directed to build National School and erect monuments for Doctors in temples of literature. It is said that in this empire, Confucianism was most highly appreciated and cared about due to the birth of a large amount of temples of literature located in the capitals, towns, cities around the world with general principles. Son Tay Temple of Literature, Bac Ninh Temple of Literature was two of them.

## *2.2. The System of Van chi, Tu chi, Tu vu, Nghe temple*

These historical places used to be the worshipping sites of villages, communes. Also, a lot of cultural activities of to glory intellectual men highly ranking in exams and encourage Confucianists’ studying was taken place here. According to a record of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s, historical places recognized as National Heritages include: 7 monuments of Van Chi, 3 of Tu chi, 5 of Tu vu, and 3 of Nghe temple. Furthermore, amongst historical sites and temples in Vietnam, many ones were to workshop merely K'ung-fu-tzu or local examiners highly ranking in exams such as: Tran Temple (Nam Dinh), King of Le Temple (Nghe An), Mieu Cao

(Nam Dinh), Lieu Nha - Van Thanh (Nam Dinh)... At the moment, there are not many these kind of heritage sites, they are mainly ranked as provincial level sites or inventoried, identified values at local to be protected by Law on Cultural Heritage.

### 2.3. Schools and Examinations

In the feudal time, the empires organized 3 levels of examination: Huong in localities, Hoi Examination and Dinh Examination in central levels. The “Examinations and Examiners in Nguyen Empire”, examination compounds were the same forms, made of unstable materials like bamboo and would be pulled down after the exams. However, examination compound was the only site to be carefully set up. As a result, they



seem to do not have architectural marks remaining but to be known as local locations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lives such as: Trang Thi Street (Hanoi), Trang Field (Cam Giang - Hai Duong). Binh Temple - location of literature discussion in Luy Lau ancient castle (Thuan Thanh - Bac Ninh)...

### 2.4. Temples, houses of worship dedicated to ancient scholars and sages

These are the monuments to worship famous people came from competition-examinations in their homeland or where they had great devotion to education, or became illustrious mandarins (such as Chu Van An, Le Van Thinh, Than Nhan Trung...), especially for those who helped Confucianism to be spreader and developed in Vietnam, typically as: Si Nhiep. According to



records at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148 temples, houses of worship and tombs of Confucians have been ranked as national monuments.

A lot of Nom documents such as poems, odes, essays, diplomas, royal decrees, lacquered boards, pairs of wood panels, stone steles, etc.. Have been collected and stored to research, translate, and disseminate as well as introduce in domestic and foreign. Currently, Vietnam has four World documentary heritages recognized by UNESCO including 82 Doctoral stone steles in the Van Mieu (Temple of Literature) in Hanoi.

### **3.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cultural heritage values associated with Confucianism**

Facing the challenges of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general and Confucian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we need to propose appropriate solutions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se highly valuable cultural heritages.

#### *3.1. Protecting activity*

- According to *DAI NAM THONG NHAT TRI*, The Temple of Literature system of Vietnam under the Nguyen Dynasty had 28 temples from the central to local. Undergoing the ups and downs of history, nowadays only 9 temples in provinces/cities have been ranked in national monuments. In particular, Temple of Literature in Hanoi and Hue are the largest Confucian monuments system of Vietnam. The Temple of Literature system subsists: Xich Dang Temple of Literature (Hung Yen), Mao Dien Temple of Literature (Hai Duong), Tran Bien Temple of Literature (Dong Nai), Cao Lanh Temple of Literature (Dong Thap), Vinh Long Temple of Literature Lord (Vinh Long)... Nowadays, beside ranking national monumen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combining with provinces/cities to continue improving the criteria for ranking national monument.

- The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interested and planned to renovate regularly according to the budget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r local Expenditure and socialization. The Temple of Literature in Hanoi was repaired periodically after 1945 and renovated totally in the period 1990-2000 with a cost of \$ 1,000,000. Mao Dien Van Mieu in Hai Duong was renovated in 2 years from 2000 to 2002. Van Mieu in Hue was renovated in 1994 with a total budget of \$ 100,000.

- In recent year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 Training conducted on a program named “Building friendly schools, active students”, initially received certain results. Each school is responsible for caring a monument to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encourage studious spirit, preserve and respect morality from students’ generations.

#### *3.2. The promotion of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values*

- Focus on inventorying, identifying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value in promoting traditions, good values of the nation and enhancing awareness of community about it today. Strengthening the document collection is to enrich the interior- exterior decoration of relics and

create a range of activities to promote the value of the objects on display.

-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on a national range, centralizing to build common data store about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creating widespread network among schools, organizations,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ervices and other management units of cultural social activities in central and local, all make good condi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value in the innovating period.

- Research and develop annual festival programs at monuments are to reserve the quintessenc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attract visitors coming to study and visit. Besides, organizing activities, cultural - education activities taking place at the Temple of Literature is a form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onuments in effective way in the current period, such as organizing scientific seminars, introducing traditional fondness for learning, teacher-student morality, honoring sage ....; offering incense to commemorate the occasion of the new school year, meeting for discussion ....; reporting works, and commending and rewarding the high-achieving students; activities of clubs: calligraphy, catru, poetry, ...

- Concentrate on training Han - Nom experts,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research, collection, translation, dissemination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Training experts in the field of conservation and establishing a network of links amo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are interested in conservation research and promoting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of Confucianism in the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by appropriate forms, activities which have sense of community, attracting socialization.

-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UNESCO to exchange and receive assistance from experts, advance skills and techniques to preserve and promote the values ??of the World Memory Program and activities related UNESCO.

In summary, in the present stage of development, the positive cultural elements of Confucianism is still continued to revived and enhanced perception by respecting, restoring Confucianism heritage over the whole country. In the schools, the slogan “Learn virtue first, then literature” has been regarded as a fundamental guideline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the cultural heritage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authentic express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of each country, ethnic and Vietnam Confucianism cultural heritage with distinct colors is unique stamp in the diversity of Vietnam cultural heritage during opening - integrating process, contributing to the colorful picture of the mankind cultural heritage./.

#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MA. Pham Thi Khanh Ngan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베트남에 유교가 전래 된 것은 BC 1세기경이었다. 당시 인기 있던 한자의 전래와 더불어, 유교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보고로서 베트남을 이끌어왔다. 유교는 고대 중국의 문학, 역사, 철학 및 천문 의학의 정수이다.

## 1. 유교의 형성 과정과 영향력

베트남 토속 신앙은 불교, 도교, 유교를 수용하여 “동일한 뿌리를 가진 삼원교 (tree co-original religions)” 및 “변화된 형태의 삼교 (three converged religions—동일한 목표를 지닌 삼교)”를 형성하였다. 유교, 도교, 불교 이 세가지 종교는 서로를 지원하면서 유교는 사회적 제도를 도교는 인간과 신체의 근원을 불교는 영적 생활을 각각 담당하였다.

지난 20세기 동안 유교는 베트남에서 발전 번성했다. 유교는 베트남 역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유교는 베트남 봉건주의 형성 및 그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유교가 베트남 봉건주의 발달에 필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발전했다:

유교로 인해 배움을 중시 여기는 전통이 생겨나고 스승 및 학식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전통 및 도덕적 규범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깔고 닦은 지식이 꽃을 피우고 더욱 더 발전 유지되어 왔다. 게다가, 유교의 덕목은 사람이 문화적, 윤리적 방식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타인을 어떻게 인으로서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를 깨닫게 된다.

유교의 전래와 더불어 시험을 통한 인재 등용 시스템 (과거)이 도입되었다. 빈부에 상관없이 (농민, 노동자, 군인...) 배우고 익혀서 과거 시험에 통과하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서양에서는, 귀족 가문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세습된 관계로 일반평민은 거의 관리가 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익혀서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때문에,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배움을 중히 여기고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다.

더욱이, 베트남에 전래된 유교는 그 여러 요소들이 베트남 문화 전통과 융합되어 베트남 문화에 맞는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 유교의 첫 번째 요소는 안정 위주의 경향 (a stability-oriented trend)이다. 베트남 농업 문화의 경우 안정된 삶에 대한 욕망은 오래된 전통이다. 평민의 삶 뿐만 아니라 조정의 안정도 필요했는데 유교는 이러한 삶과 정치의 안정에 기여했다.

\* 두 번째 중요 요소는 인본주의 존중 (an appreciation of humanity)이다. 베트남 농업문화가 잉태한 오래된 인본주의 전통과 당시 전래된 유교가 맞물려 “예 (politeness 禮)와 이치 (reason, 理致)”, “인 (humanity, 仁)”은 베트남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되었다.

\* 세 번째 요소는 문리의 존중 (appreciation of literature) 및 수양을 쌓고 학식이 뛰어난 자를 존경하는 경향이다. 베트남 봉건 사회에서, 문 (literature 文)은 체 (體)나 물리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했다. 특히 조정은 유교를 숭상했고 ‘문 (literature 文)’은 일반적으로 통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일반 평민들은 ‘문’을 수양의 도구이자 입신양명 (立身揚名)의 방안으로 삼았다.

\* 네 번째 요소로는 왕에 대한 ‘충 (loyal thought, 忠)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인들은 애국심과 민족정신에 기반한 유교 (Confucianism based on available patriotism and national spirit)의 가르침인 ‘충 (忠)’에 직접적으로 매료 되었다. 왕들간의 갈등 및 국가 또는 민족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국가 또는 민족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특징을 감안할 때 베트남 유교는 그 자체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 2. 베트남 유교와 연관된 문화 유산

베트남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 유산이 있다. 그 중 유교 문화 유산의 특징은 베트남 문화 유산이 가지는 공통의 색깔과 독특한 특징으로 대변된다.

유교 문화 유적지는 4가지 주요 형태를 띤다:

\* 공자 숭배와 관련된 기념물: 문묘 (Temple of Literature, 文廟), 반탄 사원 (Van Thanh Temple), 공자 사원 (Confucius Temple).

\* 대 학자를 기리는 기념물: 반치 (Van chi), 투치 (Tu chi), 투부 (Tu vu), 응혜 사원 (Nghe temple).

\* 학교, 과거 시험장….

\* 기타 사원, 시, 유교학자, 철학자, 경쟁 시스템- 과거 시험, 무덤, 서책, 조각상… 과거 시험 관련하여- 가문 내 과거 급제자 목록, 가문 족보 등 기록 유산.

### 2.1. 문묘, 유교 대가의 사원, 공부자 사원

유교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리 황제 (Empire of Ly, 11세기)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부자 (K'ung-fu-tzu, 孔夫子, 공자)를 숭배하기 위하여 탕롱 구수도 (Thang Long Old Capital)에 문묘 (Temple of Literature)를 건립하여, 유교를 숭상하였다. 귀족계층 및 관료들 또한 유교를 받아들였다. 문묘는 유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공부자 (K'ung-fu-tzu- 공자)와 그를 따르던 유학자들의 학덕을 기리는 곳이다. 1070년 초 (개띠 해- year of Dog)에 문묘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건립된 이후, 봉건 왕조는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많은 지역에 여러 문묘들을 짓기로 결정했다. 공부자 사원 옆에는, 베트남 전역에서 과거에 급제했던, 대유학자들을 기리는 여러 사원이 있다. 이러한 사원은 배움에 대한 열정, 스승에 대한 경배라는 베트남의 전통적 지배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쿠에 반 각 Khue Van Cac (하노이 문묘 : Temple of Literature - Hanoi)



반탄 사원 Van Thanh Temple (후에 시 Hue city)

레 왕조 (Le Empire) 시기에는 과거 급제 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따서 문묘에 비석 (진사제명비, 進士題名碑)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급제 자들은 “바른 인재-국가의 동량 (Talent and Righteous People - the Country's Power)”으로 알려졌다. 19세기 후에 (Hue)를 수도로 하는 응우옌 (Nguyen)왕조는 국가감 (National School)을 건립하고 유학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령했다.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했듯이 각 수도, 마을, 도시마다 많은 문묘가 탄생함으로써 응우옌 (Nguyen) 왕조 동안 유교가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썬페이 문묘 (SonTay Temple of Literature)와 백닌문묘 (Bac Ninh Temple of Literature)가 유명했다.

## 2.2. 반치, 투치, 투부, 응헤 사원 체계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마을 및 공동체가 의식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원에서는 다수 문화 활동을 거행하며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인재를 기리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활동들을 전개했다. 문화 유산국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s)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국가 문화 유산 (National Heritage)에 등재되어 있다: 7곳의 반치 (Van chi) 기념물, 3개의 투치 (Tu chi), 5개 투부 (Tu vu), 3개의 응헤 (Nghe) 사원이 국가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더욱이, 베트남의 역사적 공간 및 사원 중에서 많은 것들은 단순히 공부자 또는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마을 사람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예로는, Tran Temple (트란 사원, Nam Dinh), King of Le Temple (레 왕 사원, Nghe An), Mieu Cao (Nam Dinh), Lieu Nha - Van Thanh (Nam Dinh)등을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종류의 역사 유적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주로 각 시도 차원의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유산법 (Law on Cultural Heritage)으로 그 보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 2.3. 학교 및 시험

봉건시대 과거 시험은 지방 수령이 관장하는 후옹 (Huong)과 중앙 정부가 관장하는 호이 (Hoi) 및 딘 (Dinh)이렇게 3종류의 시험으로 구분된다. “응우옌 왕조 (Nguyen Empire)시기 과거와 시험관”을 보면 시

협 장소는 동일한 형태를 띠었다. 즉 대나무 같은 재료로 장막을 쳐서 차단을 한 후, 시험이 끝나면 거두어 버렸다. 과거 시험장은 주의를 기울여 설치해야 했으나 임시 건물로 세운 결과 현재 과거 시험장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건축학적 공간이 남아 있지 않으며 단지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Trang Thi Street (트랑 치 가Hanoi), Trang Field (트랑 필드Cam Giang - Hai Duong), Binh Temple (빈사원) - 루리 라 (Luy Lau) 고성 (Thuan Thanh - Bac Ninh)···등 문화적 토론이 있었던 장소로만 남아있다.



#### 2.4. 사원, 고대 유학자 및 현자를 기리는 공간

과거라는 경쟁에서 합격한 지방 유명인사를 기리기 위한 많은 기념물이 이러한 유학자들의 고향 마을 또는 이들이 학문에 정진했던 지역이나 유명한 관리로 봉직했던 마을들에 세워졌다 (예를 들어, Chu Van An, Le Van Thinh, Than Nhan Trung...), 특히 베트남에서 유학의 확산/발전에 기여한 유학자인 씨 니엵 (Si Nhiep 사섭 (士燮), AD 187-226)을 기리는 사원이 유명하다. 문화 유산국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의 기록에 따르면, 148곳의 사원 및 공자와 유학자를 기리는 공간과 이들의 무덤이 국가 기념물로 등재되었다.



유교 경전 관련하여 시, 단시 (시조), 수필, 논문, 왕의 칙령, 칠기판 (lacquered boards), 쌍으로 된 목판, 석판 등 다양한 형태가 수집, 보관되고 연구, 번역,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소개되었다. 최근, 베트남은 하노이 국자감 문묘(Van Mieu, 문묘)에 과거 시험 합격자 이름을 새긴 82개 석비를 포함하여 4개의 UNESCO 기록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3. 유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 보호, 증진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특히 유교 문화 유산과 관련된 전통 문화 가치를 보전 증진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베트남은 보전 가치가 풍부한 문화 유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3.1. 보호 활동

\* 대남일통지 (DAI NAM THONG NHAT TRI 大南一統志, 1882) 에 따르면, 응우옌 왕조 (Nguyen Dynasty)하에 베트남 문묘 시스템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28개의 사원이 있었다. 역사적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날 시도지역의 9개 사원이 국가 기념물 (national monuments)로 지정되었다. 특히, 하노이와 후에의 문묘는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교 유적지이다. 문묘 시스템에 따라 Xich Dang 문묘 (Hung Yen), Mao Dien 문묘 (Hai Duong), Tran Bien (Dong Nai), Cao Lanh 문묘 (Dong Thap), Vinh Long 문묘 (Temple of Literature Lord) (Vinh Long)등이 설립되었다. 오늘날, 국가 기념물 등재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기념물 등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유교 문화 유산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 (National Target Program) 예산 할당과 각 지방 정부의 지출 및 사회화 활동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마련했다. 하노이 문묘는 1945년 이후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여 1990~2000년까지 총 \$ 1,000,000를 들여 관리하였다. Hai Duong에 위치한 Mao Dien 문묘 (Van Mieu)는 2000~2002년까지 2년 동안 유지 보수하였다. 후에에 위치한 문묘 (Van Mieu)는 1994년 \$ 100,000의 예산을 들여 보수하였다.

\*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와 협력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적극적인 학생 (Building friendly schools, active students)”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기에 소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각 학교 마다 문화유산을 하나씩 전담하여 돌봄으로써, 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인식을 증진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 세대의 도덕심을 보전 배양하고 있다.

### 3.2. 유교문화유산 가치 증진

\* 전통 증진에 있어 유교 문화 유산의 가치를 규명,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며 오늘날 유교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지역사회의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유교 경전 수집을 강화하여, 유물의 내적 내용 및 외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고, 전시물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마련 중이다.

\*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 문화 유산을 규명하고 그 관리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 관리함으로써 학교, 각급 기관, 유교 문화 유산 관리 기구 및 기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 활동을 펼치는 유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유교 문화 유산 가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문화 유산 관리의 혁신기 (innovating period)를 달성할 것이다.

\* 기념물과 관련된 연간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전수 및 전통 문화 가치를 보전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현장학습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문묘에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조직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념물을 보호 증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세미나 개최, 베트남인들의 전통적인 학구열 소개, 스승과 제자간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 현인에 대한 경배 의식 등을 진행한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향을 피우며 토론을 조직하고 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다. 우

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지명하여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서예, 카추 (catru- 베트남 전통 공연), 문예 대회 (시 짓기) 등도 개최한다.

\* 유교 문화 유산 연구, 수집, 번역, 전파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교 경전 전문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보전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보전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조직 및 개인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유교 문화 유산의 가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지역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화를 담당한다.

\*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상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월드메모리 프로그램 (World Memory Program)의 가치를 보존하고 UNESCO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및 기법을 선진화한다.

요약하면, 현재 발전 단계에서 유교의 긍정적 문화적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전역에 산재한 유교 문화 유산을 보호, 복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덕이 우선이요, 그 다음이 배움이다 (Learn virtue first, then literature)”라는 슬로건을 교육의 근본 가이드 라인으로 삼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 유산은 각 국가, 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장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진수로 여겨진다. 베트남 유교 문화 유산은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개화에서 통합기를 거치면서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고유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문화 유산은 인류 문화 유산의 다채로운 특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주제발표5

## Them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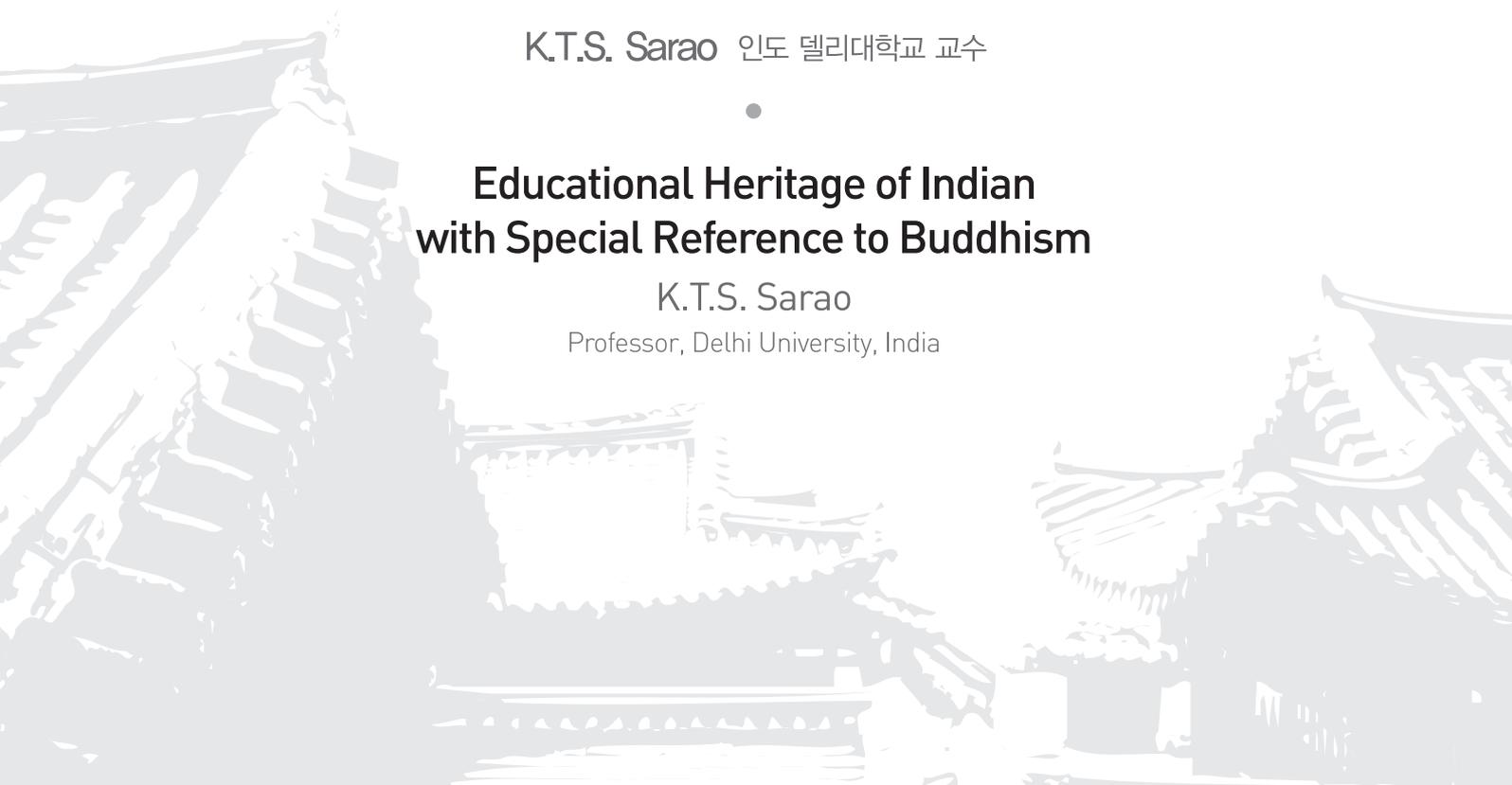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K.T.S. Sarao 인도 델리대학교 교수

**Educational Heritage of Indian  
with Special Reference to Buddhism**

K.T.S. Sarao

Professor, Delhi University, India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Educational Heritage of India

## with Special Reference to Buddhism

K.T.S. Sarao

Professor, Delhi University, India

Birth of Buddhism in the fifth century BCE let loose forces that resulted in far reaching consequen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India. As compared to caste-based Brāhmaṇical-Hinduism allowed access to people only of the upper castes, Buddhism opened the doors of its Order to people of all castes including untouchables. Though initially Buddhism was concerned with the education of novices and monks, but during the course of time, especially with the rise of the Mahāyāna, Buddhist monasteries began methodically to undertake the education of the laity as well. Earlier, education was imparted in India by individual teachers. These teachers worked on individual capacity and in an unorganized manner. Buddhist monastic institutions were already working as corporate bodies. Thus, when they grew into institutions of education, they grew into corporate educational centr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emple schools of Brāhmaṇical-Hinduism drew their inspiration from the monastic centres of Buddhism. In the heydays of Buddhism, India monasteries were spread over the length and breadth of India and as many as ten per cent of them are said to have imparted higher education. Some of these monastic institutions grew into international centres of learning such as the universities of Nālandā and Valabhī. These Buddhist universities were either independent and self-sufficient university-townships or they were located on the peripheries of urban settlements. By virtue of their location, these universities enjoyed the benefit of peaceful environs. Though these academic institutions were run and managed by Buddhists, they were neither sectarian in their attitude nor did they teach only theological subjects. Apart from Buddhist philosophy, sufficient attention was also paid to the study of the philosophy and logic of Jainism and Brāhmaṇical-Hinduism. Credit for the origin of organized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India goes to Buddhism. Apart from this, Buddhism elevate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India through the popularity of it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hich attracted international students from far off places.

#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K.T.S. Sarao 인도 델리대학교 교수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불교의 탄생은 인도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스트를 기반으로 한 브라만 힌두교가 상류계급에게만 허용된 것에 비해 불교는 최하(最下)천민을 포함해서 모든 카스트 계층에게 문이 열려있었다. 초기에는 불교가 동자승과 스님을 교육시키는데 치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불교 사원이 체계적으로 평신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개인 교사를 통해 가르쳤다. 체계화된 교육은 아니었지만 교사는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했다. 불교 사원은 이미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을 때는 이미 기업 교육센터가 되었다. 브라만 힌두교의 사원학교가 불교 사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교의 전성기 시절에 인도 전역에 걸쳐 사원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 10%는 고등 교육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원들은 날란다와 발라비 대학교들과 같은 국제적인 교육센터로 성장했다. 이러한 불교 대학들은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 성격을 지닌 대학타운이나 도심주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위치의 장점상 평화로운 환경의 혜택을 누렸다. 비록 불교 신자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었지만, 종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론적인 과목만을 가르치지 않는 않았다. 불교의 철학 외에도 자이나교와 브라만 힌두교의 철학과 논리를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도에서 조직적인 공공 교육기관의 기원에 있어 불교의 공이 크다. 이외에도 불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인기에 힘입어 멀리 떨어진 곳의 외국 학생을 유치하여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 Paper





# Educational Heritage of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Buddhism

K.T.S. Sarao

Professor, Delhi University, India

Origin of Buddhism in the fifth century BCE released certain forces that resulted in far reaching consequen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India. Caste-based Brāhmaṇical-Hinduism allowed access to people only of the upper castes. As compared to this, Buddhism opened the doors of its Saṅgha to all including the śūdras and the caṇḍālas. Of course, some people such as slaves, government servants, debtors etc. were not admitted so as not to affect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hile begging for food the Buddhist monks and nuns also did not make any references to the castes of people. The senior monks and nuns instructed the new monks and lay followers on different aspects of the Dharma. Initially, these instructions were given orally. Even after writing became known, it was quite a while before it became a part of the academic curricula.

Though initially Buddhism was concerned with the education of novices and monks, during the course of time, especially with the rise of the Mahāyāna, Buddhist monasteries began methodically to undertake the education of the laity as well. The Buddha's injunction for the proper training of every novice in the Vinaya and the Dharma led to the educational developments in Buddhist monasteries. Two ceremonies, the Pabbajjā and the Upasampadā, were prescribed for those who wanted to enter the Saṅgha. The novitiate period began with the Pabbajjā for which minimum age had to be eight years old. For the Upasampadā, which was given after the end of the novitiate period, one had to be at least twenty years old. The novice, who selected a learned person as his preceptor, was expected to beg his daily food though he was also allowed to accept invitations for meals from laym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ice and his teacher was filial in nature and the two had confidence and affection towards each other. He did a variety of manual work for his teacher and went with him as an attendant when he former went on his round for begging or preaching. Besides reminding constantly the novice of his vow of chastity, poverty, and abstinence from pleasures, the teacher also helped him intellectually and spiritually through proper lessons and discourses. He also took care of the novice during sickness and also

assisted him in getting food and clothes. The needs of the teacher were to be as few as possible and his life of simplicity was to be an example for the student.

Initially, Buddhist education was primarily meant for the monastics and hence was meant largely for those who had either entered the Saṃgha or intended to do so. As Buddhism considered existence in the saṃsāra full of suffering and the way to salvation was visualized by the renouncement of worldly life. As a result, Buddhism did not show much interest in the education of those who pursued secular lives. However, as time went by, the Buddhist Saṃgha “real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win public sympathy and support for the spread of Buddhism; this could be more successfully done if the Buddhist monk could help the cause of education as was done by his theological opponent, the Brāhmaṇa priest” (Altekar 1944: 228). Moreover, it was felt that the best way to spread the Dharma was to undertake the education of the rising generation of not only novices but also laity. Buddhism therefore threw itself head and shoulder into the cause of the general education of the whole community from about the beginning of the Common Era (Altekar 1944: 228–229).

Credit for the rise of organized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goes to Buddhism (Altekar 1944: 229). Earlier, education was imparted in India by individual teachers. These teachers worked on individual capacity and in an unorganized manner. Buddhist monastic institutions were already working as corporate bodies. Thus, when they grew into institutions of education, they grew into corporate educational centr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emple schools of Brāhmaṇical–Hinduism drew their inspiration from the monastic centres of Buddhism (Altekar 1944: 229). In the heydays of Buddhism, India monasteries were spread over the length and breadth of India and as many as ten per cent of them are said to have imparted higher education. Some of these monastic institutions grew into international centres of learning such as the universities of Nālandā and Valabhī. These Buddhist universities were either independent and self-sufficient university–townships or they were located on the peripheries of urban settlements. By virtue of their location, these universities enjoyed the benefit of peaceful environs.

One important feature of the Buddhist colleges and universities was that though they were run and managed by Buddhists, they were neither sectarian in their attitude nor did they teach only theological subjects. Apart from Buddhist philosophy, sufficient attention was also paid to the study of the philosophy and logic of Jainism and Brāhmaṇical–Hinduism. Xuanzang is said to have spent over two-fifth of his time in the study of the philosophy and logic of Brāhmaṇical–Hinduism in different Buddhist educational institutions in India. It is noticeable that the education in Buddhist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not restricted merely to the study of theology, philosophy,

and logic, but subjects such as medicine, law, astronomy-cum-astrology, Sanskrit literature, and polity were also taught to enable lay students to secure a government job or take up useful and scholarly pursuits in society. As books were fragile and costly, mostly students learnt their texts by heart. One good advantage of committing texts to memory was this came in handy in debates. But Buddhist education was not exactly confined to the mindless cramming of texts. "Reasoning and analysis formed an important part in the method of teaching; what critical foreign students like Xuanzang and Yijing admired in their Indian teachers was not their keen memory, which stored numberless texts, but their remarkable powers of explanation and exposition" (Altekar 1944: 231). However, innovation was not neglected as a matter of principle, though it appears to have come a little later in life.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the Buddhist education was that students received individual attention and a typical teacher at universities such as Nālandā had only about ten students under his care.

As relig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life of a typical ancient India, inculcation of the spirit of devotion, piety, and religiosity in the minds of students was considered an important goal of education. It was hoped that by doing so, the spiritual aspect of human personality would get strengthened which would help the student in withstanding life's material temptations. However, the aim of such training was not to tempt the student to become a wanderer by giving up his home. Only a very small number of students took a vow to remain life-long brahmacārins.

Development of high moral character was another aim of ancient Indian education so that a student's feeling of good will towards the society is strengthened. The very environment that existed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directed at inculcating a high moral character. A student remained under the direct and personal supervision of his teacher who supervised not only his intellectual progress but also his moral behaviour. Character was built up partly by the influence of direct injunctions, partly by the effect of continued discipline and partly by the glorification of the heroes, held in the highest reverence by society (Altekar 1944: 11-12). The aim was to train the student to be the custodian and torch-bearer of the culture of his society as the society's welfare depended on the proper performance of his duties towards it. "One is impressed by the deep concern that was felt [in the ancient Indian educ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entire literary, cultural and professional heritage" (Altekar 1944: 17). Emphasis laid in the ancient Indian education system on reverence towards teachers and elders, obedience to parents, and gratitude to the heroes of the past also contributed towards the preservation of the best traditions of the past.

Growth and development of self-confidence was another aim of ancient Indian education. An ideal student subsisted by begging his daily food and poverty did not

depress him. His needs were to be few and hence the state and society took care of them. Ancient Indian education also laid emphasis on the inculcation of self-discipline, simplicity, and self-restraint which were also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enrichment of a student's personality. So were encouraged the powers of discrimination and jud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proper personality.

Another aim was the inculcation of civic and social duties so that he may conscientiously and efficiently perform his householder's duties of a son, husband, and father. He was also taught to inculcate the virtues of charity and hospitality. The educational system also aimed at the promotion of happiness and social harmony and efficiency and happiness which were expected to be fulfilled through the appropriate training of the rising generation in the various fields of knowledge and professions. "Education was not imparted merely for the sake of culture or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mental and intellectual powers and faculties. Indirectly, though effectively, it no doubt promoted these aims, but primarily it was impart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every individual for the calling which he was expected to follow". By promoting the progress of the different branches of knowledge, arts and professions, and by emphasising civic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n the mind of the rising generation, the educational system contributed materially to the general efficiency and happiness of society" (Altekar 1944: 16).

One important feature of ancient education system was the tradition of public debates. The youths received training to question the traditional views and theories in religion and philosophy. These debates, that were more like intellectual wrestling, were a constant part of the lives of scholars who engaged in debates not only at their own assemblies but also at the royal courts as well as the śrāddha and marriage ceremonies with the debaters receiving parting gifts depending upon each scholar's performance (Sinha, 1993: 1-10, 68, 70).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ancient Indian education was the Gurukula system. Such a system required the student to stay away from his home. The student was expected to either stay at the house of his teacher or in an established boarding house. It has been mentioned in the Jātakas that students often left homes as early as at the age of fourteen or fifteen i.e., when they were old enough to look after themselve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ssociation and imitation w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great emphasis laid on the Gurukula system. Direct, personal, and continuous contact with a teacher of noble character naturally produces great effect on the mind of the scholar during the pliable period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close association with elderly scholars, who had made progress in education and won the applause of their teachers, naturally induces the new entrants to imitate their

example” (Altekar 1944: 16). It had become fashionable that students educated at home lacked the advantages of school discipline and training and hence were inferior to those who were educated in a Gurukula.

Majority of the Gurukulas were located in the neighborhoods of human habitations, teachers usually being householders. However, universities such as Nālandā combined the advantages of both the town and forest life as they were independent educational settlements, where arrangements were made for the lodging and boarding of students who flocked in hundreds and thousands. In the Jātakas (e.g. the Tittira Jātaka) we have references to teachers following a tradition of leaving cities like Bārāṇasī and retreating to the Himalayan forests for the purposes of being free from the distractions of urban life.

As Buddhism was competing with Brāhmaṇism and Jainism it underwent the three major changes consisting of (a) the adoption of Sanskrit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and debate; (b) rapid expansion of the curriculum that came to include secular subjects such as medicine, astronomy and mathematics etc. as a successful missionary had to be a well-informed and socially useful person; and utmost attention began to be paid to dialectics, logic, and epistemology in instruction as well as the production of scholarly literature (Guruge 1990: 29). This type of expansion of the system of monastic education gave birth to major institutions, such as Nālandā and Valabhī, where aspiring scholars from different parts of India and abroad could receive instruction and do research. Three Chinese pilgrims, Faxian, Xuanzang, and Yijing, who paid visits to some of these educational institutions between the fifth and the seventh century CE, talk of them as centres of educational and literary activity that were maintained through grants and endowments made by both the royalty and the laity.

Xuanzang’s account of Nālandā, where he was a student, shows that it was a full-fledged university with schools of studies, admission and examination procedures, a complete system of academic administration and requisite facilities such as libraries and lecture halls. 1500 teachers catered for 10,000 students who studied 100 different subjects including philosophy, grammar, astronomy, and medicine (Dutt 1962: 329). When Yijing, another Chinese Buddhist monk, visited here in 673–695 CE, there were eight colleges with 300 rooms and 3500 students. At the time of King Harṣa (c. 606–648 CE), the University is reported to have owned 200 villages that it had received as grants (Dutt 1962: 329). The reputation of institutions such as Nālandā can be gauged from the fact that imposters claiming having graduated from here were received with veneration. Nālandā was one of the world’s first residential universities with dormitories for students. During its golden days, the university attracted scholars and students from as far away as Tibet, China, Korea, Japan, Indonesia, Turkey, Greece,

and Greater Persia. The title *acāriya* (equivalent to modern doctorate) was conferred upon those of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s and who had mastered the five sciences i.e., grammar and philology, medicine, logic, metaphysics, and fine arts (Dutt 1962: 323). “During its long and memorable lifespan Nālandā, though functioned primarily as a Buddhist university, also accommodated and trained countless individual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Buddhist and non-Buddhist, the novice and wise, the young and aged, the religious and secular, Indians and foreigners alike” (Phuoc 2012: 59). The library at Nālandā University was an immense complex where students and teachers produced copies of texts meticulously. The librarian was not only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materials but also for guiding readers in their studies (Patel and Kumar 2001: 4). The library of Nālandā University followed a cataloguing scheme which was possibly based on a text classification scheme developed by the great Sanskrit linguist Pāṇinī (Patel and Kumar 2001: 4). According to Yijing, Valabhī University was equal to Nālandā in status. The university imparted education in both religious and secular subjects. The government hired graduates of this university for important positions (Dutt 1962: 329). Universities such as Nālandā, Valabhī, and Vikramaśilā had their translation departments where the different texts, particularly the sūtras, were translated into different languages such as Tibetan. These universities also sent missionaries to neighboring countries. They received royal grants for the acquisition and copying of manuscripts. Most remarkably, besides the Buddhist kings, Brāhmaṇical–Hindu kings also supported these educational institutes.

The Buddhist nunneries become derelict during the early centuries of the Common Era. Buddhist monasteries grew into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reputation only after this period and hence women were not able to receive any benefits of the instructions imparted in them. Despite this shortcoming,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made by Buddhism to ancient and medieval Indian society was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mprovement of literacy. Apart from the fact that credit for the origin of organized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must be given Buddhism, it also elevate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India through the popularity of it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hich attracted students from as far as Korea and China.

## References

- Altekar, A.S. 1944. Education in Ancient India, second revised and enlarged edn., Benares: Nand Kishore & Bros.
- Deegalle, Mahinda. 2003. "Education," Encyclopedia of Buddhism, vol. I, New York: MacMilan Reference USA: 247-248.
- Dutt, S. 1962. Buddhist Monks and Monasteries of India: Their History and Contribution to Indian Cultur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Guruge, Ananda W.P. 1990. "Buddhist Education," Encyclopedia of Buddhism, vol. 5, Colombo: Government of Sri Lanka, 1990: 22-35.
- Joshi, Lalmani. 1967. Studies in the Buddhistic Culture of India, Delhi: Motilal Banarsidass.
- Mazumdar, N.N. 1916. A History of Education in Ancient India, London: Macmillan & Co.
- Mookerji, R.K. 1989. Ancient Indian Education: Brahmanical and Buddhist, reprint, Delhi: Motilal Banarsidass.
- Patel, J. and Kumar, K. 2001.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India, Westport: Greenwood Press.
- Phuoc, Le Huuc. 2012. Buddhist Architecture. Grafikol, Kindle edition.
- Scharfe, Hartmut. 2002. Education in Ancient India, Leiden: Brill.
- Sinha, Samita. 1993. Pandits in a Changing Environment, Calcutta: Sarat Book House.

#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K.T.S. Sarao 인도 델리대학교 교수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불교의 탄생은 인도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스트를 기반으로 한 브라만 힌두교가 상류 계급에게만 허용된 것에 비해 불교의 승가는 수드라와 찬달라 등 모든 카스트 계층에게 문이 열려있었다. 물론, 노예, 공무원과 채무자 등은 제삼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출입이 금지되었다. 불교의 스님과 승려들은 음식을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카스트 계급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지스님과 승려들은 새로 온 스님과 평신도 추종자들에게 달마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알려줬다. 초기에는 이러한 가르침을 말로 전달했다. 심지어 글쓰기가 알려지고 나서도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초기에는 불교가 동자승과 스님을 교육시키는데 치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불교 사원이 체계적으로 평신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법과 율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모든 동자승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불교사원의 교육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팍밋자(Pabbajjā)와 구족계(Upasampadā)라는 두 개의 의식은 승가에 입문하려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팍밋자로 시작되는 동자승 기간은 최소 8세이상이어야 한다. 동자승 기간이 끝나고 나서 치루어지는 구족계의 경우에는 적어도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자승은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신의 스승을 택하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구걸하거나 평신도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 동자승과 그의 스승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 같았으며, 둘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동자승은 그의 스승이 음식을 청하거나 설교를 전할 때 동반자로 함께 따라가서 다양한 노동일을 수행했다. 동자승에게 지속적으로 순결함, 빈곤함, 즐거움에 대한 금욕의 맹세를 일깨워 주면서 스승은 수업과 담론을 나누었으며 지적, 정신적인 성장을 도왔다. 또한 동자승이 아플 때 돌봐주고 음식과 옷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스승은 많은 것을 요하지 않는 검소한 삶을 살며 그의 제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초기에 불교 교육은 주로 사원에서 대부분 승가에 입문했거나 하려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불교는 고난으로 가득한 윤회의 연속이므로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다. 그 결과 불교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의 승가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는 이론적으로 반대에 있었던 브라만교 사제가 그랬듯이 불교 스님이 교육에 이바지한다면 더 성공적일 수 있다” (Altekar 1944: 228). 더 나아가, 달마의 뜻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동자승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불교는 서력기원의 시작부터 전체 공

동체가 일반교육에 뛰어 들었다 (Altekar 1944: 228~229).

조직적인 공공 교육기관의 등장에서 불교의 역할이 컸다 (Altekar 1944: 229). 처음에 인도에서는 개인 교사를 통해 가르쳤다. 체계적이지는 않았으나 교사는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했다. 불교 사원은 이미 법원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을 때는 이미 기업 교육센터가 되었다. 브라만 힌두교의 사원학교가 불교 사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ltekar 1994: 229). 불교의 전성기 시절에 인도 전역에 걸쳐 사원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들 중 10%는 고등 교육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원들은 날란다와 발라비 대학교들과 같은 국제적인 교육센터로 성장했다. 이러한 불교 대학들은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 성격을 지닌 대학타운이나 도심주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위치의 장점상 평화로운 환경의 혜택을 누렸다.

불교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불교 신자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었음에도 종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론적인 과목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교 철학 외에도 자이나교와 브라만 힌두교의 철학과 논리를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은 인도의 다양한 불교 교육기관에서 브라만 힌두교의 철학과 논리를 공부하는데 자신의 삶의 5분의 2를 보냈다. 불교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이 단지 신학, 철학과 논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학, 법학, 천문학과 점성술, 산스크리트어의 문학과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평신도인 학생이 공무를 보거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학구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책이 훼손되기 쉽고 고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다녔다. 글을 암기하면 좋은 점은 토론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교육이 단지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추론과 분석이 교수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유명한 외국 학생이었던 현정과 의정이 자신들의 인도 스승을 존경했던 것은 수도 없이 많은 본문을 외우는 그들의 놀라운 암기력이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해설 능력과 상세한 설명이었다” (Altekar 1944: 231). 혁신에 대한 능력은 이후 단계에서 배양된 것은 사실이나 원리만을 중시하며 등한시 했던 것은 아니다. 불교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학생 개개인을 배려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날란다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사 1인이 10명 정도의 학생만을 가르쳤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인도에서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신앙심, 경건함과 독실함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다. 이를 통해서 인간 성격의 정신적인 면을 강화하여 학생이 삶의 물질적 탐욕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방랑자의 삶은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주 극소수의 학생만이 평생 동안 범행자의 삶을 택했다.

인성의 발달은 고대의 인도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선의적 태도가 강화되었다. 교육기관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학생은 스승의 직접적이며 개별적인 감독을 통해 지적 성장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태도를 닦아 나갔다. 인격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고 또 부분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의 영향과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영웅에 대한 예찬을 통해 이루어졌다 (Altekar 1944: 11~12). 사회의 안녕은 학생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에 달려 있었

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수호자이며 선구자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문학, 문화 그리고 전문적 유산 전반에 대한 보존 및 전파와 관련하여 고대의 인도 교육계가 가졌던 깊은 관심에 감동 받았다” (Altekar 1944: 17). 고대의 인도 교육제도에서 강조되었던 선생님과 어른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복종과 과거의 영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과거의 바람직한 전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해나갔다.

자신감의 성장과 발달은 고대의 인도 교육의 또 다른 목표였다. 매일매일 음식을 구걸해서 근근이 먹고 살면서도 가난 때문에 우울해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학생이라 여겼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돌보아 주었다. 고대의 인도 교육은 자기 수양, 검소함과 자제력을 가르쳤는데 이는 학생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올바른 성격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식별력과 판단력을 키워주었다.

시민과 사회의 의무를 교육함에 있어 또 다른 목표는 학생이 양심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학생은 자선 및 호의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젊은 세대에 적절히 교육함으로써 행복과 사회적 화합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교육의 또 다른 목표였다. “교육은 단지 문화나 정신적, 지적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접적이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자신이 따라야 하는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개개인을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예술과 직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세대에게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적인 효율성과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제도는 크게 기여했다” (Altekar 1944: 16).

고대의 교육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개 토론의 전통이었다. 젊은이는 종교와 철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이론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지도록 교육 받았다. 이 토론은 지적 싸움과 같았으며 학자의 삶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론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궁중이나 슈라다(조례제), 결혼식과 같은 장소에서도 논쟁을 펼쳤고 학자의 능력에 따라 토론자는 떠날 때 선물을 받았다 (Sinha, 1993: 1-10, 68, 70).

고대의 인도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구루쿨라(Gurukula)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이 집을 떠나 자신의 스승의 집이나 기술학교에서 머물도록 했다. 자타카스(Jatakas)에서 말하길 학생은 대체로 자신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나이인 14세 또는 15세에 집을 떠났다. “구루쿨라 제도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와 모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쉽게 순응하는 시기인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고결한 품성을 지닌 교사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접촉하게 됨으로써 학생은 학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높은 학문을 닦고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칭찬을 얻은 노학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갖 학문을 시작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Altekar 1944: 16). 집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학교의 규율과 교육의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고 인식되어서 구루쿨라에서 교육 받은 이들에 비해 열등하게 여겨졌다.

구루쿨라의 상당수는 주거지에 위치했고 대부분의 교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날란다와 같

은 대학교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도심과 숲 속의 생활을 둘 다 지닌 장점을 가졌다. 이와 같은 대학교는 수없이 모여든 학생들에게 숙박과 기숙 시설을 제공했다. 도시생활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타카스(예를 들어 티티라 자타카)에서는 전통에 따라 바라나시와 같은 도시를 떠나서 히말라야 숲으로 들어가는 교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불교는 브라만교와 자이나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을 포함하여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 (가) 가르침과 토론의 수단으로 산스크리트어를 채택하고, (나) 성공적인 선교사는 박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의학, 천문학과 수학 등 세속적인 과목을 포함하여 교육 과정을 급속히 확대했으며 (다) 가르침에 있어서 변증법, 논리와 인식론과 더불어 학구적인 문헌의 제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Guruge 1990: 29). 사원 교육제도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확대는 날란다와 발라비 대학교들과 같은 주요 기관을 만들었고 인도 전역과 해외에서 온 큰 포부를 가진 학자들은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세 명의 중국 순례자인 법현, 현장과 의정은 서력기원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러한 교육기관을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왕족과 평신도가 낸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유지되는 교육 및 문예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은 자신이 학생으로 있었던 날란다 대학에 대해서 학과 공부, 입학 및 시험절차, 완벽한 학사정보 시스템을 비롯하여 도서관과 강당 등 필수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었다고 언급했다. 1500명의 교사가 철학, 문법, 천문학과 의학 등 100개가 넘는 과목을 공부하는 만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Dutt 1962: 329). 또 다른 중국의 스님인 의정이 서력기원 673-695년 이 곳을 방문했을 때는 8개의 전문대학에 300개의 방과 3500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하르샤왕 때 (서력기원 606-648), 대학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200개의 마을을 소유하고 있었다 (Dutt 1962: 329). 날란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사칭하는 이가 있을 만큼 이곳의 명성은 높았다. 날란다 대학은 학생 기숙사를 갖춘 세계 최초의 주거 시설을 가진 대학이었다. 황금기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으로부터 학자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아카리아(acāriya - 현대의 박사학위와 동일함)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고 문법, 철학, 의학, 논리, 형이상학과 미술 등 다섯 개의 부문을 통달한 이에게 수여되었다 (Dutt 1962: 323). “날란다 대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주로 불교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불교와 비불교신자, 동자승과 노승, 젊은 이와 노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인도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수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교육했다” (Phuoc 2012: 59). 날란다 대학교의 도서관은 큰 단지로 학생과 교사는 세심하게 문서의 사본을 제작하였다. 사서는 문서를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문과 관련해서 독자를 지도해주는 역할도 담당했다 (Patel and Kumar 2001: 4). 날란다 대학교의 도서관은 위대한 산스크리트어 언어학자 파니니가 개발했다고 여겨지는 문서 분류제도를 토대한 목록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Patel and Kumar 2001: 4). 의정에 의하면 발라비 대학교는 날란다 대학교와 비슷한 지위를 누렸으며 종교적 과목 및 비종교적 과목 모두를 가르쳤다. 정부는 발라비 대학교의 졸업생을 중요한 요직에 임명했다 (Dutt 1962: 329). 날란다, 발라비와 비크라마시라 대학은 번역 부서를 두어서 특히 수트라로 된 여러 문서를 티벳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다. 이들 대학은 이웃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어 원고 취득이나 사본 제작에 대한 하사금을 받기도 했다. 불교신자인 왕들 뿐만 아니라 브라만 힌두교인 왕들도 이러한 교육기관을 지원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불교의 여승려원은 서력기원의 초반에 이용되지 않았다. 불교의 사원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기관으로 발전하고 난 이후에서야 여성도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고대와 중세의 인도 사회에 미친 가장 중요한 기여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문학의 향상이었다. 인도에서 조직적인 공공 교육기관의 기원에 있어 불교의 공이 크다. 이 외에도 불교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인기에 힘입어 멀리 떨어진 곳의 외국 학생을 유치하여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 Altekar, A.S. 1944. 고대 인도의 교육학, 2차개정 및 증보판, Benares: Nand Kishore & Bros.
- Deegalle, Mahinda. 2003. "교육," 불교의 백과사전, 제1권, New York: MacMilan Reference USA: 247-248.
- Dutt, S. 1962. 인도의 불교 스님과 수도원: 그들의 역사와 인도 문화에 대한 기여,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Guruge, Ananda W.P. 1990. "불교 교육," 불교의 백과사전, 제5권, Colombo: Government of Sri Lanka, 1990: 22-35.
- Joshi, Lalmani. 1967. 인도의 불교 문화에 대한 연구, Delhi: Motilal Banarsidass.
- Mazumdar, N.N.1916. 고대 인도의 교육 발달사, London: Macmillan & Co.
- Mookerji, R.K. 1989. 고대의 인도 교육: 브라만교와 불교, 재판, Delhi: Motilal Banarsidass.
- Patel, J. and Kumar, K. 2001. 인도의 도서관과 도서관학, Westport: Greenwood Press.
- Phuoc, Le Huuc. 2012. 불교의 건축학. Grafikol, Kindle edition.
- Scharfe, Hartmut. 2002. 고대 인도의 교육학, Leiden: Brill.
- Sinha, Samita. 1993.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성직자, Calcutta: Sarat Book House.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주제발표6

## Theme 6

###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The Value of Korean Seowon as World Heritage

Lee Sang-Hae

Emeritus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초록 Abstract





#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관점에서 어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서원(書院)은 조선왕조의 치국 이념이 된 성리학(性理學)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사림(士林) 계층이 16세기 후반부터 그들 활동의 근거지로 향촌(鄕村)에 건립한 고등 교육기관이다. 그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장소에 서원을 세워 전인(全人) 교육을 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학습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제향 학습이었다. 제향 학습은 돌아가신 스승에게 정기적으로 제향을 하는 예(禮)를 통해 그분이 생전에 이룬 학덕을 본받는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둘째는 강학 학습이었다. 강학 학습은 유학의 도통을 세운 성현들이 남긴 경서의 학습과 독서로 이루어졌다. 제향과 강학 학습에서 중요시된 것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 깨우친 바를 체득하여 마음을 닦고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셋째는 유식 학습이었다.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면서도 자연 변화의 이치를 궁구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을 뜻한다.

서원은 제향, 강학, 유식을 위한 공간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서원의 공간은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 유생들이 경서를 강독하는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하는 유식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과 시설물,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서원 중에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이 1871년 전국의 서원과 사우 중에서 47개소(서원 27, 사우 20)만 남기고 훼철할 때 피해를 보지 않은 서원에 속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한국의 서원'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다.

- 1).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 2).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3).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정신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 4).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 5).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상, 의례, 신앙, 문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6).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7).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8).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강화 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등재기준 (ii), (iii), (iv), (vi)에 적합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다.

(ii)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세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교류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되게 한 산실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에 나타난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 절제되고 검박한 형식의 건축미 등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세계관, 장수(藏修) 학습, 한국인의 자연관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iii) 조선시대의 서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 성리학의 전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특출한 증거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양반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었다는 점,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는 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성된 문화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문, 사회, 문화 전통의 사례를 보여주는 특출한 증거가 된다. 한국에는 현재 600여 개의 서원들이 있으며, 이들 서원들은 지금도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회적 활동과 의례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에 속한다.

(iv) 성리학이 지향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음을 실증하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건축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앙상블을 이루는 것임을 보이는 탁월한 사례 이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사림들의 자연관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각 서원이 자리한 입지 조건에 따라 계경(溪景) 입지, 산경(山景) 입지, 강경(江景) 입지, 야경(野景) 입지로 구분되는 서원 입지와 경관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곳에 자리한 서원은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라는 독특한 건축 공간형식과 배치 유형으로 조영(造營)되어 사림들이 서원에서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서원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건축적 앙상블의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vi) 사립 교육기관인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사상과 학술 활동, 예(禮)의 실천, 신앙, 살아있는 전통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 시설로서 이와 관계되는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은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목판(木板) 등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서원에 보관된 제향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는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또한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사람들의 활동무대였다. 이러한 소중한 증거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유산이자 선비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한국의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 남아있다.

# The Value of Korean Seowon as World Heritage

Lee Sang-Hae

Emeritus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This writing is to show what excellent and universal values Korea's *Seowon* holds to inscribed o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Seowon* was a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 built in a country village from the late 16th century as a stronghold for Confucian literati scholars (Sarim) who emerged a dominating power while Neo-Confucianism took root in Korea as a governing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They pursued the well-rounded education by building the academy in a location they regarded as ideal. There were three types of learning in the academies. First, rites were performed on a regular basis to venerate a great teacher or other sages and emulate their commendable achievements. Second, literati learnt from the reading and study of the Confucian classics left behind by deceased teachers who were well-versed in Confucianism. What was important in this memorial rite and study is to take a lesson away from them to internalize it, discipline the minds and turn the lesson into action. Last but not least, literati learnt from relaxation to revive both body and spirit. This means that they learnt how to enjoy the nature and explore the principles of changes in nature free from any tension one might feel while learning, and to revive spirit.

Most of spaces in a *Seowon* were for these three types of learning: a memorial rite, study and relaxation. In a nutshell, these spaces can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its own purpose dedicated for a memorial rite to be held to honor deceased great scholars, for studying and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and for relaxation along with other spaces to support the rites and study with facilities and the surrounding area.

There are scores of remaining Confucian academies spared from the damage in 1871 when Regent Heungseon ordered to destroy all Confucian academies and shrines except for 47 locations (27 Confucian academies and 20 shrines), namely Sosu *Seowon* in Yeongju, North Gyeongsang; Namgye *Seowon* in Hamyang, South Gyeongsang; Oksan *Seowon*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Dosan *Seowon* in Andong, North Gyeongsang; Pilam *Seowon* in Jangseong, South Jella; Dodong *Seowon* in Dalseong, Daegu; Byeongsan *Seowon* in Andong, North

Gyeongsang; Museong *Seowon* in Jeongeup, North Jella and Donam *Seowon* in Nonsan, South Chungcheong. The nine *Seowon* that have applied for the status of world heritage hold the following excellent and universal values.

1) “Korea’s *Seowon*” is an important heritage since it is an evidence to tell people in East Asia exchanged their ideas regarding Confucianism.

2) The nine “Korea’s *Seowon*” which made application for world heritage are the major heritages that represent the philosophy and ideas of the Neo-Confucianism in details.

3) “Korea’s *Seowon*” is a great example that shows ideas and activities related to Confucianism have still lived on.

4) The nine “Korea’s *Seowon*” which made application for world heritage are an excellent example that structures on which Confucianism was reflected and the landscape are well harmonized.

5) “Korea’s *Seowon*” is physically and directly related to ideology, rites, religion and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nfucianism of the Joseon Dynasty.

6) “Korea’s *Seowon*” fulfills requirements as a *Seowon* of the Joseon Dynasty and still is well reserved till now, showing a high level of integrity.

7) “Korea’s *Seowon*” shows sincerity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 formation, structure layout, scenery, design and views.

8) “Korea’s *Seowon*” is a brilliant example that shows the philosophy and ideas of the Neo-Confucianism in details. Its sincerity and integrity intensify the outstanding values that this heritage has.

The nine “Korea’s *Seowon*” that have applied for the status of world heritage are equipped with qualifying conditions to meet (ii), (iii), (iv) and (vi) criteria, to be inscribed on World Heritage, suggested by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i) *Seowon* of the Joseon Dynasty are important heritages that prove Neo-Confucian ideas were exchanged in East Asia during the middle ages.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Neo-Confucianism to take root in Joseon and to come into blossom. They were a mai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becoming the cradle of Neo-Confucianism which was introduced to Joseon and transformed itself into a Korean version of Neo-Confucianism. A harmony between structures and nature, and architectural beauty with modest and moderate style seen in the Joseon’s Confucian academies were the product of

interaction among the world views, learning, and Koreans' views against nature that Neo-Confucianism valued.

(iii) With 400-year history, *Seowon* took root in Joseon, serving as outstanding evidence that the tradition of Neo-Confucianism has still lived on.

*Seowon* embody the cultural tradition based on Neo-Confucianism given that Joseon's *Seowon* was a school for well-rounded education intended to the Confucian literati scholars (Sarim); served as a stronghold for the scholars who had been nurtured through well-rounded education; solidified the bonds among the clan members or people with same family name; and worked as a local cultural center, and played a critical role in creating public discourse. Such *Seowon* is the epitome of the liberal arts, society, cultural tradition which Neo-Confucianism was in favor of.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600 *Seowon* throughout the nation, which still pursue the social activities and rites as a living heritage that Neo-Confucianism claims.

(iv) Joseon's *Seowon*, which demonstrate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Neo-Confucianism's world view, are a special example to show the academy buildings and the surrounding scenery can be blended as an ensemble.

Confucian literati scholars (Sarim) who spearheaded the academy construction took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features in order to bring harmony to structures and the natural views nearby the academy during the construction. Since they valued the unity of heaven and man, it is just natural that *Seowon* were located in a place with a fantastic surrounding view. The nine *Seowon* which applied for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re the main examples of types of surrounding natural views and location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depending on the geological locations: stream, river, mountain and night views. Thanks to such locations, these academies allowed Confucian literati scholars to experience unity of heaven and man almost every day since the academy was formed with its own unique style and formation like relaxation, study and rite spaces to ensure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structures. It demonstrates that location, space formation and structure layout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scenic views. Above all, natural views surrounding academies are well blended with the structures on a canvas, revealing the region's characteristics. In this sense, those nine academies can fall into a special category of architectural ensemble where one should regard academy structures and surrounding scenery as a whole to fully appreciate their beauty.

(vi) As a private education facility, the *Seowon* during Joseon Dynasty is directly and noticeably related to Confucian ideology, academic activities, ritual practices, religion and living tradition.

*Seowon* were a pivot for local culture and reformation and left behind many relevant books and literatures, serving as a publisher and library which produced, distributed and spread books. Ancient books, documents and woodblocks that remain at the academies can be supporting materials to confirm the management of *Seowon* and intelligent activities back then. A document that described names and the number of rite items kept at academies gives a glimpse of the old life style.

*Seowon* are a place where rite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in Confucianism are vigorously practiced. Korea's *Seowon* have maintained the unprecedented tradition of holding a memorial rite for the deceased. Thus, these academies were the stage of action for Confucian literati scholars (Sarim) and were a witness of the region's history of mentality and moral culture. Since such valuable proof itself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presents the spirit of scholars as living tradition, the essences of Confucian culture have remained in Korea's *Seowon*.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본문

## Paper





#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어떤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그 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가치를 구비한 유산이란 곧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정 문화유산이

-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고,
- 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i)에서 (vi)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고,
- 진정성이 있고,
- 완전성이 있고,
- 국내·외 유사유산과 비교하여 대표성과 차별성이 입증되고,
-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규정한다.

이 글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관점에서 어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1. 한국의 서원 개관

서원(書院)은 조선왕조의 치국 이념이 된 성리학(性理學)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사림(士林) 계층이 16세기 후반부터 그들 활동의 근거지로 향촌(鄕村)에 건립한 고등 교육기관이다. '사림'이란 '유교 경서(經書)를 독서하는 선비 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장소에 서원을 세워 전인(全人) 교육을 하였다. '전인 교육'이란 성리학에 입각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인물을 배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성리학이 지향하는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다.

그들은 서원에서 장수(藏修)을 통하여 성리학을 조선 특유의 사상 체계로 발전시켰다. '장수'란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장수 학습의 중심을 차지한 교육유산이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장수 학습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제향 학습이었다. 제향 학습은 돌아가신 스승에게 정기적으로 제향을 하는 예(禮)를 통해 그분이 생전에 이룬 학덕을 본받는 학습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는 강학 학습이었다. 강학 학습은 유학의 도통을 세운 성현들이 남긴 경서의 학습과 독서로 이루어졌다. 제향과 강학학습에서 중요시된 것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 깨우친 바를 체득하여 마음을 닦고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셋째는 유식 학습이었다.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면서도 자연 변화의 이치를 궁구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을 뜻한다.

서원은 제향, 강학, 유식을 위한 공간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서원의 공간은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 유생들이 경서를 강독하는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하는 유식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과 시설물,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서원 공간은 크게 삼단으로 나뉘어 제일 뒤에 제향공간, 그 앞에 강학공간, 제일 앞에 유식공간을 두었다. 서원에서 유식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이 항상 자연과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식공간과 강학공간을 제향공간의 앞부분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의 드나들이 많아 항상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향공간을 가장 뒷부분에 둔 것은 유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그곳이 항상 존엄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함이다.

서원은 바람직한 제향, 강학, 그리고 유식을 위해 한적하고 산수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경관이 좋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경사지이거나 앞이 트인 평지이다.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서원이 자리 잡은 것은 단지 성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 체계에 의한 자연의 운행을 인간 행위의 모범으로 삼아, 자연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천인합일사상의 반영이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입지와 경관 역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人性)의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원에 확보된 산수 경관은 곧 성리학적 교육경관, 즉 서원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이 세워진 곳의 산수 자체가 이미 성리학적 인성의 형성 및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람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드라사는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또 다른 시련을 맞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보수적인 아랍국가들이 믿고 있는 과격 이슬람 이념인 와하비즘을 수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마드라사에는 그러한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탈레반을 비롯한 많은 테러전사들이 이러한 마드라사에서 과격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오늘날 마드라사는 반미, 반서구 이념 교육장, 테러리스트 양성소로 서구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서원 공간 구성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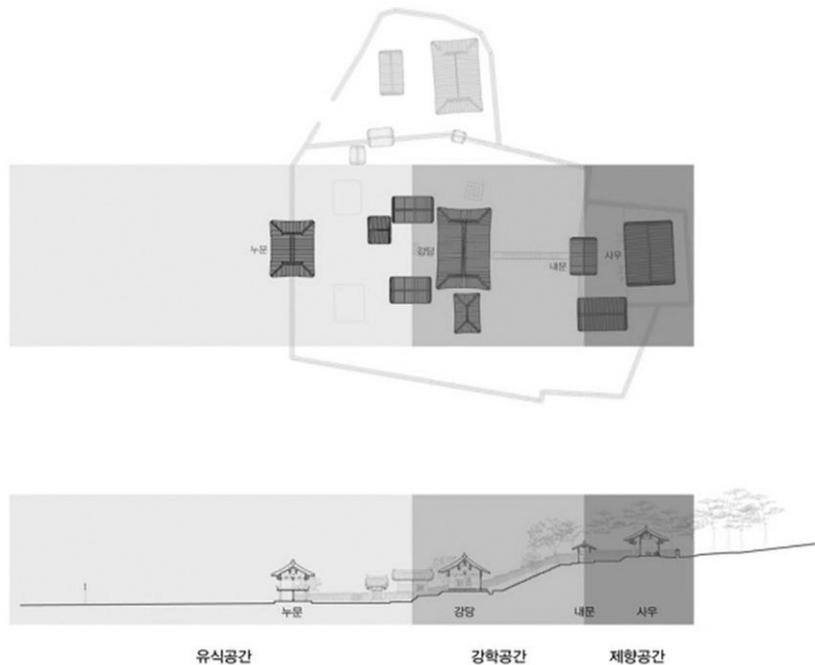
조선시대의 서원은 또한 지역공동체의 중심시설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출판과 강회(講會)를 통하여 향촌 사회를 교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서원은 교육·정치·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 서원은 서원 교육과 운영의 원칙을 정한 원규(院規)와 전문 조직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원규는 독서·강학에 관한 원칙과, 서원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그리고 서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백운동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 조정(朝廷)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음으로서,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립되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 서원 중에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이 1871년 전국의 서원과 사우 중에서 47개소(서원 27, 사우 20)만 남기고 훼손할 때 피해를 보지 않은 서원에 속한다.

소수서원은 고려 후기의 유학자 안향(安珦)을 제향 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소수서원은 16세기 중엽 이래 향사를 계속해 와서 한국 서원의 제향 의식과 서원에서 일상으로 행하여지는 의례를 대표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1552년 건립된 남계서원은 유학자 정여창(鄭汝昌)을 제향 하는 서원으로 출발했다. 남계서원은 서원 공간 구성의 기본틀을 최초로 제시한 서원이면서, 서원이 소재하는 일대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 흩어진 민심 수습을 위한 유교 윤리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서원의 교화적 특징을 대표한다.



남계서원 공간 구성 개념도

1573년 건립된 옥산서원은 도학자 이언적(李彦迪)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이 지역 유림의 근거지였으며 특히 이언적이 생전에 은거한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부근에 문중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다.

1574년 건립된 도산서원은 조선의 주자학을 완성한 이황을 제향 하는 서원으로 주리설(主理說)을 기본으로 하는 영남 성리학의 본산이며, 현재도 사회인 연수(研修)를 통해 유교 가치를 보급하여 조선서원의 교육적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

1590년 건립된 필암서원은 도학자 김인후(金麟厚)를 제향하며 호남 학맥의 본산으로서 으뜸가는 서원이다. 그런 만큼 호남사림 여론 형성의 진원지로서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서원이다.

1605년 건립된 도동서원은 유학자 김굉필(金宏弼)을 제향 하는 서원으로,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서원의 위치와 경관에서 한국서원의 특징을 대표한다.



달성 도동서원 전경

1613년 건립된 병산서원은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류성룡(柳成龍)을 제향 하는 서원으로 자연과 조화된 한국서원 건축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615년 건립된 무성서원은 일반 서원과 달리 지방관에 의해 흥학(興學)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그런 이유로 무성서원은 마을 속에 위치하였다. 향약을 시행하며 한말 의병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1634년 건립된 돈암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예학(禮學)을 확립한 김장생(金長生)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돈암서원은 조선시대 예학 논의의 산실이었으며, 소장하는 문집과 예서(禮書) 책판(冊板)의 간행을 통해 호서 지역 사람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원이 지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9개 서원들은 모두 장수 학습 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 유형유산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의 특성을 모두 합하면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정체성과 유산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독특한 학습방법인 제향, 강학, 유식을 통하여 전인(全人)의 인성을 구비한 인물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9개 서원들은 입지조건과 주변 경관 측면에서 서원이 건립될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세워졌다. 9개 서원들은 또한 건축 배치와 공간구성에서도 자연과 합일을 이루도록 디자인된 유산이다. 9개 서원들이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 빼어남은 현대사회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인류 모두에게도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 된다.

## 2. 한국의 서원이 구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 2-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제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한국의 9개 서원들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다.

1).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중국 송나라 때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고려말 한국에 수입되어 조선 왕조의 치국 이념이 되었다. 조선 건국 후,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세력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현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림(士林) 계층이었다. 그들은 16세기 중엽부터 그들 활동의 근거지인 향촌(鄕村)에 서원(書院)을 건립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2).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을 건립한 주체 세력인 조선시대의 사림들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며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서원에서 장수(藏修)를 통하여 성리학을 한국 특유의 사상체계로 발전시켰다. 장수는 제향, 강학, 유식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3).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정신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에서는 지금도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인성교육이 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자들의 학술적,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중심점 역할을 한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4).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성리학자들은 읍치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산수가 좋은 곳이 그들이 추구하는 천인합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장소에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게 하는 독특한 건물배치와 공간구성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서원’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더 나아가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져 앙상블을 이루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건축전형을 만들어낸 바탕에는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5).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상, 의례, 신앙, 문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사상과 학술 활동, 예(禮)의 실천, 신앙, 살아있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서원은 양반 사립의 전인(全人) 교육을 위한 공간, 선현을 위한 제향을 하며 의례를 행한 장소,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립의 활동 근거지,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심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6).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한국의 서원’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수 학습에 필수 요건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 그리고 이들 공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원공간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학과 유식을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인 수려한 산수를 지금도 온전하고 보존하고 있다. 수려한 산수는 성리학자들이 자연을 관조(觀照)함으로써 천일합일하는 경지에 이르는 가장 바람직한 주변 경관이다.

7).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을 구성하는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을 지금도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일 뒤쪽에는 제향공간을, 그 앞에는 강학공간을, 그리고 가장 앞에는 유식공간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공간구성과 건물 배치는 서원 주위의 경관과 건축 공간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들 서원이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는 것은 1871년 흥선대원군이 훼손하지 않은 전국의 47개 서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8).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강화 한다.

서원은 유럽들이 건립한 교육시설임과 동시에 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거점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 훼손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되지 않았으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개발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구심적인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완전성과 진정성은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 2-2 등재기준의 충족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등재기준 (ii), (iii), (iv), (vi)에 적합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다.

1). 등재기준 (ii) 는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이다.

성리학은 중국의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된 사상이다. 고려 말에 한국에 전래된 성리학은 고려가 망하고 새로 건국된 조선의 치국 이념이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해가면서 성리학의 이(理)와 기(氣)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성리학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몇 개의 학파를 형성하였다. 성리학은 또한 조선사회에 정착한 후 17세기를 거치며, 중국과 달리 이학(理學)과 예학(禮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각 서원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을 모태로 한다. 성리학이 서원의 태동을 가져왔고, 그 서원은 한국 특유의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성리학을 정립하는 산실이 되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서원은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된 산실이었다. 조선 시대의 사림은 서원을 학문의 근거지로 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의 유학사상사는 곧 서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송나라의 주희는 백록동서원을 부흥시키면서 '백록동서원학규'를 만들어 서원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유생들에게 '궁리(窮理)의 학습과 '독행(篤行)'의 실천 원칙을 제시하였다. '궁리'란 인성(人性)과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학습의 방식을 의미하고, '독행'은 학습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방식을 말한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궁리, 독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주희의 성리학이 단순히 학습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실천의 학문으로서 사회 전반의 기본 이념이 되게 하였다. 서원에서 성리학의 궁리, 독행의 원칙에 의하여 교육받은 사림이 중앙 정계의 주도 세력이 되었던 시대는 그 앞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서원은 사람이 장수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고 조용한 산간(山間)이나 물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성리학자들이 서원에서 주변 자연을 내다보며 유식할 수 있는 경관 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다. 또한,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축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을 경영한 사림들은 당대의 지배 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을 조영 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성리학이 중요시하는 절제되고 검박한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원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사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의식과 예절 즉 의례(儀禮)를 거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위 예제건축(禮制建築)의 기능을 하였다. 예제건축은 유교가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으로서,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례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성리학적 이념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건축이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성리학이 중시하는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고 학습하는 곳을 대표한다. 이들 9개 서원의 건물배치와 공간구성에 유교 경서나 성리학이 지향하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9개 서원들의 각 서원 영역과 주변 경관은 성리학적 분위기가 감도는 곳으로 조성되었다.

요약하면,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한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이 교류된 사실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2). 등재기준 (iii) 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다.

중국 송나라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은 유교 경전의 내용을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의 본체와 인성을 새롭게 해석한 사상 체계이다. 조선 시대의 사림 세력은 16세기를 거치며 이기론(理氣論) 중심으로 성리학을 전개시켜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는 한편, 그들의 전인(全人) 교육을 담당하는 서원을 건립한다. 그들은 서원에 사우를 세워 돌아가신 스승에게 제향을 올리며 그 분의 학덕을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갈 방향을 다짐하고, 강당에서 행하는 경서의 강독을 통하여 지식을 몸으로 실천할 방법을 터득하였으며, 누(樓)에서는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산수 경관을 감상하며 유식(遊息)을 하는 전인 교육을 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의 성립은 조선 유교사회에 나타난 '사림의 시대'의 역사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조선의 성리학으로 정립되는데 버금갈 정도로, 조선시대의 서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그 기능과 성격을 조선 사회에 정착시켜 중국과 다른 한국의 서원을 형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 문화 전통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상급 신분인 양반 계층에 속하는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서원은 상급 신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교육의 내용도 수준이 높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서원은 유생의 장수(藏修)가 중시되는 전통을 가졌다.

둘째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이다. 사림은 기본적으로 유학을 배경으로 하는 문사(文士)이기 때문에 학문이나 문예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서원은 자연스레 그 터전이 되었다. 성리학의 해석에 의한 학파가 형성되면서 스승을 모시는 서원이 그런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원은 사림들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였다.

셋째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서원의 사우에 제향된 인물의 후손들은 18세기 이후 자기 집안의 조상 중에서 학덕이 뛰어난 인물을 모시는 서원을 중심으로 친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네 번째 특징은 조선시대의 서원은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한 점이다. 서원에 소장된 유교 경서 이외에, 서원들은 제향 인물의 문집과 같은 서적의 책판(冊板)을 수장하고, 때로는 이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내지 출판 사업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사회에 지식정보의 전달을 통해 문화 활동을 벌려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다섯 번째의 특징은 조선시대의 서원은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소수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한 토론을 거쳐 공론(公論)을 이끌어내는 절차를 추구하였다. 사림의 공론은 작은 단위에서 토론을 거쳐 모아진 의견이 대표들이 모인 큰 단위로 전해져서 다시 의견을 취합하여 조정됨으로서 성립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원은 성리학자들이 장수하는 기능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향촌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기능도 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이러한 공론의 거점이었다.

이상 언급한 것을 요약하면, 조선시대의 서원은 학습에서 지역공동체에 이르기 까지 성리학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교육 철학 및 정치 사회적 활동에 나타난 살아있는 문화 전통을 보이는 특출한 증거가 된다.

3). 등재기준 (iv) 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이어야 한다." 이다.

조선시대 사림의 활동 기반이었던 서원은 선현을 받들며 학습하는 장소이자, 유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인격을 도야한 산실이였다. 서원은 번잡한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하고 산수 경관이 좋은 승지(勝地)에 자리 잡았다. 서원을 건립한 주체인 사림들은 이러한 장소가 성리학이 지향하는 목표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서원은 주변의 자연 경관을 서원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었다. 건물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나아가서는 건물과 자연이 상호관입하여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자들의 사상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리학자들은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 서원을 조영(造營)하였던 것이다.

이는 건축과 자연이 앙상블을 이루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건축 유형에 속한다. 그 바탕에는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관을 갖춘 곳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개울을 보는 계경(溪景) 입지의 서원이고, 병산서원은 서원 앞의 병산이 서원과 하나가 되게 한 산경(山景) 입지의 서원이고, 도산서원과 도동서원은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경관이 펼쳐지는 강경(江景) 입지의 서원이고,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은 전면에 펼쳐지는 들판을 서원 전경으로 끌어드린 야경(野景) 입지의 서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서원의 건물들은 주변 산수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 중에서, 도산서원, 필암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은 주요 건물들이 남향을 하도록 배치되었으나,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바라보기 위하여 굳이 남향을 취하지 않은 서원들도 있다. 소수서원의 강학당은 앞으로 흐르는 죽계를 바라보며 동향을 하였다. 남계서원은 서향을 하며 앞으로 펼쳐진 들판을 대하고 있고, 옥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쪽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도동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여 자리를 잡았고,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되어 서원이 자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는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원이 그 터에 앉혀짐으로서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함께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축과 주변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4). 등재기준 (vi) 은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앙, 예술 · 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한다." 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경전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를 소장하였다. 서원에는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이나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 · 소장되었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서원의 이러한 장서(藏書)의 기능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기능도 겸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교육적 기능 못지않게 많은 서책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 창고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에도 각 서원에는 목판과 서적이 잘 보관되어 있다.

서적을 편찬하고 인쇄하거나 소장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관련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서원의 간행 서적의 종류와 분량은 각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이나, 현존하고 있는 서적의 간기(刊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원에 남아 있는 장서의 판종은 고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석판본 등으로 대별되며 한국의 전통인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낱장의 형태로 남은 고문서 중에서도 그 서원의 내력과 더불어 당시 서원의 장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서원에서 판각된 책판은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책판은 바로 이들 서원에서 출판된 서책들의 원본에 해당되는 지식정보의 원형인 것이다. 이렇게 서원이 수행했던 출판 및 도서관 기능은 왕실 및 문중의 장서와 함께 조선시대 서적 문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서원의 사우에는 선현(先賢), 즉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판이 모셔져 있다. 서원의 향사는 돌아간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은 선현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향사는 유생들에게 있어서 경전 학습과 별개인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학습의 연속인 것이다. 향사 의례는 선현과 유생은 하나가 되는 기회이며, 향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합일의 행사이다. 서원에서 제향이 이어지는 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서원의 전통 또한 함께 계승될 것이다.

조선시대 사림은 향촌에 기반을 둔 사회세력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주하는 향촌 문제는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사림은 서원에 모여 향촌사회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때로는 통문을 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조율하였다.

사람들은 향약(鄕約) 조직과 사창제(社倉制) 운영, 향안(鄕案)·향규(鄕規) 등의 기구를 통해 향촌사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교화를 앞세워 향촌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향약과 향회(鄕會)·사창(社倉) 등은 이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서원은 바로 이런 활동을 위한 향촌사회의 중심시설이었다. 사림이 주도하던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흔히 사림이 중심이 되어 운용되는 향촌공동체로 표현되고 있다. 사림은 지배신분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 결속을 강화하면서, 향약 및 향촌민 구휼기구인 사창제를 활용해 향촌사회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서원은 성리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구로서의 기능 외에도 사림 집단의 정치·사회적인 활동의 장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향촌에서 사림들 간의 교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각 서원에는 심원록(尋院錄)이 비치되어 있어서 서원을 내방한 사람이 자신의 본관 성명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이 중국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적 역할에 있다. 향촌의 사림은 중앙 정계에서 봉당이 출현한 이래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 현안에 대해 각 당파는 자파(自派)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필요로 했으며, 향촌 사림은 수천 명, 때로는 만여 명이 동원된 상소를 통해 여기에 응하였다. 서원은 바로 이런 향촌 여론을 수렴하고 상소 활동을 벌이는 거점이었다.

요약하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사상과 학술 활동, 예(禮)의 실천, 지역사회에서의 성리학자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소중하

고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유산이자 선비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한국의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향하는 본질이 남아있다.

### 3. 맺음말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활동 기반이었던 서원은 제향을 통해 선현을 받드는 전통을 계승하는 장소이자, 유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인격을 도야한 산실이였다. 서원은 원규(院規)를 따르는 원칙과 교육의 자율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으며, 도서관과 출판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은 또한 향촌 사회에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달리 변잡한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서원은 세운 주체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관을 갖춘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조선시대 서원은 여러 기능을 수행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을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본받을 만한 스승을 기억하고 그의 학덕을 되새기며 추모하는 일(제향),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경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강학),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산수를 보며 천인합일의 경지를 터득하는 일(유식)은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서원의 입지 및 경관 조건도 서원에서 성리학적 인간 형성과 교육이 가능토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산수가 수려한 곳에 서원을 앉힌 것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의 운행을 인간 행위의 모범으로 삼아, 자연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것은 천인합일사상의 반영이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입지 및 경관도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간 형성과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에 확보된 산수경관은 곧 성리학적 교육경관, 즉 서원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원이 세워진 땅의 산수 자체가 이미 성리학적 인간 형성 및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원은 서원이 세워진 그 땅의 산수경관을 최대한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원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과 자연이 상호관입하여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을 탄생시킨 바탕에는 격물치지를 학문의 방법론으로 삼고, 천인합일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이렇게 세워진 서원들 중에서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9개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이 제시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ii), (iii), (iv), (vi)을 충족시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병구: 『회헌 안향선생의 생애와 사적』, 신지서원, 1996(1993).
- 성대경: 「대원군의 서원훼철」,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pp.745-770.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 이상해: 『서원』(개정증보판), 열화당, 2002.
- 이수환: 『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2001.
- 이우성 편, 『도산서원』, 한길사, 2001.
- 이우성: 「이퇴계와 서원창설운동」,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pp.282~285.
-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115-163.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해준 외,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1, pp.25~57.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사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고문서로 읽는 조선조 교육의 역사와 풍속』, 태학사, 2013.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학사상대계 V, 교육사상편』, 한국국학진흥원, 2006.
-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2014.
-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2014.
- 한국서원학회: 『한국서원학보』, 제1호, 2011. 12.
- 유네스코: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 서원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 and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